

MAYIM



KOREA

SATURDAY NIGHT LIVE + ABBY ELLIOT



GIRL
2011 MISS MAXIM 우승자
HOMETOWN
HOTTIES USA

GAME
치어리더 여고생의
즐비 사냥

LOVE
진도별 데이트 BGM
콘돔에 대한 여자들의 진짜 생각
추천 마시는 사랑의 묘약
살신성인(殺身成仁)
부킹 술집 체험기

PARTY
겨... 겨울 맞아?

따지남의 존재 이유
변서는은

MOTOR
하이브리드나 전기나
NBA 드와이트 하워드의 차고

말 달려 볼터?



하정우 vs. 다스 베이더 맞짱
사체 처리 노하우

www.maximkorea.net



2012년 2월호
정가 5,600원

그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쾌감질주!

DERBY DAYS

LET'S RIDE

BAD GUY를 위한
Good Choice!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Men's Classic After shave를 드립니다!

iTunes 더비데이즈에 아래와 같이 리뷰 작성
"맥심 광고 이벤트 신청" "E-mail 주소" 기입하고 "알 말" 쓰면 끝!
*참고로 경품은 사진과 완전 다를 수 있음

Available on the
App Store



대장사마를
물론이 가져오세요~



CONTENTS

26 개그맨 정범균

매뚜기 동생 사마귀가 말하는 자신의 최후.

56 REAL BEAST 김중대

낮엔 성실한 공무원이자 광범한 애 이빠지만, 케이지에서는 생난 꿈처럼 돌변하는 북파 공격형 출신 ROAD FC 파이터. 그 앞에서 에디터는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었지.

78 HOME TOWN HOTTIES

우리 말로 하면 우리 동네 이쁜이. 미국 바친 MISS MAXIM 최종 우승자를 만나보자.

92 ICON 이철민

연극, 영화, TV를 종횡무진 누비는 강한 눈빛의 신스타일리 이철민. 벌써 20 년이나 우리 곁에 있었어?

104 HUNTER x HUNTER

죽서 만남에 환장한 MAXIM 수컷들의 부킹 술집 체험기

118 MISS MAXIM 2011

2011 MISS MAXIM의 왕권은 대구 처자 이명희 앞의 뜰에 안겼다. 보달양로 역대 MISS MAXIM 중 가장 아찔한 화보를 선출한다.

+108 FEATURES 애비 엘리엇

3대째 내려오는 원조 촉발집이 있는가 하면, 3대째 SNL을 장식한 코미디 배우 집안도 있다. 그 집 귀여운 손녀딸이 란제의 화보를 찍었다!



ALBA



FCBARCELONA

més que un club



©FCBARCELONA

- 수입원 삼성시계(주) 02671-3182 - 직영매장 세미포 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0403/ 갤러리라 콩코스점 02390-7302/ 현대아이파크 혁명점 02302-4144

CONTENTS

96

코빅 따지남 변서는

말 먹고 대시하면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다는
4차원 소녀. 근데 부정할 수 없어, 너무 귀엽잖아!



후드 집업 카파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14 CIRCUS MAXIMUS

가장 예쁜 쇼핑몰 모델
김도희. 정예 치르기 나리
파괴력 높이기 기이한
경고로. 19급 페이지

28 LOVE

'콘돔'이라는 애증당어리에
대한 여자들의 솔직한 생각

34 GAME

금발 차이라더 여고생의
좀비 도둑기 (헤일로)
의 10년. 액정이 까지도록
문질렀어.이다. 언파티
블레이드즈

40 RATED

(다스 민즈 워), 하정우 VS.
다스베이다. 대박 칠지도
모름) 케이ابل 프로

49 MUSIC

벨런타인데이 광속 진도를
위한 장비비의 선편곡 5

52 TRAVEL

10만 원 들고 도쿄에 입성한
에디터의 운영은? 한편
마달리에 도착한 에디터는
카지노로 직행하는데...

60 STUFF

레이저의 PC 게임 전용
태블릿. 이달의 시계. 최강
전기면도기 4종 테스트.
NBA 스타의 차고 구경

72 MOTOR

하이브리드 VS. 전기

86 SMOKE & DRINK

작업주의 조건. 흑맥주
역사. 점입가경 담배 전쟁
화려하거나 기발하거나

126 STYLE

작업의 완성은 알말이에

138 CLUB

영하의 날씨도 잊은 그곳이
무릉도원.

Dramatic Change Begins

이지에프 바머 포 맨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놀라운 변화

더욱 강화된 EGF성분으로 환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합니다.

re'skin
REFRESH YOUR SKIN



MAXIM

편집장 이연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미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미 송종민
jmi@maximkorea.net
주미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다영
stom@maximkorea.net
장비비
juliahart@maximkorea.net
아이스틴트 조다현
hi@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인어 주미 이은학
eastcoast@maximkorea.net
사원 서용정
yoon@maximkorea.net
사원 신소희
ssh@maximkorea.net
사원 진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미 진영준
zrigoop@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대행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진영 joy@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도현
http://www.towen.com
creiss@towe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심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심장 김명석

포토그래퍼 심장 박 울

포토그래퍼 심장 김도훈

아이스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송우송판유동

대리 이용관

PRINTING / 인쇄 인쇄분배

(주)리터비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성지리의 92-1 1층/111 이연비

발행인 / 대표이사 이연성

이사 양지용 / 이사 원재진 / 이사 유승민

www.maximkorea.net

광고/재류 문의 partner@maximkorea.net 구독문의 joy@maximkorea.net
070-4010-9043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24년 2월호 통권 제22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50

ALPHA MEDIA GROUP

CHIEF EXECUTIVE OFFICER: Joe Mangione
CHIEF OPERATING OFFICER &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CHIEF MARKETING OFFICER: Paul LaRocca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EXECUTIVE VICE PRESIDENT & INTERNATIONAL PUBLISHER: Linda Saint Marc
DIRECTOR OF OPERATIONS: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a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RAZIL
Sandro Aloisio

BULGARIA
Hirsto Zapryan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Seminarti Gobel

ITALY
Roberto Giacomin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n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Nebojsa Prijic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irore Petchjamsroosuk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맥스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맥스도 국제에서 MAXIM 한국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를 포함한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맥스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로열티(프라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맥스에 귀속되며 무단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0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please email: maxworld@maxim.com



Got MAXIM?



광고 ©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렇습니다. MAXIM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들게 합니다. 아이폰/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풀동영상, 미공개했,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가게, 교미사실, 독점버전, 가친수컷, 폐인게임, 총집칼질, 프로운동, 새끈차량, 오토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폰/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LETTER FROM MAXIM



곧 있으면 마치 전 인류가 <칠리과 초콜릿 공장>의 유평파를죽이라고 되는 것처럼 코코아 수확에 매진하게 될 벨런타인데이다. 이 미 여자친구기 있는 놀이라면 간 볼 것 없이 주는대로 납죽납죽 받아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열심구 낙심대를 드려우며 고기가 집하기만을 기다린 강태공이라면 2월 14일 자정이 지날 때까지 내내 스릴과 불안, 믿도 믿도 없는 기대에 정신이 나갈 지경일 거다. 그동안 애매하게 굴던 그녀가 벨런타인데이에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기 직전에 느끼는 두근거림 같은 거 말이다. "오빠, 부담스러워요. 연락하지 마요" "내 스타일 아님, 빠져있어? 일까, 아니냐" "뭐해? 저래? 술 한 잔?" 일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스릴과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뜨르기 마련이다. 본 게임에 들어가서도 스트레스는 계속된다. 돈은 돈대로, 힘은 힘대로 든다. 그러도 한다. 인생에서 남녀상열지사를 빼면 무슨 재미가 있나? 자 통줄 타는 여리분. 이제 알래일 뉘시질은 접고 급한대로 무작위로 딱딱 대량 실포를 해보자. 하여튼 한 명만 걸리면 되잖아.

이번 달 MAXIM은 당신의 연애시절 법칙을 위해 'LOVE 상담소'를 신설했다. 사연 많이 보내라. 연애 1년9개월7일 6천4백33일의 여자 에디터가 매달 연애 고민을 해결해준다(이미 MAXIM 안에서는 용하기로 소문났다). 멋진 배우 이출민 형님의 조금 위험하고 확고한 결혼 성공담도 들려준다(따리하진 다, 범좌자, 범죄, 스타일의 완성인 '얼굴' 관리를 위한 '전기 면도기' 비교사용기, 하체를 돋보이게 할 '간지작살 양말' 그리고 '허체에 힘 박 주는 피트니스'도 준비했다. 작업용 음악과 풀, 명소에 이별 까기 좋은 다양한 안주까지도 마련했으니 맘껏 주워드시라.

초콜릿포기리 좀 못 얻었다고 인류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냐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우울함을 피할 길이 없다. 코코아 수확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슬퍼 미사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일일이 초콜릿은 못 주지만 남보미에 부끄럼치 않은 카드를 써주겠다. 아래 카드를 오려서 부처처럼 가지고 다니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2012년 2월 편집장

이/영/이

F**K YOU, V-Day!

지르는 선 ✂

TO. 오빠

갑작스런 편지에 놀랐죠? 저예요 세걸이.
 벨런타인데이라는 구실로 이렇게 문기를 내기 바보. 사실 오빠랑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몰랐죠?
 오빠도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기대하면서 좋아하는 티 안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안만 보내고 있다가 오빠가 다른 사람처럼 잘되면 후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 써 애기해요.
 벨런타인데이에 혹시 뭐하세요? 안 바빴으면 저랑 술 한잔 안할래요?
 얼마 전부터 집에서 독학하고 혼자 살게 되어서 집에 들어갈 경험없이 한 번 취해보고 싶거든요. 나 도록 오빠한테 어떤 초콜릿을 주면 좋아할까 하고 하루 종일 애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오빠가 거절하면 슬플겠지만 혹시 내 마음 받아주지 않더라도 어색하게 대하진 말아주세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P.S. 참, 전에 소개시켜주신 그 친구들 말이에요, 저가 좋아하는 남자 따로 있다고 거절해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게 바로 오빠예요.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konocorp.com | 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 021950-2164, 현대아이파크 해미타임 0212012-0425, 전진상사 021764-4716, 타임가든 023324-6272, 타임이선 0216388-2927, 타임사보 02166373-7743, 타임21 0213246-7063, 타임월드 0213132-4108, 배스존 0213398-7527, 프코워치 021779-6964 [경기] 덕스시계 0311781-8194, 대성 0321325-7467, 행복론 0321626-0686 시계상사 0311441-0158, 시론주얼리 0311463-9788, 광남 0311658-6882, 타임부츠 0311487-9057, 타임24 0311931-5555, 티파니 0311441-0158, 카시오모모 0321502-7138, [충청] 백인시계 0411640-5081,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0411640-5081, 프브스워치 010-5474-5715, [전남] 타임엔드 0621222-2114, 타임라다 0621224-0305, 골드메이 0621410-0108, 북대백화점 천안점 0631289-2191, [대구] 송주사리 0531256-0975, 골드워치 0531424-4442, 그리니치 0531255-6165, 대구백화점(5층) 0531254-3977, 러프 0531425-0157, 신세계몰스틱 0531566-3316, 주얼리아 0531428-2648, 해피타임 0531428-3084,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8-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1667-7356, 명성 신창점 0511253-5354, 월드타임 0511245-8359, [제주] 제주 주문면세점 0641780-7671.



Letters

저런 나는 3D 실물을 놔두고 2D MAXIM에 잠깐 더 빠져들어야 할지도 모르다. 내가 다른 명품 손가녀를 만날 처지도 안 되고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 중이러오. 살려주세요.

Hurubaa Shin, 이매일 사연

✉ 약속은 해주고 있듯이 다이어트는 다시 피라고 있는 거요. 보야하니 여자친구분께서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시는데, 이는 요요현상이 오기엔 다할 나위 없는데, 이는 정조요. 개구리도 멀리 뛰기 전에 몸을 웅크리잖소? 이제 풀어나는 건 시간문제요. 아마 조만간 본래의 사이즈보다 폭발적으로 부른 여친의 가슴을 반죽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부럽소.

✉ 나는 잉어다

고딩에서 대입으로 입결하는 뻔한 20의 무능약 잉어요. 지금 현재 난 병원에 입결중이요. 원래 이번 달은 스키장에서 여자 사람과 보낼 요량으로 콘도도 예약하고 보드에 왁스도 바르면서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었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 스키장에 가기 전 발가락에 난 시마귀를 제거하려 피부과에 갔소이다. 검사를 해보니 이젠 뼈가 지라나 튀어나온 것을 알게 되었소. 쓸모없는 뼈는 자라는 데 정착 키는 왜 안 크는지 완상스럽소이다. 결국 병원에서 발가락의 1/3을 잘라버리는 참사로 올해 초는 그냥 집에서 반동반동 잉어인이 되었소만 다행하도 WOW라는 게임에 입결을 하여 심기일전하고 있도요. 2월호가 나오기 전 내가 만렙을 찍도록 응원해주시요.

고이즈미모바일 사연

✉ 흠에서 대로 넘어갈 때만큼 사람이 막장으로 퍼질 시기도 없소. 어차피 공부해. 책 읽어야! 행방자 꺾음으로도 안 듣는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렇지만 아침마다 텐트가 활짝 펼쳐지는 20시에 짐에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다가 이런 아랫바를 사는 율령이들에게 대한 모욕이요. 사아미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WOW를 즐겨보는 건 어떨소? 물론, 슬림이 대박엔 지역리과 생각하고 여자사냥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경합치를 쌓으면 말이요. 여기서 특별한 스킬은 평생 써먹을 수 있소(술치하지?). 발가락이 없으면 좀 어떨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데. P.S. 그리고 사람의 뼈가 사마귀처럼 발가락을 바싹고 나오는 것은 대체 어떤 형상이요? 빨리 사정 찍어 보내시요.



✉ MAXIM 스파크가 예뻐~

얼마 전 목동 오거리에서 MAXIM 스파크를 보았습니다. 어쩐지 예쁜 때왔던지요? 목동 총약방형 방향에서 신원+들목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칙 아닙니까? 나도 MAXIM 스파크, 갖고 싶네요!

백영호, 이매일 사연

✉ 장신이 갖고 싶은 MAXIM 스파크가 언제 보사실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소. 단지 MAXIM 차량에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꽂았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받고 차를 빼주는 빅모 에디터가 얼마 전 오후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저지한 적이 있소. 얼마 전, 그가 회사 차량 로디우스의 뒷문을 싣창낸 것도 일부러 그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요. MAXIM 스파크가 운행되는 모습이 계속 보고 싶거든 이 청년에

게 모든 환영제 시리즈를 보내주시요. 그중 진정사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 다이어트는 살심!

요즘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큰일이요. 우리는 합쳐서 한 100kg 정도 되는 돼지 커피이요. 내가 살이 많으니 여자친구의 돼지스러움을 탓할 처지가 안 되지만 실재로 여자친구가 살 빼는 게 실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보게 되는 부위가 나이 먹음수록 아래로 내려간단데, 나는 아직 털이 덜 났는지 숨가에서 엄청더요. 그래서 사실 살이 빠지면 말던 숨가만 크면 나는 한사 OK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의 실패를 초토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 다이어트는 양대다이어트로 식욕이 실제로 떨어져서 진짜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소. 난 어떻게 하면 좋소? 잘 때 물레 식욕유를 먹어야 좋소? 이리다가 진짜 살이 빠



A muscular man is shown from the waist up, wearing green and white Crazybone underwear. He is flexing his right arm and holding the waistband of his underwear with his left hand. The background is dark and moody.

24 HOURS WITH YOUR SKIN
AND MAKE YOUR BODY COMFORTABLE 

YBONE CRA



CRAZYBONE PREMIUM UNDERWEAR COLLECTION

대리점 개설문의 / 고객센터 080-911-8989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1 KOON빌딩
www.crazyboneshop.com / www.icrazybone.com

CRAZYBONE
UNDERWEAR COMPANY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0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생문 접수: 진짜 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마음버스 타고 온 옛된 중배리 녀석
가만히 앉아서 독자사연을 한 2장 정도 백복하 쓰더니 갑자기 위험 가야 한다고 수줍
게 돌아서더니, 너의 용기에 감복했다! 다음에 또 오면 형들이 까까 사줄게.

새맛은 두둑히 받았지? 이제 MAXIM 장구독 타일이 들어왔어.
매달 사보는 게 더 좋아? 골라내대로 해, 우리의 독자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깐 이번 달 선물 소개는 유혹에
상생이 적어 놓았다. 영모 안 하고는 못 배길거야!



GIFT FOR R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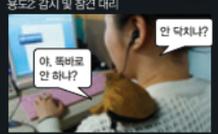
100% 자연주의 천연 개구리 지갑

MAXIM 독자들의 아름다운 인연이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라는 염정을 담아 사랑의 징표로 바친다. 얼마 전 팔리던 마블라에 다녀온 편집장이 직접 구매해온 천연 개구리 지갑입니다. 눈길하고 지퍼 백고는 모두 진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배에 달린 지퍼를 열어 동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내장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FUNCTION

용도: 생난 편집장 대신 머리채 잡기



용도: 자연스러운 옛날기용



플렉 아이보리, 7개 모든 컬러에 장이올리는 배편된 카탈로그는 매년 가을 사랑받는 책상입니다. 소매치기도 허부(로) 남물 수 없는 도잔적인 빛으로 옛날기와 보인, 두 마리 도끼를 잡으세요!



MAXIM 디자이너 사생원, 이시연, 최다현



LAYERED UP & 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백화점]
 중계 2001아울렛 02)3399-8222, 아람 NC백화점 031)701-6841, 분당 2001아울렛 031)786-1808, 수원 AK PLAZA 031)240-2193, 일산 뉴코아백화점 031)900-5162,
 대전 세이백화점 042)257-7745, 천안 신세계백화점 041)640-5081, 광주 신세계백화점 062)360-1934, 대구 태백백화점 053)254-3977, 울산 뉴코아백화점 052)210-4010,

[서울] 드와치 02)2200-1355, 로만스 02)455-6841, 사포 02)463-9788, 시계독립 02)6282-2777, 워치북 070)4136-5090, 이와치 명품 02)771-7033, 이와치 종로 02)722-1673,
 창우상사 02)3424-0794, 타임21 02)3424-7063, 타임가는 02)324-6272, 타임메인 02)6388-2927, 타임시모 02)6373-774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경기] 대성 032)325-7467, 핑키퐁 032)626-0686, 새문뉴얼리 031)463-9788, 유빈 031)698-6883, 크로왕스 02)2067-8808, 타임루트 031)487-9057, 탑타임 031)413-7656,
 티파니 031)441-0158, [인천] 카시오포유 032)502-7138, [광주] 보보스워치 010-5434-5915, [광주] 월드메니아 062)410-0138, 타임엔젤포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6-0305,
 [대구] 골드&워치 053)424-4442, 공주나라 053)256-0975, 레프 053)425-0157, 스위스 053)639-5252, 유얼리아 053)429-2668, 해피타임 053)428-3086,
 [김해] 시계백화점 050)337-916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9-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항점 051)233-5354, 서울시계 051)245-0625,
 와블 051)919-4704, 월드타임 051)245-8359,

CIRCUS M

CATCH ME,
IF YOU CAN

2011년 12월호에서 소개한 배우 뽀치는 쇼핑몰 모델 간 인기 투표에서 간발의 차로 '캐치미'의 김도희 양이 1위를 차지했다. 독자의 발기 넘치는 문자 폭탄을 견디지 못한 회사 아이린이 하루 종일 덩동거리다 반나절 만에 방전되는 일이 반복될 정도로 대단한 반응이었다(덕분에 1월 내내 녀석의 통구멍에는 충전기가...). 자, 받은 만큼 화보로 돌려줄게.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FILM 송종민 ASSISTANT 최하연

사람한
옛보기



재킷 스킨트 캐치미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MAXIM 독자들이 뽑은 쇼핑물 모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소감이 어떤가?
예상도 못했다. 잡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내가 1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대(웃음). 촬영하면서 그런 건데, 이거 완전 기분 제치는 일어네?

쇼핑물들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오늘이 아닐까(웃음)? MAXIM 모델 후보로 실린 뒤, 남자들이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개미지에서 많이 주문하더라. 아침부터 웬 수컷들이 걸걸한 목소리로 여자 옷에 대해 물어보길래 깜짝 놀랐다. 이것이 MAXIM의 위력인가.

이번 달부터는 전화받는 알바생을 구해야 할 거다. 쇼핑물 사진 촬영과 MAXIM 홍보 촬영은 어떻게 다르니?

쇼핑물 촬영은 동업하는 친구랑 달랑 둘이서 무조건 속사포처럼 찍어댄다. MAXIM 촬영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조명과 스태프 앞에서 포즈를 취할 줄이야. 우 리끼리 촬영할 땐 카메라 앞에서 웃기만 하면 금방 끝났던 말이다(웃음)!



김도희

생일: 2월 7일

신체: 172cm, 52kg

최악의 선물: 꽃. 존 사람의 마음이 담겨서 버릴 수도 없고 집에 두면 시든다. 1시간만 기분 좋은 선물이다.

쇼핑물 노동자: 24시간 운영하는 쇼핑물 업무는 끝이 없다. 잠자는 것도 끼워줄 정도. 내 자신이 워커홀릭이라는 사실을 이 나이에 알았다.

주요 서식지를 알려달라. 어디를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

서초동에 있는 집과 사무실. 가끔 동대문을 간다. 집, 사무실, 집, 사무실, 집, 사무실, 동대... 결론은 우리 집에 와야 나를 볼 수 있다.

쇼핑몰을 운영할 정도면 패션에 관심이 상당히 많겠다. 자신의 패션 감각을 마음껏 발휘하는 곳이 있다면?

요즘은 너무 바빠서 차려 입고 뒤에 나갈 일이 없다. 조만간 꼭 빼입고 마트에 장 보러 갈 예정이다.

전문 모델 뽑히는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은?

주구장창 고기만 먹는다. 일명 황제 다이어트. 꽃 등성이라면 환장한다.

꽃등심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알려달라.

줄이려면 구두 뒷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줄 수 있다. 요즘은 너무 바빠서 클럽에 자주 못 가지만 병행한 시운드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 스피커 앞자리에서 신나게 흔들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더라.





이상형은?

박신양.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잘생긴 배우보다 연기 실하는 배우가 좋다. 남자는 일에 몰두할 때 매력 이 폭발한다. 박신양이 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활라산 같다.

박신양이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말인가.

꽃등심 맞잡을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같이 가서 열심히 꽃등심을 굽는 거다. MAXIM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지금은 '꽃등심' 하나면 날 잡을 수 있다.

최악의 밸런타인데이를 보낸 기억이 있나?

데이트하는 연인 사이에 혼자 끼여 있는 것. 실제로 두 커풀과 함께한 적이 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어색해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막았다. 그 자리에서 난 정체성을 상실했다.

스트레스를 푸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

클럽에서 춤추기. 꽃등심 5인분 먹기. 밤새 울기. 30시간 자기 등 다양하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용 중이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휴식. 쇼핑을 오픈 당시 촬영 사진과 요즘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입술이 뜬 게 보인다. 아! 파스도 좀 필요하겠다. 오늘 포즈 워하느라 무리했더니 식신이 쏠린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쇼핑몰이 자리 잡으면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 내가 디자인한 옷으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당신에게 MAXIMI란?

미용실 원장님. 미스코리아가 수상 소감에서 미용실 원장님을 언급하는 것처럼 무척 감사한 존재다.

자, 인터뷰는 이제 잡아차우고

꽃등심 구우러 가자. ㅎ

장례 치르는 법

차,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나? 의 김희연 · ILLUSTRATION 전영준



수장

시체나 관을 통째로 물속에 빠뜨리거나 유골을 물에 뿌리기도 하는데, 티베트에서는 사악한 망령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를 못 낳은 여자를 가죽 포대에 넣어 강물에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

반대로 인도 사람들은 죽은 후에 갠지스 강에 자신의 재가 뿌려지는 것을 생애 최고의 기쁨이자 목표로 여긴다.

수장된 인간: 루무왕, 오시마 빈 라덴

우주장

화장한 유해의 일부를 작은 금속 컵 속에 담아 위성을 발사할 때 함께 위성체도로 쏘아올리는 것이 핵심 기술. 발사 후에는 유족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며 대화를 나누는 추모식을 거행하고 유골을 실은 로켓이 무사히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우주장 증명서'도 발급한다. 그러곤 지구 상공에 40년 정도 머물다 유성처럼 불에 타 없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상조'가 우주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점: 해외에서 발사하니 참수비가 힘들다.

우주장된 인간: 1992년 미국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에 실려 우주로 떠난 (스타트랙)의 재작자 진 로트 베리



화장

중국 소수민족 중 이족은 화장할 때 시체의 손발이 화장대 밖으로 나오면 그 친척 중 누군가 곧 죽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일본인의 대다수는 화장을 택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백단지에 담는데, 이때 두 사람이 한 조각 되어 찢기개로 뼈를 일일이 찢아낸다. 일본에서 찢기개로 음식을 건네주다가 뼈대기 맞고도 남으니 조심할 것.



HELL!

조장

티베트에서는 시체를 토막낸 후 가족 부대에 담아 땅속에 펼쳐놓으면 근처에서 대가하던 독수리가 몰려들어 콧코크코코 꼬아먹는다. 시체를 거의 다 쪼아먹고 남은 뼈를 땀이두던 독수리가 남은 헛기루까지 모두 처리한다. 티베트 독수리들은 오동통하게 살이 울랐잖아...

단점: 오장육부가 사방으로 한다.

주의 사항: 독수리에게 육을 허가나 돌을 던지면 안 된다. 티베트족에게 독수리는 매우 신성한 존재기 때문이다. 아아, 독노님이사여...



인신 공양

인간을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는 의식이 아직도 제국에서는 흑요석 칼로 심장을 뽑아내는 방식을 가장 많은 이가 애용했다.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신채로 태워 죽이거나 죽장으로 찢어 죽이거나 그물망 속에 넣어 잡아당겨 질식사기도 한다. 인신 공양한 시체는 먹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토라지족 장례법

인도네시아의 토라지족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수록 더 좋은 곳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미리로 만들어 집 안에 놔두면서 몇 년이고 장례 비용을 모은다.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시신을 살아있는 환자로 여기기 때문에 아침마다 물을 가져다 놓는다. 장례 비용이 모이면 일주일 정도 장례를 치르는데 문상객 중 남자에게는 담배를, 여자에게는 약간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열매를 권한다. 그리고 아무도 울지 않는다.



오해해서 미안

얼마 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임마를 총기로 찔러죽이고, 시신과 8개월 간 동거한 뒤 태연하게 수능 본 고3 새끼가 있었지? 이 새끼, 토라지가 아니라 토라지족이있구나!



DEATH



엠버링(시체 영구 보존)

시체를 깨끗이 씻은 뒤 방부 약품인 '엠버링 플루이드'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피를 빼내면 약품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방부 처리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사람이 죽은 뒤 푸르딩딩하게 변한 살색을 예전처럼 들리는 건데, 이것이 엠버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단점: 이게 끝이 아니다. 주 2회 정도 방부제를 뿌려야 하고 2년에 한 번씩 발삼향액 수조에 한 달 가량 담가야 한다. 여지도 시신이 썩는다.

방부 처리된 인간: 스탈린, 레닌구 소련, 호퍼(베트남), 넷트(영국), 바넷(기아), 디미트로프(불가리아), 미오찌(중국), 김일성, 김정일(북한)

FITNESS FOR FIGHTERS

니킥 파괴력 높이기

마음은 안 주고 간만 보고 빠지는 나쁜 여자들을 시원하게 뺨 치버라지.
(어, 그릴다고 진짜 차면 최고랑 친다. 경찰 출동해요.)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ROAD FC(www.roadfc.com)



음 좋은 형
더 보기

도움 준
수컷



> 거침없이 니킥

당신도 알겠지만 침실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하체 단련이 필수다. 딱딱 갈라진 탄탄한 근육질의 김석모 선수는 "이 운동을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련되는 것은 물론, 니킥의 스피드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도 당신 같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야? 막 니킥으로 벽 부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지?

1
한쪽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는다.
시선은 정면을 보도록.

2
다른 한쪽 발을 들어 무릎을 차올린다. 까고 심은 면상을 떠올리며

3
차올린 다리를 내리고, 받침대 위 바닥에 내린다. 이게 제일 쉽네.

4
한 다리당 20~30회를 3~5세트 정도 반복한다. 다시!



이거 입으면
아무도 안 건넌다!
ROAD FC 공식 티셔츠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라. 그리고 이번 달에 배운 피트니스로 단련한 도가니로 "내가 가장 까고 싶은 것은 ____ (이)다"의 빈 칸을 채워 댓글을 달아라. 가장 공감가는 댓글을 단 독자께 **2월 5일 ROAD FC 경기 티켓 2장과 아래 티셔츠 1점**을 증정한다. 저거 입으면 아무도 당신을 건들지 못할 거야 어서 응모해

× 금금해요, 김 선수!

Q1. 받침대로는 짹 싸야하니?

A1.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받침대가 흔들리면 떨어지면서 무릎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받침대가 너무 높으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기르르 낫은 단계를 시작하라.



Q2. 난이도를 높여려면?

A2. 받침대 높이를 올리거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면 된다.

김석모 선수가 빠르게 피트니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7년 경력의 트레이너 윤재석(피트니스 로드FC 오디션팀 소속)은 이를 여유있게 구경하며 참견 중이었다. 그에게 왜 하체 운동이 중요하지 않냐. "남자의 멋진 역삼각형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과 하체 운동이 중요하네. 등 운동을 하려면 또 하체 운동이 필수다." 그럼 침실에서 챔피언이 되려면 어떤 운동에 주력해야 할까? 그가 말했다. "스쿼트, 해보면 돼.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조건 스쿼트다!



밤의 챔피언이 더 좋겠네.

응모 기간: 1월 30일까지



누구 알려?
(우리 배고)

이 달의 부스럭기

임아도 그만, 클라도 그만인 이야기들을 쓰고 듣고 맛보고 즐겨!



플타는 히어로 고스트라이더

"아, 왜 이렇게 안 와요?" "뺨뺨 출발했는디요?" 케사방이 세 모 노화를 거스르고 다시 액션 히어로로 부활! 대가리에 불 붙이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저니 블랙지가 악마를 막는 미션을 맡았다. <고스트라이더 3> 속의 화산은 2월 16일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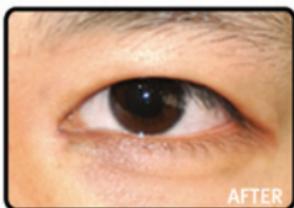


금강산도 식후명? 식후명!

중국의 한 만두집의 파는 만두 속에서 담배 공초가 발견됐다. 가게 주인은 "매일 만드는 건데 공초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변명했다. 음식 섭취와 식후명을 한번에 해결하러는 배려심 많은 주인 마담!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for Man?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성화장품 브랜드에 for Man만 붙여서
남성화장품이라야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for Man 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여성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손에 잡히는 데로 아무거나 대충대충 사용하십니까?

남성은 남성 피부컨디션을 고려한 남성전문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도씨는 오직 남성만을 위해 개발된 남성전문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 영도씨



Homepage / 홈페이지
www.mdock.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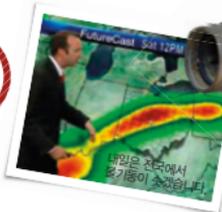
영도씨 쇼핑몰에서 무료샘플 신청하세요.
기초생물(내용선약), 비에크림, 선크림, 오공백,
폼클렌징, 탈장염 성분 모두를 드립니다.

M°C
M d o c

오다가다 발견한 은꼴사.



하지만 조리품을
이길 지는 없었어.



FutureCast Sat 12PM
우린 전국에서
가장 덥게 웃고있습니다.



MEDIC!!!!!!!

입어 전,
눈깔 튀어나왔을 땐
어떻게 하나요?



봤지? 세상은 눈
깔 튀어나올 정도
로 요지경이야.
미국 고달 락스
병원의 닥터 브라
이언 보나나(이름
줄네)가 진짜 눈깔이 빠지는 응급 상
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1. 시공사로 적신 거즈를 이용해
말려낸 눈깔을 잡는다.
2. 손톱으로 만지지 마라. 눈깔에 상처가
나면 당연히 눈 병실으로 가는 길이
빨라져 이명중매
3. 눈꺼풀을 열어 크게 열고 소켓 안에
눈깔을 조심스럽게 집어 넣는다.
4. 당장 응급실을 찾아라! 아, 물론 병
원 건물을 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안구는 각종 신경과 근육, 섬유조직으로
얽글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을 검증하려면 친구한테 이대호 플
스형으로 당신 머리에 '뱀따질'대라고
부탁해라. 알겠지?



이것이 바로 신의 한 방울!



자연... 씹?



웃지마, 너 이 새끼



건강을 위해 뿔구멍은 포기한다.



아무리 구멍에 넣는
제품이지만...



거기로 벨리아
참 나오나요?



이래서 다들 마키마우스를
좋아하는구나.



볼 끄면 오그리디니?



오, 주에, 그것만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언 놈 치곤 제법인데?



고졸 신인 한기주
"다승왕 그날까지"
어린 안 사람래요!

세계일보 | 2005년 5월 12일

(-) 한기주는 라이벌로 기아의 투수 김진우를 주목
하면서 '아마추어'는 내 적수가 없다. 김진우 선배
를 넘어서 다승왕이 되는 날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면서?

투명인간 같은 소피 하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이 순간적으로 빛의 흐름을 조작해 사물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간 일회' 기술을 개발했다. 하네는 연구는 안 하고 (해리 포
터만) 채플데니 결국 해리포터가 이제 우리에게 순수히 원천 기술을 넘기
시작?

아직 동생



착한 일 한 기주, 복받니?

한 매체가 (해를 품은 달의 궁녀 최 나연)행운도 최윤이 세 살 연하인 KA
타이거즈 한기주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KA 측은 "꼭 노력 대상 경배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연인은 아니야", 최윤 측은 "인하지만 안 사귀고 싶어
무뎠다. 하지만 그 좋은 자질을 갖춘 한기주를 어느 여인이 마더러!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만원 할인 + 1000원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만원 할인 + 2000원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5만원 할인 + 4000원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시세이도 우노 화이바 네오웍스 시리즈



마누스 그림컬렉션



클래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소유 스킨 순수 남성 청결제
쓰들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뭍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박-1원)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나. 지옥에 갈 것 같나?
천국 갈 것 같다. 아빠가 목사님인데 백 중 싸주
시겠지

왜냐면 이제 당신 24시간 안에 죽을 거거든.
뭐라고? 나 제대한 지 닷달밖에 안 됐대. 벌써 죽
는다나... 이리저 마라.

〈지역광고〉, 〈DJ편〉, 〈독한 것들〉 등 하는 코너
마다 **잘했는데 돌연 근대에 가버린 이유는 뭔가?**
여지친구랑 헤어졌나?

기왕 가는 길에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고 생각
했다. 어떻게 보면 제대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
는 셈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 갔다 오는 게 덜 아
깝지 않을까? 최효중 보라. 이거 아까워서 어떻
게 가나? 응?

최효중과는 어떻게 친해졌나?
이마후어 때부터 '요철
복통'이라는

팀으로 활동했다. 너무 웃겨서 당신을 복통으로
요철시키겠다는 의미다.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레크레이션과에 친학했을 때다. 당시 김제동 씨가
〈아십만만〉 등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
던 때였다. 나도 그분처럼 마이크를 잡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끼 많은 친구가 왜 이
렇게 많은지 소심해서 기를 못 댔다. 적응을 잘 못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 역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최효중이었다. 기는 센데 사
람들이 싫어하는 타입 있지 않나. 불쌍해서 내가
늘려주기로 했다.

**2년 동안 친구가 대형 스타가 되어가는 모습을 내
무실에서 지켜보는 기분은 어떤가?**
사실 잘돼서 너무 좋았다. 진심으로 축하했었다.
내가 나가면 한자리 도와줄 것 아닌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만 뜨면 된 것 같은데 너
무 뜨는 거다. 〈애장남〉 터졌을 때는 아찔했다. 배
아파서.

유가 나가면 놀아주긴 하던가?

효중이랑 나랑 술을 못해서 만나면 딱히 할 일
이 없다. 당시 효중이가 〈남보완〉 할 때였는데 같이
코너 아이디어 짜면서 놀았다. 아이디어 회의
를 하나씩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회에 대한 갈등도
풀리고 그랬다.

**게그를 주로 직접 쓴다고 들었는데 직접 기획한
코너 자랑 좀 해봐라**

허경완 씨가 아직도 지겹게 일고 있는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냈다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발굴해준 거다. 평소 사람들 관찰하는 것을 좋
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잘 관찰하고 있다가 "형,
이게 될 것 같아" 했던 것들이 다 잘됐다. 참 왕비
호도 내가 짜줬다.

**MAXIM은 군인 독자가 많다. 연애 병사들도
MAXIM을 보나?**

연애 병사는 일반 병사와 달리 지대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못 본다. 하지만 1년 동안 앙구에



24 HOURS TO LIVE

**메뚜기 동생
사마귀 정범균**
그의 당랑권은 이제부터!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곁에 항상 있었던 남사.
죽어도 못 떨어져 by 송승민 ILLUSTRATION 전영호



서 일반 병사로 복무할 때는 정말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둘러 봤다. 2009년에 입대했는데 2007년 것도 봤다. 군인들에게는 성서다. 광망이 피도 절대 안 버린다.

MAXIM 화보로 촬영해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할 여자 연예인이 있다면?

이만정 씨. 나뿐 아니라 전국 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한다.

군에서 MAXIM에 나온 당신을 보고 가장 반가워 할 사람은 누구인가?

왕이 아버지의 양세찬 씨. 예뻐하이의 미쓰라 진. 이완 씨가 제일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완 씨라면 김태희 씨 통생 아나기?! 김태희 씨를 만나봤나?

이완 씨한테는 모두가 잘 해줬다. 다들 아무 말도 없이 잘해줬다. 그런데 이완 씨가 다른 부대에 할 영 나가 있을 때 그쪽 부대로 김태희 씨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원성이 자자했다. 우리 부대는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었을지도.

제대 후 복귀가 빠른 편이다.

제대하자마자 오디션 봐서 바로 그 주에 (개콘)에 복귀했다. 그게 (사마귀 유치원)이다. 진짜 일을 너무 하고 싶었다. 효종이가 질되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빨리 내 존재를 다시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연예 병사들 사이에는 군대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물러드는 위재진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방송으로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당신이 출연한 코너를 보면 주로 사회 풍자나 생활에 밀접한 소재가 많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개그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 단지 웃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엠도 아이들 가수는 있는데 왜 아이들 개그맨은 없느냐는 콘셉트다. 내가 아이들 개그맨으로 나올 예정이다. 푸햏 벌써 웃기지 않나?

당신이 아이돌 개그맨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보니 공개된 사진 중 유독 붉은 바람 넣고 찍은 셀카가 많다. 나르시스트인가?

어렸을 때는 나 정도면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군대에서 잘생긴 배우들과 생활하면서 느꼈다. '아, 난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유재석을 달은 당신 얼굴 때문에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얼굴 덕에 (해피투게더)에 섭외된 것 아닌가?

천허 아니라고는 못할 것 같다. 나 대신 작가님한테 줄 물어봐달라. 대한민국 당대 최고의 개그맨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던 선배님이다.

군대 벌써 유재석 달은꼴 이야기가 지겹다는 의견이 심심하게 보인다.

(해피투게더) 출연한 지 5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삭상하구다... 그래도 성격은 안 달았잖아? 아하...하하...

죽기 직전이나까 얼굴에 펀치를 날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해봐라.

누구를 때리나 내가...

하긴 누굴 때리기보다 행지 돈 많이 훔길 상이다.

돈 많이 훔겨봤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지켰다.

"내가 준 거야. 훔긴 게 아니야"라고.

그런 당신이 살면서 해본 가장 격한 행동은?

하루는 친구들이 축구에 안 끼워줬다. 나를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아이로 통했는데 운동 못 한다고 안 끼워주다니 충격이었다. 옆에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공이 굴러 오길래 들고 학교 밖으로 도망갔다. 모두 나 잡으러 쫓아 오느라 축구를 못했다. 동래했다.

자, 당신은 이제 림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넘기고 있다고. 살면서 해본 가장 나쁜 짓을 고백할 시간을 주겠다.

어릴 적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쳐서 레고를 샀다.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던 레고 데미에 새 레고를 쏟아 부었다. 우리 집에 레고가 많았다. 조금 살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설명서를 보시고 알아채셨다.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런 벌써 찾길들 치른 셀 아나기. 다른 거 없나? 예전에 여자친구 두고 바람 피운 것?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별다른 스캔들이 없었다. 여자친구 안 만나?

군대에서 헤어졌다. 요즘은 솔로다.

개그맨 후배나 동료가 여자로 보인 적은? 없다.

영연이 되어서 물레 이송 사람 한 명을 쫓아낼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나?

최효준. 괴롭아서 킬동무로 데리고 싶다. 친구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지. 우린 팀이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말은?

효종아 내가 너보다는 잘 생긴 것 같아.

역시 나르시스트가 맞구만.





MAXIM LOVE

상담소

악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애와
섹스에 관한 고민은 MAXIM 여자 에디터에게.
BY 김희성 COOPERATION PBR(www.pdang.net)

LOVE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MAXIM 여자 에디터가
이젠 MAXIM 독자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준다.
그동안 LOVE 기사를 읽다가 더 궁금했던 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지난밤 여친의 행동 등 어떤
고민이라도 좋다.

사연 투척 하는 법

1. 실명, 가명, 별명, 어떤 아무거나 상관없다.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연애편지와 섹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라. 어떤 것이든 좋다.
2. 사연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이다. MAXIM LOVE 상담사는 독자님들의 사연을 먹고 살아요. 종종용.
3. 사연이 채택되어 지면에 실리게 되면 물론 선물도 있겠지? 단, '고향의 차가워요', '시도 때도 없이 거기가 서요' 같은 각종 의학 관련 상담은 받지 않는다. 에디터에게는 아쉽게도 의사 자격증이 없다.

Q. 제가 발정기인가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제 첫사랑입니다. 너무나 예쁜 그녀를 보면 당연히 같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출라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늘 알 듯 모를 듯 한 미소만 지었고, 저는 더 몸이 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침치 못하고 출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자친구 반응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딱 번쩍더니 소리를 지르시 땀까지. "너 발정 났어?"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한창 왕성한 각살이한 겁니다. 그렇다고 발정 났나니요. 제가 집중인가요? 이후로 몇 시간째 여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네요.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황당한 이별이 있다고 해도, 첫사랑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발정 났나'라니. 너무 우울하네요. (D 양민)

저런, 마음에 상처가 크시겠어요. 너무 조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해보시 그래셨어요. 아, 물론 '발정'이라는 단어를 쓴 건 분명 여자친구의 잘못입니다. 사람은 절정이 아닙니다. 발정기라고 지칭할 만한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주기는 있다는 겁니다. 단,

흔히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자는 가을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해지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에 관여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지

면 성욕도 높아지죠. 성욕은 높아지는데 옆에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친구가 없으면 당연히 우울하겠죠. 그게 '가을을 탄다'고 표현되는 건 가을과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가장 왕성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 때 발기가 일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만하죠?

Q. 여자의 오르가슴은 어떤 느낌인가요?

여친이 이상합니다. 섹스를 할 때 말입니다. 제가 뺏을 땐 분명히 핑가 느끼는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렸고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래 안 갔다. 핑가를 걸었는데 안 왔다. 한 번밖에 안 왔다. 식입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오르가슴까지 느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요. 저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고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르가슴을 오래 강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인가요? (D 느끼는 거 다 봤거든)

여성과 남성의 오르가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남자는 사랑 시에만 쾌감을 강하게 느끼고 가정이 끝나면 급격하게 성욕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면 30~40분 내에 또 오르가슴이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프를 그려 보면 정말 절정을 찍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그림이 됩니다.

사랑마다 오르가슴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는 대체로 여러 번의 정점을 느낍니다. 한 번 절정을 찍고 난 뒤 다시 완간을 올라가서 또 최고점을 찍고, 또 절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더 길고, 절정감이 해설했다가도 다시 오는 게 여러 번 가능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여자로서는 한두 번의 절정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만족해도 여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오르가슴이 어떤 느낌인지 남자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끝날 때까지 그녀들만의 영역이 될 것 같네요.

이래서 수컷들의 연애 섹스 상담은 여자 에디터가 상주하고 있는 MAXIM LOVE 상담소에 해야 되는 거다

참고로 이 사연들은 수컷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과 그동안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지식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정리한 책 (남자가 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실린 내용이다.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수컷들의 성문제를 모은 거라는데 비노가과 의-남들이 아주 훌륭한 답변을 달아주셨으니, 의학적인 고민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라.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개인과이드 돼요?



콘돔 사용 설명서

'콘돔'이라는 애증덩어리에 대한 여자들의 솔직한 생각.

BY 김희성

STEP 1. 콘돔 구입법

뜻밖거서

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웬지 썩 썩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은 건 혀였고 뭉텅긴 물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N(2)세, 대학생)

EDITOR SAYS 아직 콘돔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거나 콘돔이 많이 낡은 어린 연령대의 여자일수록 콘돔 자체가 싫어서 아예 섹스를 마다하는 경우도 있다. “콘돔 끼고 할게~”라고 해도 끝까지 콘돔을 마다한다면 아미도 이 마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게 생긴 고무줄이러가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거까 당신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콘돔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면 몸이 뻗뻗해서 삽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자, 콘돔이 낡은 그녀를 콘돔과 친해지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라. 먼저, 콘돔을 고를 땐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necessary를 고를 것. 유치하지만 달콤한 과일향도 괜찮다. 콘돔향이 달콤하면 얼마나 달콤하나 고하겠지만 추각과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의 과잉향 콘돔은 항수 이상으로 큰 역활을 한다. 딸기 향, 포도 향, 애플 향이 풍기는 당신의 콘돔에 일단 그녀의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거다. 향이 다 지나다. 요즘에는 신기하고 귀엽고 재미있는 섹스도 많다. 막대사탕처럼 포장되어 있는 콘돔, 우유백 콘셉트로 나온 콘돔 등 아이자기기한 외관의 콘돔을 그녀에게 보여주자. “오빠, 이게 뭐야?” 하며 궁금심을 보일 거다. 여친의 나이가 어리거나 귀엽고 아이자기한 것을 좋

愛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으로 2004년 10월 한달 동안 콘돔 우리말 공모전을 실시했다. 무려 1만 9천 2백 96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응모작들이 밀려들었고 그 중 ‘애必’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애必은 ‘사랑을 나눌 때 필수품’이라는 뜻으로 연맹 측은 ‘필수품, 의미심, 단어 구조상 세련되고 참신하다’는 어마어마한 호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콘돔 대신 애必이라는 이름을 널리 보급하려 했으나 전국의 애必 씨들이 강력히 반대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도·도대체 공모전은 왜했냐냥!

아하는 성격일수록 잘 익히는 방법. 일명 ‘콘돔과 친해질질 배려’ 작전이었다.

철저한 준비성

대하 다닐 때 같은 동아리였던 선배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상황이 어찌어찌 되어 섹스까지 하게 됐고 학교 다닐 때도 호감이 있었던 선배라 그날 나는 오랜만에 로맨틱한 기분을 느꼈다. 알뜰알뜰하게 취한 상태로 내 몸 곳곳을 애무하던 그가 주머니 안에서 주성주성 콘돔을 꺼내니 전까지는 말이다. 뭐야. 청부라 나랑 지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 Y(25세, 회사원)

EDITOR SAYS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섹스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내 일찍 줄 알았다는 듯이 주머니나 지갑에서 준비해 온 콘돔을 꺼내면 급격하게 달아올랐던 설렘과 흥분이 싹 가리었다. 동시에, 남자들은 원래 콘돔을 들고 다니냐? 언제든 섹스할 준비를 하고 다니냐? 야남 애초에 나랑 지려고 일부러 챙겨 나온 건가 등 백만사물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도가 어땠든 ‘콘돔 행기는 남자=항상 섹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로 비춰진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콘돔을 아예 준비하지 않으면 배려가 없는 남자라 낙인 찍힐 수 있으며, 삼삼오오 남겨놓은 사점에서 그녀가 “콘돔 없으면 안래”라는 무서운 말을 던질 수도 있다.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녀와 당신이 섹스의 신호를 주고받았던 자리라 그녀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직행하라. “잠깐만 여기 있어봐”라고 다정다감한 미소를 날린 뒤 편의점에 들어가 콘돔을 재빨리 집어 나오라는 거다. 그녀는 당신이 왜 편의점에 가는지 다 알지만 모르는 척 순진한 표정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외 응모작들

인심이 지킴이 풀풀이 코드, 풀이웃, 고무장갑, 이 안에 X있다. 자지장말, 범접못함...

최소한의 배려

전통적인 소개팅 코스, 밥은 나가+커피는 내가+리태일은 그때 그때 달라오 코스를 마치고 나서 서로가 GO? STOP?을 고민하고 있을 타이밍에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더하고 갈래?”라며 그가 먼저 GO를 외쳤다. 술엔 맛있는 안주가 필수.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둘러 안웃거리를 신나게 골랐다. 양손 가득 안주를 골라 계산대에 내려놓는데 알바생이 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계속 쳐다봤다. 눈화상이 이 번졌거나 기분 탓이었겠나 했는데, 그러려면 알바

생의 미소가 너무 의미심장했다. 어찌됐든 계산은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사랑 그 의 오순오순 콘돔이 들려 있었다... A(27세, 사내방송 아나운서)

EDITOR SAYS

여자는 남자보다 남의 시선을 유독 더 민감하다. 그런 그녀를 데리고 콘돔을 사러 가는 행위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다 된 죽에 고 빠뜨리고 다 집은 토끼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
아.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콘돔만 달랑 사서 나오지 말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 이틀대면 딸기 우유나 츄리칩스 같은 아이템을 사서 그녀의 손에 쥐여줘라. 여자들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남자들의 세심한 배려에 훨씬 반하는 법. 그날 밤 그녀의 폭풍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거다.

15세가 이전 아시아에서
귀두에만 씌우는 콘돔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 콘돔 구입



STEP 2. 콘돔 착용법

셀프 서비스

손으로 입으로 그놈을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놈이 야케도리를 내 얼굴 앞에 들이밀고선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하는 것이었다. 한 쪽 손엔 콘돔을 든 채 말이다. 근데 내가 웬만하면 끼워주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끼우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콘돔을 괜히 잘못 끼웠다가 구멍이라도 나면 어떡해?
K(23세, 대학생)

EDITOR SAYS

스스로 알아서 콘돔을 끼우려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여자 입장에서 ‘콘돔을 끼워 달라’는 남자의 요구는 들어주기가 힘든 부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데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수준의 부탁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자들이 콘돔을 끼워달라는 남자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떻게 끼우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오다가다 주위 듣기로는 콘돔



왜 하나밖에 안남았어?

의 뛰어난 부분을 놀리 공기를 빼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뒤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거칠을 하게 되는 거고 콘돔 끼우는 법을 인다고 하더라도 손을 때문에 콘돔에 구멍이 날까 봐, 뒤집어서 끼울까봐, 콘돔을 끼우다 공유를 아뜨게 할까봐, 제대로 못 끼워서 어버버하다가 그의 아랫도리가 시들해질까봐 등 여러 가지 거칠의 이유가 존재한다. 어찌됐든 우리가 당신의 부박을 마다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콘돔과 친하지 않아서'다. 사실 우리들은 콘돔을 많이 접하긴 했어도 포장을 직접 손으로 뜯어서 만져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박을 받으면 난감해진다. 말야오면 분유기도 한몫 켜이겠지. 자기 콘돔은 자기가.

중국에서는 기름을 바른 비단 종이나 염소 내장으로 콘돔을 만들었으며 일본은 거북이 등껍데기나 동물의 풀로 콘돔을 만들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내장이나 방광으로 만들기도 했다.

타이밍의 문제

그와 만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그 순간만 되면 도무지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정신줄 놓고 애무를 하다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콘돔을 끼우는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지, 그가 콘돔 끼우는 걸 보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아, 어색해... C (27세, 금융업)

EDITOR SAYS 섹스를 할 때 있어 여자들이 가장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때다. 손 뺐으면 달을 거리에 콘돔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대략 남매, 당신이 콘돔을 끼우는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달아올랐던 분위기도 일순간 식어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식어버린 그녀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수고를 해야겠지.

연애 경험에 어느 정도 쌓이면 콘돔 끼우는 품만 봐도



으면 좋겠다. R28세, 빈티지스 운동)

EDITOR SAYS 열 명이면 열 명, 백 명이면 백 명의 섹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마련이다! 딱 명을 만나봤다는 건 아니다. 사정할 때도 제각각인데 공통점은 피스톤 운동이 빨라진다는 것. 차이점은 소리다. 침술같이 울부짖는거나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남자는 자신의 정액이 방출됨을 민천하게 알리는 유형. 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정해 버리는 조용한 남자도 있다. 시끄러운 남자라서 더 흥분되고 조용한 남자라서 덜 흥분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콘돔을 낀 남자가 조용하게 사정을 하면 우리로서는 당신이 사정을 한 건지 중간에 갑자기 아랫도리가 죽어버린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랫도리를 수거해 가면 뭔가 덜 끝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찝찝하다. 콘돔을 끼고 할 땐 당신이 내지르는 소리 외엔 사정 여부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간다"는 신호를 줄 것.

» 콘돔 착용



스위스에서는 12~14세 소년들을 위한 초소형 콘돔을 판매하고 있다.

STEP 3. 콘돔 처리법

유지는 유지통에 콘돔도 유지통에

나는 자취하는 여자이므로 우리집에서 자고 가는 건 상관인데도 제발 사용한 콘돔은 유지에 잘 싸서 쓰레기통에 고이 버려줬으면 좋겠다.

그가 우리집에 오다가는 날이면 집 안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콘돔의 잔해를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 맨날 버려놓는 장소도 달라 거의 보물찾기 수준이다. 하루는 고향에서 올라온 부모님이 자취방 대형 소를 하시다가 창대 밑에 밀려붙어 있는 콘돔 조각리를 발견하는 바람에 화고고 뭐고 고향으로 소환될 뻔한 적도 있었다. 오빠, 혹시 우리집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달라서 그리는 거야?

(K28세, 약세서의 디자이너)

EDITOR SAYS 콘돔 입구를 묶어서 유지에 쓴 다음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게 매너다. 진정한 훈남은 머문 자라도 아름답다!

» 콘돔 처리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는 포르노 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유럽 여성 포르노 배우인 티버타 스티븐스는 "콘돔을 착용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TEP 4. 기타 주의 사항

안전사항

콘돔 끼기를 싫어하는 남자를 만나도 대략 남감이지만 콘돔에 집착하는 남자로 정말 남감이다. 콘돔을 끼는 거랑 안 끼는 거랑 여자 입장에서 그거 그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오빠, 오빠는 정갑 끼고 코피핀 기분이 어떨 것 같애? (L23세, 유학생)

EDITOR SAYS 콘돔 사용에도 밀당! 필요하다. 형 걸, 안전 등 콘돔을 사용하면 좋은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낄 것이 주는 쾌락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법. 콘돔을 안 끼고 하고 싶은 건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가 콘돔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니 생각해라.

낄 것이 주는 쾌락을 다 빼제하고 나면 감정적인 문제가 남는다. 콘돔을 안 끼겠다고 고집하는 남자는 '배려심 없는 남자'란 생각이 들고, 콘돔이 없으면 오늘날 섹스도 없다는 남자에선 '실심한 감정'이 든다. 자,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하는라 콘돔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의 섹스 스킬을 가능할 수 있다. 내용이 좋 되는 남자는 "도대체 콘돔을 언제 썼냐" 싶을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콘돔을 끼우지만 아직 부족한 남자는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고 콘돔 끼우기에만 몰입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듯이 여자는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는 생명체다. 하던 일을 줄 스톱하고 콘돔을 빨리 끼우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의 몸을 계속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 입으로 그녀의 몸을 애무하면서 손으로는 콘돔 포장을 뜯어내고 끼워라. 연습해 연습.

신호의 중요성

콘돔을 끼고도 "이제 간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잠깐 뱉게

줄리엣

달 고교급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공방 트윈 테일의 좀비 헌터.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교복 대신 가방에 넣고 다는 전기도둑 좀비들을 토막 낸다. 유연한 몸매를 활용한 이크로바틱 액션과 치어리딩에 사용하는 볼바나를 들고 사랑스러운 동작으로 적들의 사기를 절단하는 그녀의 모습은 리블리 그 자체 잔인하거니와 분노 같은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 사랑과 정의의 이스트랄 하트 에너지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롤리팝 체인소우

전기도둑을 든 섹시 치어리더의 좀비 대 학살! BY 송승민



>> 정신 나간 주제가 뭐가 2% 부족한 게임성. 하지만 최고로 섹시한 캐릭터들을 선보이는 B급 게임의 제왕 Super해스다. 고이저라고 읽는다는 신작이 등장했다! 제목부터 나사가 풀린 듯한 롤리팝 체인소우! 막대사탕과 전기도둑이구나. 이게 무슨 조합이야?

STORY 평화롭던 산 로메로 고등학교에 급작스럽게 좀비 무리가 습격해 온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평범한 공방의 여고생 치어리더지만 좀비 헌터 집안의 후예인 줄리엣이 다니고 있었다!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줄리엣은 강력하지만 귀엽고 발랄한 치어리딩 파이프를 자랑하는 좀비 헌터로 각성. 좀비들을 상대하게 된다. 대체 이 좀비들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 또 롤리팝의 남자 머리는 뭐야?

네임드 급 약방 공개!



이름: 이블 스완(Evil Swan)

나이: 18

드레스 코드: 고스(Goth)

좋아하는 음식: 페즈(직은 통에 담긴 롤아 먹는 캔디)

취미: 살인, 세계 정복 계획 세우기

특이 사항: 거울 보고 무서운 표정을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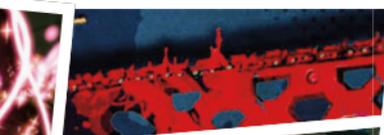
섹시 뮤트
롤리더
에코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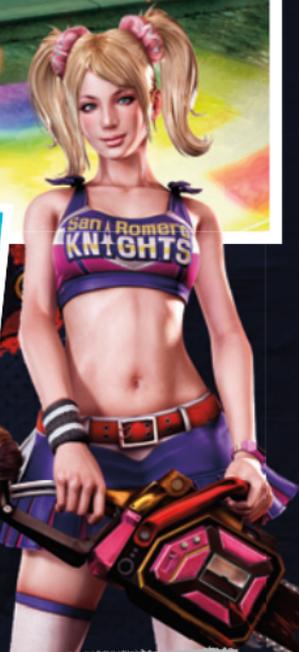
GAME



줄리 줄리 맘
싱글하게 다가와



남친은
역세사리일 뿐



프로듀서 Suda 51 의 작품 세계

킬러 7



2005년 게임 큐브 발매
7가지 인격을 가진 살인형 부업자 8만 스미스와 신의 손을 가진 남자 문라. 이 두 명의 인생이 복잡하게 얽히는 복수극을 그린 다중 인격 액션 어드벤처. 생소한 그래픽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잔류 사قم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 수시로 바뀌는 주인공의 인격, 연이어 이어지는 알 수 없는 대사와 생애기는 수수께끼 사물에 따라오는 스토리 넘치는 누아르일 수도, 허세에 찬 전형적인 일본 게임일 수도 있다.

노 모어 히어로즈



2008년 닌텐도 Wii 발매
광선 검을 사용하는 킬러이자 오토마타 트래비스는 킬러 협회가 인정하는 넘버원 킬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위에 있는 상위 썬커 10명에게 차례로 도전한다. 그 대가는 킬러 협회와 그의 메이진트 살비아 크리스텔(이더서 들은 이틀만대)과의 하룻밤. 스다 고이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상업적·비평적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국내에도 한 글 버젝이 나왔으니 즐겨보도록!

세도우 오브 더 데드



2011년 XB360, PS3 발매
미카미 신자(아이오 하츠)의 시리즈와 스다 고이치의 최신 플러브 프로젝트 연인을 되찾기 위해 저주받은 도시 시티 오브 더 데드를 헤매는 주인공은 전직 악마 존슨의 도움을 받아 미처 날뛰는 어둠의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기괴한 몬스터, 광기 어린 피습, 지옥을 무대로 온갖 정신 착란적 이미지를 맛 볼 수 있는 딱 그들의 게임. 그런데 놀라워 할 것 없어.



세인트로우 더 서드

WORDS BY **성기훈** 그라운드 제로게 게임하는 남문민씨

기존의 유명 오픈월드 게임들의 이류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많은 《세인트로우》 시리즈의 3번째 작품. 한국에서는 이미 《세인트로우》가 자막 한글화돼 정식 발매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다.

《세인트로우 더 서드(이하 세인트로우3)》는 확실히 R사의 G게임 의 인기를 보고 그 트렌드에 묻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시리즈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냥 따라한 게임이 3편이나 나올 수가 있을까? 《세인트로우3》의 독자적인 성공 요인은 오픈월드 게임의 재미인 자유도와 연관이 깊은 '일탈'이라는 요소만큼은 확실하게 제공하기 때문. 확실히 윤리적인 문제가 폭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현실과 게임의 구분을 할 충분한 마인드만 있다면 모든 걸 잊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자유도를 중시하는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캐릭터의 생생함부터 생각하자기 바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성만큼은 기존 오픈월드 게임 중 거의 최고 수준이다(자기가 캐릭터를 만드는 오픈월드 게임은 거의 없었다).

자유도도 충분히 제공하지만 조금 해 보면 게임에는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냥 단조로운 오픈월드만 가져온 게 아니라 갱단, 레슬러, 해커, x드림, 좀비, 미라병과 각종전함 등등 일단 끝말 지 길은 오소는 지나 가지자해서 폭력적인

면이 너무 싫다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취향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 정도. 게다가 오픈월드에서 수집품이나 특정 장소를 찾거나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 위해 즐겨찾기 기능이 수집품 표시 같은 편리한 요소도 많다.

또한 요즘에도 이름 높 날란다는 특급 개발사에서 지원하는 게임과 SNS 의 연동을 공식사이트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놀랍다. 통계, 자작 캐릭터 업로드와 공유, 힌트, 게임 내 스크린샷과 스크린샷 찍은 위치 업로드 등 상당히 재미있고 쓸만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 정식 발매된 오픈월드 게임 중 거의 유일한 한글화 타이틀이란 것도 매력이다. 한글화 수준은 그냥 끝내준다. 원본 대사나 분위기가 막나가는 게임이라 한글화가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물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의 전설적인 한글화를 잊는 막치고 보는 센스만 있고 나올 줄 누가 예상 했을까?)

BUT!

게임성 부분은 많고 스케일도 크지만 전작에 비해서 게임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세인트로우3》의 단점 중 하나다. 그리고 게임의 표현이나 게임의 목적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의 게이머에게는 딱히 추천할만한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다. 원래 좀 폭력적인 감이 없지 않은

Xbox 360 / PS3

● 디지탈버치 / THQ, Volition ● 액션 어드벤처
● 2011년 2월 15일 ● 58,000원 ● 1인 이상 이용가



때때는 가져왔지만 장식은 원조도 울고 갈 만큼 확실하게 마무리 했다.

게임이지만 《세인트로우3》로 넘어와서는 폭력을 '해학'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아주 질 나쁜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점만 빼면 상당히 높게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게임이다. 게임 자체의 재미로 보나, 아드가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 발매해야 될 일종의 모토빌 중 좋은 예로 보나 말이다.



웬 그러다 여성부 든겠다



GoldenEye 007: Reloaded

WORDS BY 은혜할 상황에 특공하는 이우진 언니

PS3

● SCEK / 액티비전 ● FPS ● 2011년 12월 9일
● 48,000원 ● 18세 이상 이용가

〈골드아이 007 리로디드〉는 2010년 Wii로 발매되었던 〈골드아이 007〉의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0프레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다. 원작이 W엔진 진인피니티 워드 엔진 (골 오브 듀티)에 쓰던 바로 그 엔진이다를 썼듯 이 작품 역시 W엔진의 근래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진뿐만 아니라 게임플레이에서도 〈골 오브 듀티〉의 느낌이 강하지만 기본적인 게임플레이와 시스템은 잠입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적이 눈치 못 채도록 허벅지 제거해버리는 구성이나, 임무를 뒤에 응크렸을 때 초준하면 은폐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짝 일어나(?) 임무를 너머로 조준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총은 기본 장비인 F98을 포함해 총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서 '소음권총 + 돌격소총 + 자력소총'이라는 적절한 조합을 유지할 수 있고(다들

어 F98는 버릴 수 없다. 바닥에 놓인 총이 현재 소지 총이라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탄약화되는 부분이 편하다) 이런 부분은 미치 FPS 초기의 이케이드 스타일 게임을 보는 듯 하다. 또한 '떨어지면 분명 다치거나 사망할만한' 장소에서는 절대 뛰어내릴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편리한 부분.

재미있는 것은 다른 난이도에서는 '안 맞고 있으면 회복도' 체력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별개로 '채력 바가 0이 되면 사망하는 007 CLASSIC' 난이도가 존재한다는 것. 뭔가 난이도라기보다는 별개의 모드 같은 느낌으로, 이 모드에 한정된 어려움이 등장한다.

잠입 시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행동 중일 때는 평온한(?) 음악과 함께 진행하는데, 적을 공격하는 순간 충격 외에 다른 효과음이 나서 처음엔 깜짝 놀라게 된다. 하지만 이 효과음은 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을 때와 발각 당했을 때 같이 다른 소리가 나게 돼 있어 익숙해지면 이 소리만으로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또 발각했을 때는 어느 방향에 있는 적에게 발각되었는지 함색으로 표시되어 빨리 처리하면 다른 적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알단은 숨어서 최대한 들리지 않고 하나씩 처리하는 것(간간이만, 적에게 발각



〈골 오브 듀티〉 느낌이 강하지만 게임플레이와 시스템은 잠입 행동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되어 충격전으로 몰입하면 일시적으로 전황개암이 된다. 어떻게 해도 진행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플레이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는 적다.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임으로 영화적인 연출도 다소 포함하고 있어서, 첫 미션 클리어 후 나오는 동영상이 오프닝에 자극이 007답고 007 영화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BUT!

게임 대사의 자막은 전혀 없다. 자막 관련 설정 항목도 없다. 영어권 애들에게 외국어인 경우에만, 예를 들어 러시아어로 누가 씨발할 때만 영문 자막이 나온다. 그렇기에도 영어 같은 초능력을 구사하지 못해 답답한데 영어 대화를 전부 귀로 들으려니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다. 영어 나빠요.





인피니티 블레이드 2

아버지, 액정 필름이 까지도록 문질렀나이다. BY 송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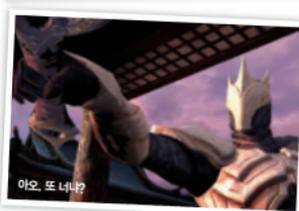
“아버지시여, 원수를 갚아 드리겠나이다” 그 2편이 돌아왔다. 단 5개월의 제작 기간만으로 스미트론 게임의 위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에픽 게임즈의 <인피니티 블레이드(Infinity Blade)>이다. 속편의 광식에 충실하게 좀 더 커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좀 더 재미있어졌다.

두통 두통
응당한 예고



아 대제 복수를 몇 대에 걸쳐서 하든가

대대손손 복수 전문 집안 정남의 불우한 일대를 그렸던 전작(인피니티 블레이드), 결국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해 불멸자를 해치우는데 성공하지만 뭐 별로 변한 건 없다. 주인공은 주변의 인류에도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줄 신비의 장인을 찾아 동방의 사원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거기서 만나게 된 인물은 다름 아닌 전작의 그놈. 이름이 왜 불멸자겠어. 칭하게 안 죽으니까 불멸자겠지. 함정에 빠져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차가운 무덤에서 깨어난 주인공. 아라? 나도 불멸자야?



이오, 또 내냐?

게임의 진행 방식은 전작과 같다. 거대한 맵을 탐험하다가 마주친 적과의 일대일 대결이 기본. 공격 반대 방향으로 칼질(터치 & 스와이프)을 해서 뿔겨낸 다음 생긴 빈틈에 신나게 칼부림해주면 된다. 단순하지만 공격 패턴이 워낙 다양해 질릴 틈이 없다. 더 재미난 것은 맵에 숨겨져 있는 돈자루 찾기. 맵에 공알만 하게 돈자루들이 널려 있는데 이벤트 신이라고 빙삼하고 있다면 전부 놓친다. 지나가기 전에 열려 곡괭이 찌어주어야 부자 될 수 있으니 긴장 놓지 말자.



돈자루 찾았나?

무기의 종류가 한 손 무기, 양손 무기, 이도류로 세분화되었다. 빙백 사용이 적었던 사람이려면 열구리를 내주고 적의 목을 취하는 종검으로 무장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효과를 가진 보석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도 생겼다. 아쉬운 점은 아직 멀티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 하지만 출시 이후 대규모 멀티 모드를 업데이트 했던 전작과 마찬가지로 클레시블이라는 대규모 소셜 멀티 플레이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다. 자난번처럼 무료로 나가 부담없이 기대해 보자!

그래도 공짜가 좋아? 옳다!



Blood & Glory

피와 영광이라는 제목답게 인피니티 블레이드에서 막 전투 부분만 치용해 로마 시대 콜로세움의 전투를 그런 게임이다. (스파르타쿠스) 같은 드라마를 보고 이 게임을 한다면 전투에 이길 때마다 “글로리!”를 외칠 수 있다. 그 대신 콜로세움이라는 배경 덕에 맵 탐험의 요소가 사라져서 조금 단순하게 느껴진다. 근대 무로잡아? 뭘만 있는 사막?

내 게임이 느려요



분명 이 스크린샷을 보며 “어? 내가 보던 것과 다른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심중할 구 3GS 유저 (인피니티 블레이드)의 이빨대는 그래픽은 구 기종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 오직 4S나 아이폰2가 더 빠른 로딩과 더 선명한 텍스처, 진보된 광원 효과를 즐길 수 있다. 심지어 아이폰4에서도 가끔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 효율면 언급 하던 하지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뭐 쉽나? 그런 유저들을 위해 조금의 프레임 상승 팁을 공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경음악을 OFF 시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게임을 실행한 후 후 버튼을 눌러 메인화면으로 돌아온 후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재생한다. 그 후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 효과음은 그대로 남고 배경음악만 꺼져서 게임 실행이 부드러워진다. 간단!

강남공연 앵콜요청에 힘입어 **코엑스 상륙 확정!**
경고, 웃다가 기절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극

라이어

평일**40%** 주말**30%**할인

(2월 공연예매자까지 한함)



라이어 티켓
특별하기



2012년 1월 6일 ~ OPEN RUN 코엑스아트홀

화,목 8시 • 수,금 5시,8시 • 토,일,공휴일 4시, 7시 (월,삼 / 1월 22일 4시 / 23일 4시,7시 / 24일 4시 공연)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 1588-5212

주최 | 파파프로덕션 • 나인스토리 제작투자 | 대명컬처테이먼트

RAT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디스 민즈 워

한 여자를 두고 벌이는 남성들의 싸움.
이게 바로 진짜 전쟁이지! BY 송종민

예고된
보자!



세계 최고의 스파이 FDR과 터커는 절친한 친구 사이다. 서로를 위해 대신 총도 맞아 줄 수 있을 정도. 세상 그 무엇보다 둘의 우정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들이 한 여인과 동시에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워장 근 무 중 매력적인 정부 요원 로렌(리즈 위다스문)에게 반한 두 사람의 우정은 거짓 말처럼 순식간에 깨져버린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녀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기로 한다. 둘 중 더 잘난 놈을 선택하게 하는 것. 하지만 내 여자가 딴 놈이랑 놀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최첨단 기술

을 총동원해 데이트를 감시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벌였던 소소한 책략이 결국 전쟁에 가까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역시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더니. 우리 세상이 이런데 남비 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배 아파 질 때쯤 두 남자의 매력적인 프로모즈가 이어진다. 이 전쟁을 끝내 줄 것은 그녀의 올바른 선택뿐 결과 둘 일 수 없는 사랑 앞에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선택하고 나면 더 문제 아니냐?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후은들렸던 우정으을~"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

Who's Who?



로렌 (리즈 워더스푼)

소비자 보고서 분석 전문가로 로렌은 일에서만큼은 확실하지만 연애는 평이다. 전 남친에게서 받은 큰 상처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귀기는커녕 외출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남자를 사귀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그게 두 남자나 될 줄이야. 누님 양다리 걸친다고 소고방 안차요. 경찰 출동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농담한테 걸리면 죽도록 고생할 수 있습니다당!



임 배양?

FDR (크리스 파인)

스파이라는 직업은 그의 천직이다. 손 코너리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 같은 그의 인상은 로렌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뀐다. 총, 여자, 끝내주는 자동차, 구속하지 않는 가벼운 연애 등 지금까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뒤틀린 채 밀려난다. 그녀의 사랑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해진다.



터커 (토미 히디)

FDR과는 상반되는 스타일로 거칠고 진한 남성미가 외국의 순수함을 간직한 남자다. 사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악역 '배인'에 캐스팅된 토미 히디의 전기를 미리 예측해 본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가는 영화다. 하지만 언니들은 둘 중에 누가 더 맛있는지에만 관심이 가겠지!



두 남자의 수트 간지. 이런 여성들을 위한 영화였나?

액션 초신성 크리스 파인

Q <디스 민즈 워>는 두 친구가 등장하는 액션 코미디다. 이 장르를 좋아하는가?

A 《8시2간》, 《48시간 2》, 《리셀 웨폰》 시리즈의 팬이다. 에디 머피와 멜 깁슨의 스타일이 합쳐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Q 그런 이유로 이 영화에 끌렸나?

A 엄청나게 친지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스파이들이 사랑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진다든 사나리모가 너무 재미있어서 출연을 결심했다. 코미디 요소가 많이 들 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다.

Q 현실에서도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스타일인가?

A 실제로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이지만 액션 영화를 찍을 땐 내안이 숨은, 예를 들어 《황야의 7인》에 나오는 찰스 브론슨이 튀어 나온다.

Q 남자라면 주먹을 써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A 물론이다. 그럴 땐 운동 신경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는 분위기로 제압해야 한다.

Q 영화에서 서로 사이비 스토킹으로 목표물을 감시한다. 이런 영화에 익숙한가?

A 요즘은 인터넷에서 누군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게 과연 잘 된 일일까? 모르겠다. 어쨌든 난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사리 서비스를 정말 광망하다. 휴대폰에 대고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잖나. 그저 놀랍다.

Q 이게 웬 동문서답인가? 실제로 한 여자를 두고 친구와 싸워본 적이 있나?

A 다행히 없다.

Q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 영화에서처럼 무술에 뛰어나지 못하니 소극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괴롭힐 거다.

한 찻줄 영화: 미스터&미세스 스미스



너 때문에 레이벌도 버렸어

누구나 《디스 민즈 워》의 시놉시스를 듣자마자 이 영화를 떠올렸을 거다. 아닌 게 아니라 《미스터&미세스 스미스》의 각본가 사이먼 키버그가 참여했다.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부부라 출연해 스미스라는 서로의 신분을 숨긴 채 위험천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스미스 둘은 직업과 그 직업을 이용해 서로를 감시한다는 설정이 특격다. 다른 게 있다면 이 부부는 정말로 부부가 되었지만 크리스 파인과 토미 히디는 뭐가 되어 있는지 애매하다는 것.



보스 vs 보스

누가 최고의 보스인가? by 송승민



다스 베이더

VS

하정우

멀고 먼 은하계	활동 구역	부산
검정 망토, 생명 유지 장치인 헬멧	스타일	금 목걸이, 전신 문신
포스의 균형을 가재울 자, 체다이 암살자	주요 경력, 칭호	주역 넘버원
스톱 트루퍼 군대	조직원	간달 조직원
목을 조른다.	부하를 다루는 방법	몸 방에 데려간다.
동신사 외 다수	CF 경력	맥주, 햄... 주로 먹을 거.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	출연 작품	황해, 비스티 보이즈, 리브 픽션
없음, 독고다이.	조력자	최익환(최친신)
습하~ 습하~	명대사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듯이,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도 라이온진 때문에 생이별, 오비완과의 대결에서 다리와 팔을 한 짝씩 잃었다. 시발남.	트라우마	가까이 두었던 자들에게 배신 당해 다섯 번이나 뺨에 갔다 왔다. 아오 내가 두 번 다시 누구 만나 보라.

스타워즈 3D

신화가 되어버린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조지 루카스는 재빠르게 3D 컨버전을 발표했다. 이미 오리지널 3부작도 그래픽을 보강해 재 개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팬들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하지만 시리즈가 끝난 지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첫 번째 타자는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더 적당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매년 차례대로 3D 버전이 개봉하게 된다. 재개봉의 악명 높은 전통인 추가 장면이나 그래픽 수정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 역시 고집 있는 아저씨야. (2월 9일 개봉)

3D 컨버전 전성시대



라이언 킹 3D (개봉 중)

범죄와의 전쟁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최민식과 떠오르는 차세대 하정우의 충돌로 기대를 모은 영화판 (나기수). 그러나 충돌이 아닌 협력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며 남들 생 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하지만 두 배우의 강렬한 사나지를 보는 것도 좋겠지. 의외인 것은 최민식에게 코믹한 역할을, 하정우에게 과묵한 보스 역할을 맡았다는 것. 들쭉날쭉 두 배우 외에도 《뿌리 깊은 나무》의 조선 제일 검 무승 조진웅이 호시탐탐 보스 자리를 노리는 넘버 투로, 외모부터 80년대인 김성균이 부캐 보스와 친해진 최민식을 불편해하는 보스의 오른팔로 나오는 등 신뢰감 높은 조연들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어 2월 최고 기대작으로 꼽는 데 전혀 손색없다. (2월 2일 개봉)

대세남 하정우의 피질함이 보고 싶나?



리브 픽션 (2월 29일 개봉)

이게 바로 사랑 앞에 풀리지 못한 남자 피질의 모습.



동물, 친구인가 적인가?

예고된 모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그냥 동물 도감에서 볼 때가 좋았지? 1월 19일 개봉

적



더 그레이

눈 내리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늑대까지 탐비지 않습니다. 2월 16일 개봉

적



우리는 동물원을 사다

년 밥을 오브 마이 라이프. 1월 19일 개봉

친구



워 호스

미국판 백구. 세진 컴퓨터 진짜 잘 팔았는데. 크오. 2월 9일 개봉

친구

가장 믿을 수 없는 동물, 인간!

세이프 하우스

가장 뛰어난 CIA 요원이었지만, 10년 전 조직을 떠난 뒤 군사 기밀과 무기를 밀매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던 토빈 프로스트(덴젤 워싱턴)가 돌연 자수한다. 세이프 하우스로 이송된 프로스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신참 요원 맷 웨스턴(라이언 레이놀즈)은 이를 출세의 기회로 여기고 신나 하지만 웬 놈들이 쳐들어와 세이프 하우스를 초토화시킨다. 출로 살아남은 웨스턴은 프로스트와 함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떨어진다. 다들 도와줘도 힘들 판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일곱 번의 자판에 없으니 환장하겠네



신참 CIA 요원
맷 웨스턴 / 라이언 레이놀즈
아나 신참인데 37어오.

VS.



내가 왜 비뚤어졌는지 궁금하지?

베터라 CIA 요원에서 무기 밀매상이지!
토빈 프로스트 / 덴젤 워싱턴
지겹잖아! 이번에도 콘트의 비뚤랑 똑같아.

MAXIM 독자 특별 시사회



EVENT

MAXIM 홈페이지를 주목하라! 25명의 독자들에게 세이프 하우스의 비밀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event@maximkorea.net으로 이름과 전화 번호를 적어 보내라! 매일 제목 맨 앞에 [세이프 하우스 응모] 라고 꼭 적고! (1인 2매, 시사회 날짜 추후 공지)



조금만 손보면 2012년 대박 칠 케이블 TV 프로그램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형 말 들어봐. BY 박한빛·누리



tvN <SNL 코리아>
토요일 밤 10시 30분

7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시즌 35를 이어가는 초장수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 US>가 한국에 상륙했다. 한 명의 유명인이 호스트가 되어 세트를 옮겨다녀며 생방송으로 콩트를 진행한다. 미국에서는 꽤 먹히는 방송 시스템이지만 생방송이라 다소 어색하고, 개그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콩트를 연기하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든다. <SNL US>에서 자탄된 팀베레이크가 와전된 것처럼 "니 엄마 너 무 색사해, 난 니 엄마 애인, 니 새 이빠" 정도의 섹스랩이 필요하대

- **불 수박에 없자:** 미국에서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사왔는데
- **망한다:** 아직 아메리칸 스타일은 우리에게 낯설다



tvN <코미디 빅리그 시즌2>
토요일 밤 9시

사실상 <개그콘서트> 빼고 거의 모든 개그프로그램이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개그콘서트>, <웃찾사>, <개그>를 떠난 채서들을 한 곳도 모아 상금을 걸어놓고 싸움을 붙였는데 पनि 점점 커지고 있다. <가족이나 갈 데 없는 애들한테 너무 친한 거 아냐>, 시즌에서 웅덩이가 우승한 뒤 다른 팀들도 부라부라 재능비를 거쳐 새로운 코너를 짚지만 시즌에 비해 약한 캐리커 설정과 억지 유행어로 어디서 웃어야 할지 망할 때가 잦다. 웅덩이, 내네고 그냥 '가까인 서커스' 다시 하면 안 될까?

- **불 수박에 없자:** 변서음이 나오니까
- **망한다:** 따자님의 부친님이 변서음이 빠져서



m.net <더 어질한 소개팅>
일요일 밤 11시

더 어질해졌다고 해서 모처럼 정면용 기대하자는 말자. 돈가방의 금액이 두 배 더 높아진 것뿐 아니라, 최효종이 MC로 남자들만 독살이 될 대가실에 의젓한 이연혜를 보조 MC로 끼워 넣은 것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소개팅에 목마른 남자가 대리만족을 느끼기에 이만한 자극도 없다. 각자의 속마음이 여과 없이 반영돼서 보는 맛이 쏠쏠하지만 <책차림 진짜 질서> 예쁘게 시키는 커플의 모습도 보여준다 면 참 현실성 있는 대안.

- **불 수박에 없자:** 날이 끼이는 건 언제봐도 신나
- **망한다:** 예쁜 여자 씨가 말라서



XTM <주먹이 운다 시즌2 싸움의 고수>
월요일 밤 12시 15분

슈퍼스타K 격투기 버전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답게 전국에 숨은 고수부터 학교 방 등 전국 팔도에서 주먹 쥔 날란다는 싸움꾼들의 우열을 가리는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과 싸워 3분을 버티면 1차 관문을 통과한다. 이렇게 모인 각 도의 랭이 코리안 좀비 정착선, 로드 FC 대표 정문홍 등의 프로에게 특출하고 개지 안인에서 또 싸운다. 싸움에 항정하는 격투덕후라면 침 흘리면서 볼 만하지만, 일반 대중을 사로잡기엔 파타넨내가 다소 강하다. 가슴이 타질듯 한 앰뎀드걸과 목소리 건드러지는 여해설자, 미묘의 리모콘 투입으로 율기름 좀 더 채워 넣는 건 어때?

- **불 수박에 없자:** 싸움은 길거리 싸움이 최고
- **망한다:** 누구 한 명이 튀지기 직전까지 간다면

중편의 무리수

남들 제법 자체 중 무척해요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중편 개국 첫발을 좌근하게 장식한 1등 공신, 조진TV의 <최 박의 시사 토크 판>에 출연한 박근해 의원의 등장도 ভাল 진행자가 코가 탁자에 달을 듯 집을 올렸다. 뒤이어 타진 '형광등 100개를 켜 놓는 듯한 아우라' 드림 스튜디오에 예수 같말하 신을 알렸네.



김그림 노출 유모아vi

지난달 6일 방송된 MEN (송무로 외곽과 금)에서 노래를 부르면 김그림의 속옷이 노출되었다. 이에 제작진은 편집보다는 모자이크 처리로 상상을 사정자의 무리로 돌렸다. 거기에 특정 브랜드 상표라도 크게 붙여 있었나?



강효종 아쿠자 연루설

채널5는 결국 당일부터 강효종이 23년 전인 1988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아쿠자의 의정제 결연식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거둬야 그로이 상태에 있는 강효종은 당시 교통 위문 천하가 사 대의 때문에 감독과 코치의 인도로 따라간 자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강효종-아쿠자론 굳어진 상태. 행방이 칩박에 나오기 참 어렵제?

창작뮤지컬

Miracle

미라클



“커다란 우주속에서,
영원의 시간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것...”

OPEN RUN 작/연출 김태린 | 제작 (주)PAMA프로덕션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관 평일 8시 | 토,일,공휴일 4시,7시 (월 심)
일반 30,000원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
문의 02.742.7261/2 |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 모든 상영은 무료입니다. 조희수에 따라 행한 수익금이 영화제작자에게 지급됩니다.

세계 최초!! 세상에서 가장 얇은 영화제, QR코드 영화제 시즌2
종이 한장으로 전 세계와 함께 즐기는 한국 단편영화 왕중왕전!

제 2 회

QR코드 영화제



왕중왕전!

2011 Korean short films

2.1 ~ 2.29

찍고 찍고 보면 온 세상 단편 영화 모두 보고 오겠네.

MAXIM과 QR코드 영화제가 만났다! MAXIM 독자라면 누구나 QR코드에 익숙할 것이다!
잠시 화끈한 MAXIM 언니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QR코드 영화제에 접속해 보자.
생생한 젊음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
MAXIM은 이처럼 형식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젊음을 언제나 응원한다!

관람방법



QR코드 앱 실행
(ex: 다음 앱)



영화 고르기



QR코드 스캐닝



영화감상

QR코드영화제?

세상에서 가장 얇은 영화제

QR코드영화제는 잡지, 전단지, 포스터 등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하여 곧바로 단편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제입니다.
카피숍에서 연인과 함께, 지하철 출구길에서,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QR코드영화제를 만나보세요, 그곳이 바로 영화관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화제

QR코드영화제는 2011년 7월, 한국의 젊은 단편감독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포스터는 인터넷과 SNS를 타고 서울은 물론 뉴욕, 도쿄, 암스테르담, 맨큐버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QR코드영화제를 즐기며 이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관객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두근두근 포스터 피일을 다운받아서 청신, 단골커피숍, 회사 복도, 학교 게시판, 동네 담배라에 붙이면 나만의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한 곳에 있는 친구에게도 보낸다면 훌륭한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011 단편영화 왕중왕전!

제1회 QR코드영화제에서는, 2011년에 치러진 국내 최고의 영화제들에서 상영료 작품 중 관객 반응이 뜨거운 작품을 12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직접 찾지 못해 아쉬웠던 영화제가 있거나 관심있던 작품이 있다면, QR코드영화제와 함께 즐겨보세요.

하러 올때 QR코드를 통하여
본문 상영작품 장면에 관람하실 수 있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축하인사&이벤트

부산국제영화제 (아이브영문)



낙타들 10:30
43분 / 4세-10세
여자는 몇 번의 이별을 겪으면서 봄도 마음도 데워라 사랑을 견디고 있는 기쁜이이다.



제4차 아시아 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



에워드, 슬로 18:47
94분 / 12세
스크린의 에워드 선을 속에 살피서 찾어드는 13년 전 첫사랑과의 두근거림.



연도포도 (개막작)



만들고싶다 10:14
90분 / 12세
만들고싶다.
만들고싶다.
만들고싶다... 영화.



연도포도 (개막작)



남자는 움직이지않았다 08:56
90분 / 4세-10세
이 이야기 처음 들 거야. 그게 아이의 눈빛이 분명하다.



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영화



술술 19:53
15분 / 3세
술술을 타고 술술 이리저리는 쪽으로!!! 땀땀을 흘리며~



서울국제영화제 (국제단편영화선)



CITY 06:28
59분, 11세 / 4세-10세
사람 사이의 벽과 돌을 뚫어 걸음을 뚫은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한국어단편영화선)



AH! 05:14
15분 / 4세-10세
제가 사라지고 나면 다른 것으로 보일게 된다.



서울국제영화제 (한국어스)



묘야 08:11
5분 / 4세-10세
사랑하는 나의 고양이 묘야는 밤이 밝아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국제영화제 아이브스틸링 (신단편작)



개 08:30
10분 / 12세
2년지기 주인 흔하는 어린 남자와 함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따가 또 떠난다.



10호 에니메이션 페스티벌 (페스티벌 2051)



초에니 BEST 43
다섯 편이 21편
1 여백을 뜨겁게 달군 초 에니메이션 스토리를 20선!!!



서울국제영화제 (개막)



시나브로 03:56
144분 / 12세
어느 환상한 날, 첫눈에 반한 소녀를 몰래 사냥하던 소년은...



제17회 단편영화제 (비영성시)



그로스터디 17:20
144분 / 12세
연장 그로스터디를 함께 보기로 했던 여학생과 아들에게 걸리스리움 이별통보를 받는다.



상영작들

축하영상



특별하고 멋진 축하영상! 무궁무진한 축하영상! 축하영상! 축하영상! 축하영상! 축하영상!



축하공연



유니콘 공연대의 멋진 공연! 스타벅스 X XYZ note! 공연 가실거라 연주합니다.



감동담



감동담에 감동해서 남기고 포스터를 신청하세요. 함께 감동을 나누고 이벤트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작품등록은 각 영화제와 무관하게 QR코드영화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FX
남자의 모든 것



ROYAL RUMBLE

FX 채널
맞잡고
과월호 받기



WWE Monthly Special

2012 로얄 럼블

2월 18일(토) 밤 10시 국내최초방송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손가락은 먹지 마
마감 채야 돼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작업 시나리오

잘 뽑은 BGM 하나, 열 초콜릿 안 부럽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당신의 육신을 침침 불타게 할, 그리고 진도 딱딱 나기게 해줄 묘한 음악을 선택했다. dotz리는 갈아졌으니 나머지는 당신 하기에 맡겼다. (만약 이 음악으로 작업에 성공했다면 홍대 쪽을 향해 33번 걸하라)

BY 정바비

눈과 귀로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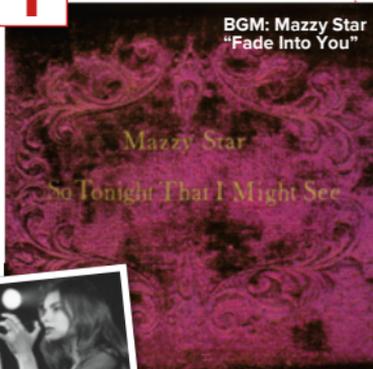


▶ 벨런타인데이가 돌아왔다. 평소 이런 종류의 기념일 챙기는 걸 싫어하는 당신이라도 그녀가 오묘질질 앙증맞게 준비한 초콜릿까지 마다하진 않겠지.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초콜릿을 조공할 대상이 없는 여자를 타지 삼아 작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무슨 무슨 데이에 연애를 시작하면 기념일 외우기도 편하고 두 번 줄 선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우여곡절 끝에 벨런타인데이 데이트를 이끌어낸 당신을 위해 상황별 데이트 배경음악을 추천한다.

STEP 1

로맨스의 초석을 깔아라

BGM: Mazzy Star
"Fade Into You"



자 당신은 드디어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열쇠 키워드는 '로맨틱'이고 '무드'다. 아니면 뭐 '스틸'이라고 해도 좋겠다. 물론 하루 한 날 격투기 라운드 걸 사신이나 보며 허약하던 당신이 갑자기 로맨틱 게이 모드로 돌변하진나 무척 아쉽할 거다. 하지만 이 점을 확실하 해두자. 제아무리 섹스가 좋을지언정 믿도 끝도 없이 아무런테나 다리를 발발 여자는 없다. 여자들이 흔히 "사랑 없는 섹스는 싫다"라고 말하는 건 오로지 영화처럼 운명적으로 만난 상대와 섹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교접이라는 인축한 행위를 실행해 즐기까지의 맥락, 필연이 그녀에게 전정말이지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 드라마를 제공하는 건 물론 남자의 몫이고 말이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일본의 유명 어덜트 비디오 시리즈처럼 아무 맥락 없이 만난 지 30초 만에 합체하고 싶겠지. 하지만 참아라. 그리고 가능한 당신 마음속(그리고 비지 속) 독사를 송겨라. 그 대신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이지, 혼자 있을 때 그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지금처럼 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표현하기 바란다. 그러면 이 노래와 함께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은은하게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MAXIM의 사족: 매지 스타는 여자 보컬과 남자 기타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71년 오 브 워크, (비인) 등 각종 드라마와 게임 OST에서 종종 이들의 사이시계리한 노래 들을 수 있다. 페이트 인드 유는 1999년 발표된 음반 《So Tonight That I Might See》의 수록 곡이자 이들의 대표 곡. '나 인으로 스며들고 있어, 그동안 너를 몰랐더니 정말 이상해'라는 가사가 예쁜 멜로디에 얽매 말 그대로 천천히 스며드는 느낌이다. 참고로 이전 앨범, 아싸짜가 된 그들이 올해 6년 만에 새 음반을 낸다는 소문이 있다!



STEP 2

'그것'을 입에 올려라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를 주제로 대화하는 남 녀는 그렇지 않은 남녀보다 침대까지 갈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골기 좋은 휴양지에 유달리 불치병 환자가 많이 사는 것 같은 동네 페러독스일 수도 있다. 그래도 그녀와 어덜트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떤 은밀한 경계를 넘은 느낌을 주려면 충분하다. 적어도 오락실에서 돌이 흥 쓰는 게임 따위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사람스러운 그녀 앞에서 서로 시작해서 X로 끝나는 그 격렬한 차찰음을 시전하기가 쉽진 않겠지. 그럴 땐 가사에 '섹스가 나오는 음악을 골라 함께 듣는 것이 꽤 괜찮은 대안이 될 것이다. 잔잔한 나일론 기타 한 대를 벗 삼아 "행복한 시간 / 아무것도 없는 거리 / 그 거리를 돌이 걷고 있네"라고 시작하는 이 곡은 후렴에 이르러 'I wanna sex with you in bed'란 가사를 반복한다. 어쨌든 보컬과 어우러져 묘하게 서글뜨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는 이 노래를 들으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려준다면 당신은 벨런타인데이 굿 섹스를 향한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BGM: 아마추어 증폭기
"룸비니"



<Soo Sung Land>
by
amature amplifier

MAXIM의 사족: 한밤사랑에 붙은 이름과 황보라대거리에 붙인 이름, 즉 보컬과 기타 1대 1로 구성된 밴드(가)로 평이한 기타 연주 위에 흐르는 직설적이고 인상적인 가사. 단조로운 목소리가 특징. 인터넷에서 이 밴드를 검색하면 과장된 섹스 화장과 기발 그리고 각성이 부각되고 노래하는 동성성을 찾아볼 수 있다. 룸비니는 2009년 출레코딩 방식으로 자체 제작한 (수성)은) 수록 곡. 아. 현지 눈물 난다. 관심 있는 분은 그의 홈페이지 stufat.com을 방문하십시오!



STEP 3

음양한 흑형의 서포트를 받자

BGM: Prince
"Lolita"



주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쯤이면 그녀도 당신도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것이다. 술을 거머쥐고 조금 거칠어져도 좋을 시점이다. 여기서는 흑형들의 도움을 빌리려고 하지. 육감적으로 여자를 '섹시한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지금까지나 흑인음악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자칫해 페로몬 넘치는 걸쭉한 목소리의 알앤비를 틀어놓으면 보잘것없는 곡들의 남자족, 당신과 나의 목소리와 심하게 비교될 거다. 여기서는 프린스 정도도 정중해준다. '롤리타'의 매력은 핑키 특유의 음양한 찬란기를 자비에 깔고 있으면서도 섹시하고 밝은 음색을 띠는 악기가 전면에 나서서 도발적이면서도 긴장한 섹시함을 연 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반부에 프린스와 여성 코러스가 주고받는 대화가 아름답다. "이봐, 나는 얼마나 나쁜 여자지?" "참이 나쁘지" "그럼 이제 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은 배구기를 대량으로 살포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처음 술을 마셔본 게 언젠간이라고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미친 짓이 뭐였는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혹시 아냐? 기분이 한껏 와일드해진 그녀로부터 잠시 후 상상을 뒤흔던 서비스를 받게 될지 이제 다 왔다.

MAXIM'S 사비: 키는 160cm도 안 되지만 몸에 난 모든 구렁덩덩으로 섹시함을 뽐내는 천재 뮤지션 프린스. 화려하고 음양한 퍼포먼스, 신나는 멜로디와 소울 음악으로 장년에 미친 팬층과 리얼 팬 구도를 형성한 그는 '퍼플 레인보우' 장편인 에게도 익숙하다. 1968년생인 그는 여전히 세시하고 신나는 음악을 즐기게 발표하고 있다. '롤리타'는 2006년에 발표한 음반 《러브》 수록 곡. 아직 고우신 프린스 멤버.



MAXIM'S 사비: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은 요즘 젊은이들은 영국 인디 팝 밴드. 백관장은 외모의 매력이라 여자 보컬이 서우원인 멤버 플로렌스 왓츠는 1986년생이라 믿기지 않는 성숙하고 풍부한 연인 목소리의 소유자다. 목구멍에 풍이라도 맞은 걸까? '왓 더 워터 게 이브 미'는 2009년 발표된 《Ceremonials》의 수록 곡. 참고로 같은 음반에 수록된 'Heavy in Your Arms'는 (최윤희)와 이블린의 사운드트랙으로 쓰였는데, 잘못 비인인 플로렌스가 기이한 자세로 팔이 켜져 찢질 끌러다 나는 흑형 화면 유적비디오는 공포 영화 《링》을 연상시킨다. 열렬하게 생겨서...



가장 중요한 실전이다. 지금까지 흐름을 잘 탔다면 큰 무리 없이 만족스러운 인더 코스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지. 2011년에 발매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극찬을 이끌어 낸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2집 음반 《Ceremonials》은 음반 천재가 운우정(雲雨之情)의 배경음악으로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What The Water Gave Me'는 그걸 모오르 가슴 그 자체를 음악으로 구현해놓은 것 같은 곡이다. 터질 듯 터질 듯 폭풍 놀러 담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거대한 몸이 무너지듯이 쏟아지는 압도적 인 보컬 퍼포먼스는 당신의 2% 부족한 섹스 스킵을 잘 보완해줄 것이다. 아, 그렇다고 앨범의 3번째 트랙인 이 노래의 타이밍에 맞추느라 일부러 빨리 일을 끝내지는 말기를. 받은 김집아.

STEP 4

본게임 들어가는 거다

BGM: Florence+The Machine
"What The Water Gave Me"



이오 추임

마무리는 따뜻하게!

STEP 5

BGM: 림지훈
(Organ Orgasm)

Organ
Orgasm



거는 끝났지만 아직 당신의 역할은 남았다. 상대를 섹스에서 일정으로 연착륙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녀가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급선무. 지금쯤 그녀는 절친 허탈살이나 납작한 가슴을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사실에 후회와 자책감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몸에 대해 가능한 디테일하게 칭찬해주자. 그리고 좀 잔치럽더라도 특별한 날을 당신과 함께 보내준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바란다. 최근 성인용 경음악을 표방한 림지훈의 《Organ Orgasm》은 이런 애정 듣는 무드에도 잘 어울린다. 몽글몽글 따뜻한 해면도 오르간 소리를 배경으로 보여준 당신의 사려 깊은 모습은 그녀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음, 적어도 화이트데이까지는 남아 있지 않을까? ☺

MAXIM'S 사비: 한겨울 고구마 굽느라 바쁠 것 같은 고구마레코드를 대표이자 핑키핑크레코즈 소속의 림지훈은 2009년 아소트 유닛으로 두 곡을 고구마유머 따끈따끈한 그의 음반 《오르간, 오르가슴》을 냈는데 MAXIM에도 등장한 바 있는 앨범 AV 배우 '로즈 마카가 뜨겁게 장식했다'에 사일 하나만으로 그의 고구마원 고 훌륭한 취향이 잘 드러나 대, 녹취하고 칼라한 그 오르간 사운드를 듣다 보면, 도회적이고 성숙한 여인과 같이 모로모로 나는 배해장곡의 모습이 동시에 떠오른다.



민세 한겨울?



“마닐라에 가자”

는 제인을 받은 것은 영하 10°C의 추운 날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무조건 갑니다.” 구석에 내팽개친 반팔옷을 아무렇게나 트렁크에 우겨넣었다. “본사에 보낼 리포트는 끝내주세요?” “편직장님, 저 페이지 구성 좀 봐주세요.” “공채 공고만 내고 뒷수습은 안 하나?” “결제 아직 안 하신 거 있는데…” “제인서 검토는 끝내셨나? 연락 계속 오던데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남쪽으로 튀린다.

BY 여행에 편집장

COOPERATION Resorts World Manila(www.rwmanila.com)



자연엔
황홀 수
이야기



공방에 도착하니 숙소로 정한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직원이 밴을 타고 나와서 맞이한다. 공항에서 리조트 월드 마닐라까지는 차로 약 10~15분이 소요된다. 마닐라를 경유하는 비즈니스 맨이나 관광객, 마닐라를 곧 떠날 일정인 사람들이 잠깐 들르기에 드넓지 않을 것 같다. 리조트는 넓은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차들이 오가기 편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리무진과 택시를 타고 바로 오가는 듯했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는 크게 호텔, 카지노, 쇼핑몰로 구분할 수 있다. 당선이 가장 궁금해질 카지노 이야기부터 하자.



TIP FOR TIPPING

필리핀에서는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팁을 주는 게 당연한 일. 보통 US\$1~2면 충분하다.

CASINO

24시간 오픈 카지노가 맥스 타워와 뉴포트를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당산 통꾸렁에 고기 숨은 열 내용까지 말할 것 같은 개 한 마리와 검색대 2개, 남녀 보안 요원 여럿이 철동 같은 경비를 서고 있다. 이곳만이 아니라 마닐라의 대형 건물 입구엔 전부 이런 검색대가 있는데, 가방을 열어보고 몸 수색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불편할 수밖에. 하지만 검색 요원들은 불쾌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하는 듯했다. 한 여자 요원은 내 몸을 훑으며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요 색사!” 여기 사람들, 인물 볼 줄 아네. 건물 안 1층 카지노 입구엔 거대한 몸집의 남자 직원 2명이 지키고 서있다. 특별히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지하지 않는다. 카지노 내에서 컴퓨터 사용과 카메라 소지는 금지다. DSLR을 어깨에 매고 아무 생각 없이 입구에 들어가면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한다. 카메라와 노트 등은 입구 오른쪽 안내 데스크에 보관할 수 있다. 게임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카지노 안에 위치한 모든 바와 식당에서도 촬영은 불가하다.

카지노 안의 스위스 바 RAT PACK에서 코바 잔을 시키고는 미팅 파트너의 잠금을 하며 그를 사전에 담으려 했는데, 더욱욱 닦은 보안요원이 날 제지했다. 촬영은 하려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별 수 없다.



카지노 입구엔 상품으로 걸린 신형 벤츠가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카지노 한가운데 위치하여 360도 사방으로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BAR 360이 가장 먼저 보인다.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술을 마실 수 있다. 곳곳에 칩과 돈을 바꿔주는 부스가 위치해있다. 필리핀 음식 및 다양한 세계 요리를 선보이는 뷔페 식당 MERCADO(메르카도)는 가장 인접에 있다. 몇몇 식당 외엔 모두 흡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내는 꽤 쾌적한 편이다. 카드 게임과 주사위 도박, 풀렛, 파칭코, 스크린 경마 등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다양하다. 30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과 1천 개 이상의 슬롯머신 그리고 행한 눈으로 인생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스태프는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다”며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방문한다”고 귀띔했다. 위 흥연 VIP만을 위한 프라이빗 카지노와 비 흥연자를 위한 금연 카지노가 있다. 힐그로 VIP 카지노는 비공개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출입할 수 없다고.



HOTEL 연애에서 그리고 여행에서는 잠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

레밍턴 호텔(REMINGTON HOTEL)

작년에 오픈한 레밍턴 호텔의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물론 호텔 직원들도 무척 친절하다. 1층 로비는 넓고 쾌적하며, 작은 바에서 음료와 술, 커피 등을 시켜마실 수 있다. 얼마 후면 호텔 1층에 매드도 날드가 들어올 예정. 하지만 구버린 편의시설은 사무부스, 칫솔/치약, 헤어&바디클렌저가 많이 없고 물도 썼는 대로도 물비누인데 향은 좋다. 대형탕을 2개, 스파, 미니냉장고와 전기토스터, 싱크대 등이다. 삼투와 탤드와, 비누, 바디로션, 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물론 당신이 애용하는 단골 모뎀을 1천 원에 파는 위생카트마저도 기대하지 마라. 헤어드라이기는 프린터로 요청해서 보증금 약 1천 원을 내고 빌릴 수 있다. 반납할 때 돈은 돌려준다. 내가 마른 빙은 온도조절 기능이 고장났는지 싸늘한 가을 바람이 불었다. 추위를 피해 여기까지 왔건만 하차한 실내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해야 습기가 올라오지 않는다.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옷가지와 침대 등이 축축하게 젖는 기척을 경험할 수 있다. 알뜰집사.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이라고.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숙소를 찾는 학생, 장기투숙객에게 여기가 적당하다.

INTERNET: 프린터에서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Wi-Fi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는다.

맥심 타워(MAXIM TOWER)

전 객실이 스위트인 럭셔리 호텔 맥심 타워(이 MAXIM)랑 그 MAXIM은 관계 없다. 동서식품(이랑 2). 럭셔리 호텔답게 전 객실에서 티치스크린인 누르런 개인 버틀레시옹)가 달려온다. 객실에 들어 서서지나 긴 복도가 방안에 펼쳐진다. 넓은 욕조와 샤워부스, 비데, 헤어드라이기, 입욕제, 샴푸와 린스, 보디클렌저와 로션, 반건조기, 체중기(까지이건 왜?), 럭셔리 호텔에 기대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고급 욕실이 있다! 넉넉한 사이즈 침대와 대리석 테이블, 목신한 의자와 벽걸이 TV, 옷장 속 드라이어와 침대 옆에 아이팟등 등을 보니 손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려는 그들의 노력이 느껴졌다. 내가 마른 객실보다 상류 레벨의 로얄 빌라와 초호화 프레지던스 스위트엔 실내 풀장, 개인 마사지사실과 미작실, 20명은 축하 노닐 수 있는 거실이 있다. 그런데도 호텔 빌라와 룸서비스 가격은 같은 규모 한국 호텔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편. 떠나고 싶지 않았다. 호텔 내부엔 멋진 아의 수영장이 있으며, 골짜기 카지노와 뉴모트몰로 연결되는 리조트를 즐기려는 가장 좋은 위치다. 참고로 한국인 직원도 호텔에서 근무하니 영어가 안 된다고 풀 필요 없다.

INTERNET: 객실 번호를 입력하면 Wi-Fi를 망설이고 즐길 수 있다.

매리어트 호텔(MARRIOTT HOTEL MANILA)

유명 호텔 체인답게 객실과 다이닝, 스파, 비즈니스 룸, 수영장 등이 훌륭하게 갖춰져있다. 특히 1층 로비의 카페테리아 JABA는 무선인터넷이 깔려있어서 편리하고, 커피와 베이커리가 일품이다. 아침엔 맛있는 뷔페 식단을 제공한다. 떠나는 날 아침을 뭔가 우아하게 즐기고 싶어서 JABA 찾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넓은 골프장이 내려다보이는 우아한 테라스에서 에스프레소와 끝내주는 피자를 먹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일본인 아저씨와 그에게 비해 너무나도 젊은 여인이 일광욕하는 모습을 감상했다. 아, 너네도 나만큼 들어가기 싫겠구나.



첫 날 마른 레밍턴 객실 향문 커튼을 잠자자마자 앞에 '그리운드 제로'가 펼쳐졌다. 커다란 시멘트 구멍이 있는 공사장을 보고 놀라 열린 커튼을 닫았다. 앞으로 호텔 몇 개가 더 들어올 예정이기에 보인다. 이곳 모든 호텔 객실 어디에서도 공사현장이 보이는 건 아쉬웠다. 빨리 끝내래 또 명거리가 가게



리조트 월드 마닐라가 좋은 이유

- 모든 스태프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
- 늦은 시간까지 식사, 음주, 쇼핑, 공연,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 한국어 안내 간판이 곳곳에 깔려있다.
- 후디지근한 바빠고 달리 안은 시원하다.
- 와이파이가 깔려있다.
- 호텔방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

- 별로였다면 그런 아마도
- 내가 영어를 못 한다. 내가
- 난 식음전매하고 24시간 카지노에 있을 예정이다.
- 나는 세종대왕으로 버리스 끼러는이다.
- 동양대에 왔는데 후위가 어인 말야!-부 긴 팔 웃은 펄수.
- 한국보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 한국에서도 한국 방송은 TV.나.

Resorts World Manila

ADDRESS: Resorts World Manila
Newport Boulevard, Newport City,
Cybertourism Zone, Pasay 1309, Metro
Manila, Philippines (NAA Terminal 3 건너편)

WEBSITE: www.rwmanila.com

TELPHONE: (632) 836-6333

도쿄 성지순례 가이드

애니와 자동차의 성지. 도쿄에서 단돈 10만 원으로 정신줄 놓고 놀다 오든 법.

BY 기획생 COOPERATION 일본 관광청 (www.welcometojapan.or.kr)



1일째 낮: 애니 덕후 체험 in 아카하바라



하라주쿠에서 발견한 AKB48의 신전

AKB48 SHOP

오덕들의 성지 아카하바라에 입성한 에디터는 지하층을 나오자마자 아카하바라가 낯은 아이돌 AKB48의 극장, 카페, 기념품 스푼을 찾았다. 극장 공연을 보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당첨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극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주구장창 돌아오는 AKB48의 무대 영상을 공짜로 모조하게 감상할 수 있다.

AKB48

아카하바라의 악칭 아카비(AKA)에서 알파벳을 따 AKB. 멤버 수가 48명이라 48. 전용 극장인 'AKB48 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극장 무대 앞에 큰 키보드 기계가 있어 팬클럽 이름이 '키보드 모임'이다. 전용 극장에서 거의 매일 AKB48의 공연이 열리는데 날짜에 따라 멤버가 바뀐다. 멤버를 정하는 방식은 뽑기...라는 소문도 있다.



게이머즈

무려 8개 층에 만화, 게임, 캐릭터 상품이 가득 들어차있다. 아주 첫철한 미소녀 캐릭터들이 당신의 마음에 붙을 지른다. 미소녀 염색, 미소녀 모피, 미소녀 초콜릿, 미소녀 천병도 있다. 8층이나 되는 성지를 오르내리다 보면 여자가 2차원 세계인지 3차원 세계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다다른다. 하... 참으로 꿈 같은 곳이었어...

+ 그리고 아카하바라까지 가서 여기를 한 가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디터의 메이트 카페 입성까 다음 글을 고대하시라!



0엔

48명 중 어떤 멤버의 기념품을 살까 고민한다!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눈요기만 할 땐.



630엔

미소녀 모피 구입. 무슨 맛있는 공짜해서 그만...



1,000엔

+2 FREE DRINK로 도쿄의 밤을 불태웠다.

1일째 밤: 도쿄 클럽 입성 in 시부야

클럽 아톰

도쿄에서의 첫째 날 밤. 에디터가 향한 곳은 이미 예상했겠지만... 클럽이었다. 좋은 클럽 많기로 소문난 시부야에 입성한 에디터는 좀더 다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대형 클럽 아톰으로 향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클럽처럼 시간대에 따라 입장료가 다르다.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입장하면 여자는 1,000엔+2 FREE DRINK, 남자는 1,000엔만 내면 밤새 도쿄의 밤을 불태울 수 있다. 아. 공짜 음료는 여자에게만 준다. 만약 자정이 지나 클럽을 가게 된다면 클럽 이름 홈페이지(www.clubatom.com)에서 무려 1,000엔이나 할인받는 쿠폰을 출력해 뒀다가 입장할 때 쓰도록. 요즘 엔고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지? 우리나라 돈으로 1만 5,000엔이나 아낄 수 있대.

2일째 낮: 자동차 덕후 체험 in 오다이바



0원
만가진 않겠지만
입장료 따위
없었다니까

메가랩: 도요타 시티 쇼케이스

일본까지 날아갔는데 따른따끈한 신차 하나 안 보고 온다면 섭섭하지 둘째 날은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요타의 쇼룸 '메가랩'에 입장했다. 메가랩은 365일 열리는 모터쇼.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만 들어도 벌써 삼정이 벌렁거리지? 아직 출시도 안 된 도요타의 신차들을 눈치보지 않고 만질 수 있으며 카트라이더에서나 볼까한 천장을 가로지르는 실내 도로에서 차를 몰아볼 수도 있다. 시승하려면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하니 꼭 챙겨갈 것. 입장료? 그런 거 없음.



메가랩: 히스토리 게라지

신차들을 신나게 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다음엔 도요타의 클래식 카를 볼 수 있는 히스토리 게라지로 향했다. 사진으로도 보기 힘든 희귀한 클래식 카가 즐비한 광경은 레이팅이라면 활황하는 에디터를 지극히7에 충분했다. 그리고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온 타임머신 차도 볼 수 있었다. 스고이V



2일째 밤: 도쿄 클럽 입성 in 롯본기

에어라이프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도쿄의 밤. 이대로 가기 아쉬워 에디터가 향한 곳은 역시나 클럽이었다. 이번에는 일본의 대표적 인기 유흥거, 롯본기에서 가장 핫하다는 클럽 에어라이프를 향했다. 지하 1층, 1층, 2층으로 이뤄진 에어라이프는 총마다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다른 다목적 클럽이라 몇 시간을 놀아도 지루하지가 않다. 좀 별보다 심으면 다른 층으로 옮겨서 놀면 되니까 말이다. 에어라이프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일레븐박스'. 오후 11시 이전에 들어간다면 남자는 2,000엔+2 FREE DRINK, 여자는 1,000엔+2 FREE DRINK로 도쿄의 밤을 제대로 보낼 수 있다. 11시 이후에 가는 수컷은 3,500엔이나 내야 하니 웬만하면 11시 이전에 들어가는 게 좋다.

총
지출액

지금까지 에디터가 도쿄에서 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 그리고 오며 가며 사먹은 밥값, 교통비 등을 합쳐 쓴 지출한 돈이 약 7만 원 정도. 도쿄에서 먹고 노느라 쓴 돈의 합계는 총 11만 원.

평가

길거리 음식(타코야키, 크레페 등)이 눈에 보이는 족족 사먹느라 1만 원 초과. 사먹지 않더라도 당신이라면 1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이력 컴플리트!



1,000엔
정신차려
보니 동이 뜨고
있었...



일본인의 집착 3

도쿄에서 에디터가 신기해한 것들

안전에 대한 집착

행동을 겪을 때마다 기사 아저씨가 일일이 안내 멘트를 날린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을 알려주는 모나리에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왼쪽으로 꺾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덕분에 10cm가 넘는 하이힐에 탑승하고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었다.

민폐에 대한 집착

길거리에 우뚝 서서 차를 차곡차곡 있는 일본인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행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제지리에 서서 음식을 다 먹고 걸 길을 가는 게 이들의 예의.

마스크에 대한 집착

도쿄 시내에서는 마스크를 쓴 일본인이 많았다. 이게 다 병상사 때문...은 아니고 일본인들은 아주 살짝 감기에 걸려도 주위에 피해를 끼칠까 봐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신의 옷만 면상을 가리기에도 유용하겠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경에 같이 사리지 않는 마스크, 회장이 잘 지워지지 않는 마스크 등 다양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MEET THE NEW BEAST
FROM A REAL
FIGHTER'S
WORLD!



니 주먹도 온나?

전직 북파공작원 파이터
ROAD FC 김종대

그를 만났다.

By 이영비 편집장 PHOTOGRAPH ARC STUDIO

항남구의
시간



김종대

신체: 177cm, 84kg
생년월일: 1981년 2월 3일생
소속팀: 팀 포스

전직 북파공직원 출신에 현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국가공무원이 다정한 아빠 그리고 종합격투기 새내기. 김종대 선수는 2월 5일에 열릴 ROAD FC 경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강연도 원주에 위치한 그의 소속팀 팀 포스 훈련장에서 고호처럼 귀에 봉대를 감은 그를 만났다.

귀를 다쳤나?

레슬러들 귀 본 적 있지? 훈련하다 다치고 피를 빼고 치료하길 반복하면 귀 모양이 이상해진다. 신인이라 이해야 그 상처가 생기고 있다.

북파공직원 출신이니 요즘 군대는 군대 같지도 않아 보이겠다. 뭐가 제일 힘들었나?

5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못 나왔다. 사람 구경을 못해봤다는 뜻이다. 군대가 다 그런 줄 알았다. 열아홉 살에 돈 많이 준대서 뭐하는 덴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알면 안 갔겠지.

전파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르치나?

다 똑같지 마. 영화에서처럼 목을 갖거나 비틀러 내(웃음).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네.

(아래 사진 보여주며) 시비 거는 사람은 없나?



제대 하고 나서는 술 먹고 많이 싸웠다. 먼저 시비 걸기도 하고 여러 명이랑도 붙고, 맘이도 두들겨 했다. 돈도 많이 물어주고,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다! 아, 얼마 전에 맞은 적이 있다! 특수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애가 뒤통수를 갈겼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미안하다는(웃음) 아, 정말 화도 못 내고.

어릴 때도 맞고 다니진 않았지?

집이 좀 살았다. 골개 자란 마마보이었다. 맞고 나 다녔지. 고등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거 칠어졌다. 별로 싸움 일은 없었다. 알만 싸움은 그냥 강다구 싸움이다. 선행 날리는 게 최고다.

가정적인 남자인가? 비스듬도 즐기고?

일 마치고 저녁까지 집에서 애들을 본다. 마누라가 오면 운동하러 간다. 보로로, 풀리, 타이로. 요... 애들은 이런 거 틀어놓으면 낯놓고 본다. 육아는 힘들다. 저지레 하면 차우고, 또 차우고.



경기 직후. 몸가 찡신 없어 보인다. 조는 건가?



경기 후 팀 동료들과 함께



날 보러 와요!

이들의 선수와의 경기 승리 후에 주먹을 계속 휘두르다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주먹이 운다〉2 봤나? 이들의가 일반인 상대라 하는 거 보라. 잘한다. 어리지만 베테랑이다. 게다가 그는 작전 경기를 부진승으로 올라왔으니 몸 상태도 내가 안 되는 경기였다. 물론 훈련을 많이 하고 옆에서 도와줘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경기 당시의 기억이 없다. 찾아보니 그가 안 보였다.

초반 난타전도 굉장했는데 갑자기 편치가 날아가 꽃혔다. 18초 KO승은 모두의 예상을 깨 걸었다. 이들의 선수수는 편치를 특에만 때리더라. 별이 반박

반박해서 난 아무 기억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익인 이들의 선수가 대결 전에 복마공작원 잡는 공익요원이라는 구도를 잡았다. 지역적인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나중엔 공무원 VS. 공익요원 이야기까지 나왔다. 몇몇 복마공작원 선배들이 내가 그 경력을 들먹인다고 욕을 한다. 정작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해라.

링에 오를 때보다 계체량 할 때가 더 떨리나?

이거 끝나고 빨리 뭐 먹어야지 하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신인이다보니 링에 올라갈 때가 제일 떨린다.

토너먼트 4강 상대가 굉장한 선수라고 들었다.

모든 면에서 당연히 나랑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이기면 솔직히 좀 행복일 거다. 하지만 한 방이 있으면 그걸 믿고 있다. 그리 쉽게 나를 이길 순 없을 거다.

승리를 예상하나?

흐호, 자넌 끝이다. 요즘엔 길 가다가 날 알아보는데 분이 많다. 이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 쓰니까 귀가 잘 들려요.

MEET THE MASTER



ROAD FC 정문홍 대표

대회를 시작한 계기는? K-1, 프라이드 이후 급격히 시장이 위축됐다. 제자들이 필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다.

링 위에 직접 뛰어들 계획은?

올해 다시 시합에 나가려고 한다.

어릴 때 싸움 즐겼나?

별로... 그리고 난 아직도 아니다.

UFC와의 차별점은?

UFC의 레슬링 개념이(지루한 그라운드 공방) 너무 싫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목적이나 로드FC는 운동하는 후배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위해 만든다. 물론 후엔 돈을 벌겠지만.

국내 격투기 대회도 흥행하려면 악동 캐리타가 필요하지 않나?

한국 선수들은 너무 허다다. 곧 예인 중 종합격투기 선수가 나올 거다.

기대한다. 곧 발표된다.

종합격투기에 잘 어울릴 다른 스포츠 선수? 이윤용과 김병지

당신이 만난 가장 감동적인 선수? 프도르, 그야말로 임전한 모범학생 같은 사람이다.

종합격투기는 OOOOO이다. 남자의 꿈.

S+UFF

PC 게임만을 위한 태블릿 PROJECT FIONA

이번 'CES 2012'에 고개를 내민 수많은 제품 중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의
심장을 뒤흔들리게 만든 녀석이 있었다. 어떤 녀석이?



1. 세계 유일의 PC 게임 전용 태블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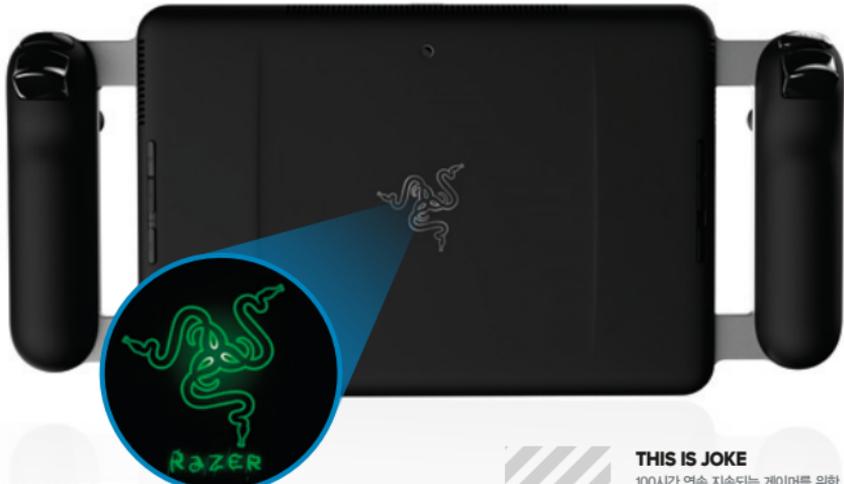
아이패드도 좋고 갤럭시도 좋다. 하지만 당신이 현실에서 “배우나뿌리” “급강석화” “요장님, 받아 스킬 쓰세요!”를 외치는 게이머라면? 이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2)에서 게이밍 기기 업체 레이저(Rezer)가 내놓은 ‘세계 유일의 PC 게임 전용 태블릿’ 피오나 프로젝트의 콘셉트 디자인을 보자마자 손끝 신경이 파르르 떨려올 거다. 물물이와 그녀의 허벅지 외에 당신의 엄지와 검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대상은 아마 여자아이렇게 생긴 놈들이 될 테니까.

2. 과일 썰기, 새 소고 돼지 잡기 이제 지겨워?

인텔의 넷북 및 태블릿 사업부 파트너 마케팅 부분장 브래드 그레프는 “프로젝트 피오나의 인텔 기반 고성능 게임용 하드웨어와 혁신적인 태블릿 디자인의 조합은 PC 게이머에 맞춰 최적화되었다”라며 “현존하는 또는 앞으로 출시할 하이엔드 게임을 가장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새로운 폼 팩터인 태블릿을 통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이미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태블릿에서는 구동되지 않던 PC용 게임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태블릿으로 맨날 씨 뿌리고 거두고 집 짓다가 새 뿜어서 돼지나 잡고 날아오는 과일이나 새는 일이 지겨운 고클 게임어들에게 반가운 소리. 물론 일반 태블릿 패드로는 충분히 즐거운 이들 에겐 “뭐 이따위로 생긴 게 있나?” 하겠지만 말이다.

BARS & STICKS

듀얼 게임 컨트롤러와 아날로그 스틱을 탑재한 프로젝트 피오나는 목발과 총기 반동까지 손에 생생하게 전달한다. 아, 그런 참 손맛이 느껴지는 밀링 한 속살 만지기 기능 같은 것도 있는 거?



WHO MADE IT?

레이저(RAZER) 그룹은 게이머를 위한, 게이머에 의한이라는 모토 아래 하이엔드 게임 기기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다 필요없고 손바닥에서 LED 불빛을 마치 정통 볼드 필사하는 긴지 자살 레이저 마우스 8~9년. 상대적으로 딱실스당하더라도 역시 장신은 승리한 작파자지 든다.

자세한 정보는 www.razerzone.com 및 <http://kr.razerzone.com>에서 확인한다.

3. 쌍쌍 돌아가기는 하는 거?

PC 게임을 즐기는 만큼 프로세서도 병행해야겠지? 레이저는 '레이저 태블릿 홈 팩'에 통합된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 중 하나를 프로젝트 피아노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말은 곧 단순한 게임 혹은 모바일 전용 게임만 가동할 수 있는 자전력 태블릿과 달리 프로젝트 피아노는 지금까지 태블릿 홈 팩에서는 구동되지 않던 PC용 게임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예이다. 배터리의 지속시간도 당연히 병행하겠지? 어이 듣고 있나, 레이저?

4. 컨트롤러와 멀티터치의 함구

프로젝트 피아노는 기존 태블릿과 생김새도 다르다. 게임 컨트롤러와 함께 정확한 가속도계 및 민감한 멀티터치스크린으로 구성돼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물론, 게임 개발자가 하이브리드 게임 조종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도울 예정 이 녀석에 특화된 게임은 아날로그 스틱이나 게임 컨트롤러 등으로 폭발 반응 깊은 손맛을 인가주고, 이녀석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터치스크린과 가속도계 기반 컨트롤러까지 적용한 새로운 게임이 되겠지? 덕분에 개발자는 손바닥 지문이 달도록 일해야겠지만 말이다.

5. 녀석의 미래는?

민방탄(Min Liang Tan) 레이저 CEO는 "멀티터치스크린이 사실상 태블릿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었지만 이는 PC 게임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프로젝트 피아노를 위해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이머는 모든 PC 게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게임 개발자는 매우 직관적인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단 하드웨어는 만 들었으니 이제 새 게임 좀 만들어서 만들어보라는 건가? 수많은 전자 기기가 그러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못 받으면 비라비라하게 사라지는 게 예사다. 프로젝트 피아노와 같은 게임용 태블릿에서 구동될 더 복합적인 게임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두고 보자고.

THIS IS JOKE

100시간 연속 지속되는 게이머를 위한 완벽한 영안보충제: 레이저 배논



COMING SOON

악속은 지는 거지?

가격

US\$1,000 이하로 책정 예정

출시일

2012년 4분기에 나올 예정

법적이고 통째로 잠 잘 시간도 모자라

레이저 배논은 게이머를 약 100시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막거나 마시지 않아도 정신을 초롱 초롱하게 만드는 주사약이다. 3팩에 40달러 이고 클바들도 제공한다. 재사용도 가능하다. 바늘이 무서운 사람을 위해 증기로 흡입할 수 있는 형태의 레이저 배논도 있다. 단돈 100달러면 된다. "만약 하몽이 나면 재충전하러"는 것이 개발자의 조언.

...라고 2010년 만우절에 레이저에서 장난질 했다. 수많은 게이머가 이를 사실로 믿고 문 의했다는 후문. 존나 그럴싸해서 어디에도 속은 추억... 흑흑.

DO ELECTRIC SHEEPS DREAM ELECTRONIC SHAVE?

전자양인 전기면도를 꿈꾸는가?

수퍼 방수 전기 면도기
4종 비교 테스트

이전도 실 면도기가 전기 면도기보다 더 깔끔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어느 크기를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거나?
면도날에 배인 보기가 흉한 수건을 갈망하고 있거나?
당신의 선택권을 계속 늘려 전기 면도기를 모아 봤다. **PHOTOGRAPHY: AKS STUDIO**



COOPERATION: 보령 (www.boury.com) | 필립스 (www.philips.co.kr) | 기니스 (www.panasonic.co.kr)



브라운 시리즈 7

독일의 가진 명가 브라운의 면도기는 마치 BMW 자동차처럼 등급을 3, 5, 7 시리즈로 나누고 있다. 시리즈 넘버가 올라갈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형 모델이란 뜻이다. 오늘 소개할 790cc는 즉, 최고급 모델이다. 장식 없는 우직한 남성 같은 디자인에서 느껴지듯이 버튼을 누르면 10,000rpm에 육박하는 속도로 강렬한 회전을 시작한다. 살짝 섬뜩한 느낌도 들지만 피부에 닿지마자 짜릿한 타격감과 함께 당신의 두꺼운 수염을 뺏아 들어들이 제거한다. 의외로 헤드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면도할 때 피부 자극이 적다. 전기 면도기를 쓰면서 피부가 상하는 경우는 대부분 면도를 깔끔하게 해보겠다고 너무 세게 피부에 밀착하고 박박 문지르는 경우인데 그런 침사를 미연에 막아준다.

장점

▶ 내부 청결 상태를 면도기 하단에 위치한 액에 표시한다. ▶ 헤드가 움직이며 부드럽게 밀착. 견식 면도에도 피부를 다칠 일이 적다. 더 이상 스킨 로션이 두렵지 않다.

단점

▶ 브라운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A/S 센터도 매우 일례에 일임한 상태. ▶ 1회 면도에 청결도가 1 하락했음. 무서워서 쓰겠다. ▶ 수동 청소 시에는 청결 상태 표시가 복구되지 않는다. 클린 스테이션 사용시에만 복구된다. 헛 센서로 측정하는 건 아닌가 보자?



EXPERT REVIEW

MAXIM GIRL들의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을 담당하는 남자 이도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모발을 다루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면저 털이 적더라면 브라운 면도기를 추천하겠어요. 흔히 동양인은 적모이고 서양인은 곱슬이라고 하지요. 적모는 털이 적세기 때문에 회전력이 더욱 강한 모델이 필요하죠.

날 면도기 VS 전기 면도기

	편리성	✓	
✓	깨끗한 면도		
	피부 자극	✓	
	상처, 피	✓	
✓	로망		



필립스 센소 터치 3D

국내 점유율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호 필립스의 플래그쉽 센소터치 3D는 3D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입체적인 면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필립스의 상징인 3헤드 시스템은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까다로운 얼굴 곡선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고 피부에 더욱 밀착한다. 붓을 때지 않고 한 획에 그린 그림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턱과 목 주변을 총추듯 미끄러져 나가는 감각이 환상적이다. 3헤드의 우주적인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곡선 바다는 면도기 이상의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 스테이션에 장착해 세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받침대가 움직이며 면도기 헤드를 물고문(?)을 하는 모습이 놀라 온 친구 기 죽이기 딱 좋다. 면도 능력은 충분히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헤드 회전 속도가 낮은 편이라 시원한 맛은 다소 떨어진다.

장점

- ▶일자 날 전기 면도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에르탁(?)한 밀착감.
- ▶든 깊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세척 기능 작동하는 거 보면 질질 쌀 걸?
- ▶헤드가 분해와 분리 되어 있어 습식 면도를 하거나 세척 할 때 더 안심 된다.

단점

- ▶스테이션 없이 단독 충전이 불가능하다. 출장 갈 때 불편함.
- ▶헤드 회전 속도가 느리다. 호쾌함이 떨어지



EXPERT REVIEW

필립스는 목이나 턱의 끝부분처럼 일자형 면도기가 깎기 힘든 부분에 강해요. 그래서 브라운으로 깎고 남은 잔털을 정리하는데 특히 강점을 발휘하지요. 털이 얇고 고인 돼지 털이라면 필립스가 답이에요.



파나소닉 ES-LV90 람대쉬

짧은 수염까지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면도를 마무리 해주는 파나쉬날과, 긴 수염을 파나쉬날이 면도하기 적절한 길이로 조절해주는 슬랫날. 또한 누워있는 수염마저 일으켜 세워주는 신기술 리프트날이 어우러져 놓치는 수염 없이 완벽한 면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세계 최초 5중 면도 날 전기 면도기. 14,000rpm에 이르는 회전 속도로 순식간에 당신의 수염에 5단 콤팩트를 넣는다. 콤팩트가 타질 때 나는 경쾌한 소리와 짜릿한 손맛이 람대쉬의 최고 장점. 근대 헤드에 이 많은 날들을 우겨 넣다 보니 고기 다짐 때 쓰는 망치처럼 보인다. 훑기처럼 생긴 면도기를 턱에 대고 문지르고 있으면 진동이 워낙 세서 0벨 전체가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헤드가 너무 커서 그러한 헤드의 움직임 또한 브라운만큼 자연스럽지는 못했다. 한 미디로 우직하게 "면도는 파워" 라고 생각하는 상남자를 위한 마초의 면도기다.

장점

- ▶ 세계 최초 5중 날의 위용. 하나, 둘, 셋, 넷, 아홉 중구내!
- ▶ 14,000rpm에 육박하는 회전 속도가 면도하는 손맛을 살린다.
- ▶ 세정과 날 교환 시가까지 알려주는 10단계 LCD 액정.
- ▶ D3.0R의 미려 면지를 음파 진동으로 털어내는 것과 비슷한 진동 청소 가능 탑재. 내 털이 지만 더럽잖아

단점

- ▶ 고기 두드리는 망치처럼 생긴
- ▶ 진동이 너무 커서 아랫이 다 울릴 정도.
- ▶ 핸들 너무 비싸다. 교체 부속 값도 비싸
- ▶ 스테이션이 너무 못 생긴



EXPERT REVIEW

굳이 5중 날까지 필요할까 싶네요. 가격도 비싸고요.



MAXIM LAB

여성 제모기로도 면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제모와 면도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면도기가 털을 깎는다면 제모기는 뽑아내는 것이다. 콧털 뽑혀 봤어? 안 뽑혀 뿔오면 말을 하지 말어. 하지만 최근 다리털이나 겨털에 인구 조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여성용 제모기를 많이 찾고 있다. 여성용이라 사용법도 간단하고 지극히 적당고. 남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필립스 아쿠아 터치

습식 면도는 기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샤워 할 때도 사용 가능한 면도기를 찾는다면 이게 바로 정답. 몸 전체를 감싼 고무 소재가 방수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심지어 작동 버튼조차 고무에 씌여 있다. 단지 장시간 사용했을 때 내구력이 약한 고무가 얼마나 버티는지가 관건이다. 용도가 확실한 모델답게 다른 부가 기능은 전부 빼어리고 방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격을 확 내린 점이 주요 세일즈 포인트. "면도기가 좋아 봤는지, 바싼 면도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가끔 벗 내고 나갈 수 있게 습식 면도 정도 할 수 있으면 됐지" 하는 합리적인 철은 남성에게 먹이다.

장점

- ▶ 테스트 제품 중 가장 저렴하다.
- ▶ 헤드만 방수 되는 타 모델들과 달리 유일하게 100% 물에 담가도 되는 완전 방수 모델.

단점

- ▶ 동자루 같은 디자인.

면도 크림의 로망

면도 후 피부가 따끔거리고 울긋불긋 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셰이빙 젤을 적극 추천한다. 방수 면도기와 함께라면 낯 면도기의 특권이었던 셰이빙 젤을 쓸 수 있다. 면도 전 셰이빙 젤을 바른면 수염이 유연해져 제모 하기 적합한 상태가 되고 피부에 직접 날이 닿아 생기는 미세한 상처와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다.



1. 리스킨 트러블 솔루션 셰이빙 젤

일반 무스 타입의 셰이빙 제품보다 피부 밀착력과 보습력이 뛰어나 면도 후 깔끔한 느낌이 든다. 보습효과도 있어 촉촉한 느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2. 잭 블랙 슈퍼림 크림 + 일렉트릭 셰이브

슈퍼림 크림은 노끈한 이뚸덩게 건조 피부에 두터운 상층 보호막을 형성해 예민한 피부를 보호한다. 일렉트릭 셰이브는 일반 습식 전기 면도기에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끈적임이 없고 면도 전 수염을 뿔뿔하게 세워 면도를 돕는다.



FINAL RESULT

종합 평가

담당 에디터는 이 제품들을 써보느라고 한동안 수염 부족 현상을 겪었다. 잔상 수염이 이렇게 간절할 줄이야! 거의 매일 촬영장에서 나의 흐르모를 촉진하는 훌륭한 MAXIM GIRL을 만났지만, 이별이 한동안 면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애초에 각 브랜드들의 기술력이 총 동원되는 플레그 씬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질적력 비교는 무의미 했다. 자신의 수염 형태, 디자인 취향, 기타 부가 기능에 따른 개인 선호에 아래 제품들이 꼭 맞는 지 살펴보도록.

가까이 더 가까이

필립스 센소 터치 3D

면도망과 날이 따로 움직이면 브라운 역시 만만치 않게 들려붙지만 3배 더 포근한 그분의 승리

면도기도 간지

필립스 센소 터치 3D

외계인의 밀도처럼 생겼다. 스테이션에 꽂혀 있을 때 두 가장 아릅답다. 그런데 세정 소음은 너무 20세기야.

죽어도 습식 면도

필립스 아우아터치

청소 할 때 부담이 전혀 없다. 헤드가 아예 분리가 되는 필립스 센소 터치도 만찬까지.

내 털은 질사인가

파나소닉 램대쉬

두껍고 억센 털을 가졌다면 이 녀석만이 당신의 털을 흔내줄 수 있다.

내털은 x얼인가?

필립스 센소 터치 3D

구불구불한 털은 정확하게 칼날에 털이 들려야 효과가 좋다. 일차형 면도기보다는 다중 헤드 형태에 더욱 적합하다. 그렇다고 X 털을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브라운 790cc	필립스 센소 터치 3D	필립스 아우아 터치	파나소닉 램대쉬
칼날 개수	3	3	3	5
방수	생활 방수	생활 방수	완전 방수	생활 방수
청소 난이도	중	중	하	중
스테이션	유	유	무	유
회전 속도	중	하	하	상(1,400rpm)
1시간 충전/사용 시간	50분 사용	60분 사용	50분 사용	45분 사용
실 구매가	24만 원대	31만 원대	13만 원대	55만 원대



MAXIM 전자양의 선택

브라운 790cc

브라운은 다 잘 한다. 필립스는 일등 하기에는 면도 감각이 너무 섬세하고 파나소닉은 면도기 가격 한계에 도전할 정도로 비싼 데다가 추가로 들어갈 교체 파츠도 제일 비싼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결국 헤드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굴곡에도 잘 밀착하는 면도날을 가진 브라운이 중형 일등이다. 가격대 비 성능도 최고다.



MONSTER GARAGE

올랜도 매직의 괴물 센터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가 자신이 아끼는 붐붕이들을 대령했다.

PHOTOGRAPH BOB CROSLIN

Q+A

그 괴상한 바이크부터 소개해달라.
캠-앤-스파이더라고 한다. 오늘도 이걸 타고 왔다. 이 바이크를 타는 게 내 낙이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어디든 타고 다닌다.

운전하던 사람들이 바이크를 탄 당신이 옆에 멈춰 서면 놀라 뒤집어지겠다. 기절까진 아니고 손을 흔들거나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치지. "이봐요! 올랜도에서 이적하지 않을 거죠?" 요즘은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도색이 진짜 끝내준다.
맞다. 이 장식의 메인 테마는 슈퍼맨이다. 코트 위의 나처럼 말이다. 스스로 쪽은 경찰차 조영이나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컬러다. 밤에 보면 꽤 멋지잖

남 까대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립 오일에게서 그 슈퍼맨 색칠 때문에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진해 풀բ 없던걸?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오늘도 이걸 그냥 재미를 위한 거라고 이해한다. 쿨해, 우린.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슈퍼맨에 비유하다니...

나 말고도 자기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화낼 이유는 없지. 안 그래?

저 허만 차는 롤스로이스 고스트링 마 이비호르군. 그거 말고 또 사고 싶은 게 있나? 아님 새해 소망이라도?

음... 가끔은 내 키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 모든 스포츠카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난 키가 너무 커서 어떤 차에는 들어가 있을 수도 없거든.

CELEB OBSESSION

붐붕이 더 보기



키 220cm인 드와이트에게 차는 청년감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타면 아마 경문기처럼 보일 거야.



STUFF

DRESS CODE: YELLOW

프로덕트 디자인, 옐로우로 생명력을 불어넣다.
 BY 유승민 PHOTOGRAPHY ARC STUDIO ASSISTANT 최다은

파티 코드가 옐로라고 병아리만큼 노란 후드 티를 입고 가지는 않겠지? 하지만 경쾌한 포인트로 코드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스타일이다. 옐로 하면 옐로 저널리즘으로 세계에서 돌파카려면 서러워할 MAXIM 에디터들이 있다. 에디터들을 뭉치에 신체 수색해 그들의 소지품 속에 숨어 있는 황색 포인트를 추출했다!

1 에어그립 필러담베 ESSE SENSE

일라스트레이터 찬영준

MAXIM의 아티스트이자 애널리스트인 그는 최근 3년 단골 담배를 버리고 ESSE SENSE로 갈아탔다. 물건을 살 때 도 기능성은 꼼꼼하게 무시하고 디자인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건지 그가 찬영준의 눈에 ESSE SENSE의 강렬한 형광색 옐로 라인이 남다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3월 6일' 패키지는 보통 담배의 반 정도로 슬림할 뿐 아니라 리얼한 메탈 스킨 디자인 덕에 ESSE SENSE는 담배가 아니라 클래식 라이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시크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2 푸마 FAAS 500

에디터 박한빛누리

서울 텐스의 달인이기도 한 박한빛누리 에디터의 클럽 전투화, 노란색까지 연두빛인지 모를 푸마의 묘한 형광색 포인트는 그가 서울 텐스를 चु는 순간 신발을 넘어 전신 스타일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푸마 FAAS 500을 신고 한눈에 봐서 서울엔가려운 눈을 어찌하게 만드는 형광 라인이 보는 이의 눈을 속 빼놓는다는 게 그의 설명.

3 잉거솔 IN12BKRG

에디터 송종민

서초동 예자남 송종민 에디터를 물어보면 그의 스타일에 에지를 잡아주는 금빛 포인트를 금방 포착할 수 있다. 그가 아끼는 손목시계 잉거솔 IN12BKRG가 그것. 아무도 리버 밴드와 문자판 사이를 강렬하게 가로지르는 광 메달릭 로즈 골드 라인은 그의 빈한 발목을 격려하게 마무리해주는 마감재 역할을 하고 있다. 잉거솔의 골드 포인트가 팔 전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는 셈.

4 MAXIM 2011년 2월호

잡지를 책꽂이에 꽂았을 때 보이는 모서리 면을 전문용어로 '세네카라고 한다. 책장에 MAXIM 컬렉션이 있는 독자라면 알겠지만 MAXIM의 세네카는 언제나 그렇듯 블랙 일색. 하지만 이 컬렉션 컬렉션에 선명한 옐로 포인트 라인을 만들어주는 과월호가 하나 있다. 바로 MBC SPORTS+ (BASEBALL TONGHIT)의 미녀 진행자 김민아 아나운서가 표지를 장식한 MAXIM 2011년 2월호! 당신의 컬렉션에 선명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아이템이다.

공포의 아이템



ADIDAS 레프티 옐로카드

편집장 이영비

MAXIM 편집장을 상징하는 마패, 에디터들을 발발 떨게 만드는 아디다스 옐로 & 레드 카드 한켠. 아직 레드카드가 등장한 적은 없으나 카드 그 마감이 다가오면 슬슬 편집장표 옐로 카드의 상수기 시즌이 찾아온다. 총총하게 박힌 아디다스 패턴이 더 거부감을 증폭시키는 편집장 IT 아이템.

GEAR OF THE MONTH



로지텍의 무선 슬라 키보드 K750,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능도 좋지만 보기 좋다면 누가 거들떠보거나 하겠나? 배터리의 교체도 필요 없는 로지텍의 무선 슬라 키보드 K750은 얼마 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F 디자인 어워드에서 소비자 제품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컴퓨터 부문 3천여 후보 중 최종 선정되는 재거를 이룰 정도로만 평가 다르겠지? 7.5mm의 두께는 만만 먹여만 두부라도 씹힐 것처럼 날렵하고, 그 옛날 전자계산기에서 보던 슬라 패널도 반긴다. 가격 129,000원 문의 로지텍(www.logitech.co.kr)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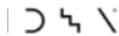
어디서 상을 받아야
오만 군데 광고할 수 있지?



독일 F 디자인 어워드



red dot design award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D 디자인 어워드



한국벨킨, 스마트 USB 충전 스테이션 컨서브 발렛 출시

한국벨킨은 다양한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USB 충전 스테이션 컨서브 발렛을 출시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카메라 등 USB 입력을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라면 대부분 충전이 가능하며, USB 포트가 4개나 있어 한 번에 최대 4개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가정, 사무실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 같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가격 59,000원
문의 한국벨킨(www.belkin.com/kr),
@belkinkr)



신함은 꼭차있어라.



이 모델은 포함된
패키지는 없나요?

캐논, 새로운 플래그십 카메라 파워샷 G1 X 발표

지난 1월 10일 새로운 플래그십 콤팩트 카메라 파워샷 G1 X가 모습을 드러냈다. 캐논이 자체 개발한 15형 대형 CMOS 센서와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 DIGIC 5를 탑재해 해상도와 화질을 업그레이드했다. 렌즈와 액세서리 등도 캐논 DSLR EOS 시리즈 기술력을 활용해 DSLR에 맞먹는 디지털카메라 성능을 구현했다. EOS에서 쓰는 액세서리를 G1 X에 쓸 수 있는 것도 장점.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아마추어 혹은 전문 사진가의 서브 카메라로도 구미가 당기는 녀석이다. 가격은 미정이다. 할리는 블랙으로 2012년 2월 출시 예정. 문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부(www.canon.co.kr)



FROM CES 2012

지난 1월 13일에 막을 내린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낱아은 개발 같은 신제품 소식.



간판 바꾼 소니 에릭슨, 4종의 엑스페리아 선보여

소니는 지난 1월 9일 CES 2012 현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니 에릭슨이 소니의 100% 자회사인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소니 에릭슨은 소니의 차세대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NXT 시리즈를 선보였다. 주우 에릭슨은 소니의 첫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S, 미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엑스페리아 아이온, 엑스페리아 마이크로 HD, 엑스페리아 NX로 모두 4종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onyericsson.com/press와 blogs.sonyericsson.com/products에서 볼 수 있다.

인텔, 2012년 중국에서 모토로라 스마트폰 출시 예고

인텔® 기술 기반 레노버 K800 스마트폰이 올해 중국에서 출시 예정이다. 인텔은 CES 2012에서 모토로라와 다년간만 벌여온 다이아몬드에 대한 전략 파트너십 관계와 더불어, 새로운 인텔® 이동™ 프로세서 플랫폼 기반의 레노버 핸드셋 발표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다양한 개선 사항들에 대해 밝혔다. 특히 새로운 이동(Atom) 프로세서 기반의 스마트폰이 2012년에 출시될 것이며, 인텔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HTC의 첫 4G LTE 원도폰 타이탄 II 공개

HTC가 4G LTE를 지원하는 자사 첫 원도폰 타이탄 II를 공개했다. 현존하는 원도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는 타이탄 II는 선명한 4.7인치 슈퍼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 광각렌즈, 오토 포커싱 기능, 듀얼 LED 플래시, 적외선 손떨림 보정, 후면조사식 센서, 셔터 버튼 등으로 콤팩트 디카에 비해 손색이 없다. 파노라미, 연속촬영은 물론 후면 카메라로 720p HD 영상 촬영, 앞면의 130만 화소 카메라를 통해 영상 채널도 가능하다. 촬영 15GHz 초고속 무선 LAN 프로세서, 173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대부분의 MS오피스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타이탄 II는 미국 이동사 사파리를 통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Eee Pad MeMo 171

Eee Pad Transformer Prime TF201

아수스,

CES 2012에서 신제품 대량 실보

아수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2에서 새로운 태블릿 PC 트랜스포머 700 시리즈와 테그라 3를 탑재한 7인치 태블릿 MeMo 30T, MeMo 17을 비롯해 프리미엄 울트라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ZENBOOK의 로즈 골드 및 핑크 버전 등 새로운 컬러 모델, 그리고 2인치 WAZ80 LED 디스플레이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아수스는 제품 6종이 CES 2012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혁신상을 수상했다.

문의 아수스(kr.asus.com)



ZENBOOK UX21 Hot Pink



SP-720UZ BLACK

SP-620UZ SILVER

올림푸스, 콤팩트 카메라

11종 라인업 발표

올 상반기 올림푸스가 SP·TG 시리즈 등 카메라 11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눈을 끄는 제품은 고배율 줌 렌즈인 카메리로 인기를 모은 SP 시리즈의 새 모델이다. 슬림하고 콤팩트한 디자인이지만 SP-720UZ는 와이드 앵글 광학 20배줌 중 (26~67mm), SP-620UZ는 광학 12배줌 (26~525mm)을 적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SP-620UZ는 최고 품질의 영상을 녹화하는 멀티모션 기능이, SP-720UZ는 역광 촬영 시에도 깨끗하고 부드럽게 묘사해주는 HDR 백라이트 조정 기능이 있다.

문의 올림푸스한국(www.olympus.co.kr)



HYBRID VS. ELECTRIC

choose your own future

하이브리드 vs. 전기 자동차 과연 누가 진정한 미래인가? BY 송호민



PEUGEOT 3008 HYBRID 4

디젤 하이브리드라고? 왜 이 생각을 뒀는지?

세계 최초의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 163마력의 47동 2.0리터 디젤 엔진에 전기모터를 넣었다. 푸조의 HDi 엔진만큼 연비가 19.5km/L인데 여기에 37마력의 전기모터를 더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최초의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다른 브랜드가 절대 생각하지 못할 획기적인 개념도 아닌데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BMW와 벤츠가 왜 푸조에게 내어준 것일까? 추측해보건대 디젤엔진의 부가가치에 상당하다는 것에서 첫 번째 단점을 찾을 수 있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푸조도 최초의 결과물로 넉넉한 사이즈의 SUV 플랫폼을 골랐다는 것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다. 디젤 엔진 자체도 이미 고연비 글러덴엔진인데 굳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져 제작 코스트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자머는 판매 시장이 애매한 점을 들 수 있겠다. 디젤을 선호하는 유럽은 하이브리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하이브리드가 익숙한 미국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차 값도 디젤차가 더 비싼데 연료까지 비싸면 누가 사겠나. 더구나 일본은 디젤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대체 이걸 어디다가 팔지?

디젤 하이브리드로 얻어낸 재미

연비는 당연한 거고 디젤 차량 특유의 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고효율 디젤 엔진들은 고속에서는 높은 연비를 내지만 시내 저속 운행 구간에서는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큰 진동과 소음이 생기는 약점이 있다. 어라? 전기모터가 제일 잘 하는 두가지잖아? 또한 전기모터를 후륜구동축에 물려 간단하게 4WD의 장점을 구현한 정도 제1안 발상이다. 덕분에 뒷 바퀴 굴림 방식의 전기모터 모드 (ZV)와 오프로더를 방불케 하는 4WD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HDi 엔진과 전기모터가 동시에 구동되면 최고 출력 200마력, 최대 토크 50.98kg.m로 자사의 2.2 HDi 엔진의 힘과 필적하는 파워를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뭐 그렇다고 스포츠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니 흥분하지 말고.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푸조의 모험적인 디젤 하이브리드는 벌써 시장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들의 행보에 자극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라는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을 발표했고 현대기아도 조만간 i40 베이스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은 푸조 3008 Hybrid4의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다. 아흐! 오랜만에 푸조 대박 좀 나는 건가!



“최초의 양산형
디젤 하이브리드”



TOYOTA PRIUS

연비
29.2km/L

토요타의 딜레마이자 희망.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 당장 지금 팔 모델이 빈약하다. 유럽에서는 60%가 디젤을 타거든. 최근 토요타는 BMW에게 디젤 엔진 기술을 전수 받기로 하여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제작 노하우를 가진 차가 어디 가겠나. 프리우스는 29.2km/L에 육박하는 최강 연비, 품질도 최고, 명실공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판매 페이스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이 토요타의 희망이다. **가격 3790만 원**

하이브리드 VS. 디젤

연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때문에 반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또한 디젤 엔진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도요타조차도 2020~30년이나 되어야 하이브리드가 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를 살 것인가. 미래를 내다볼 것인가.

당장 살 수 있어 가솔린 하이브리드 진영

가장 대중화된 차세대 연료 기술로 1997년 10월 14일 토요타 프리우스의 출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비 개선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모델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강점이다.



HYUNDAI i30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대가 PHV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가용용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를 말한다. 출시 시기는 2022년 말. 근대 집에서 주차장까지 전 기 코드 연결이 가능한 사립 손 들어봐. 과연 현대가 돈 안 되는 일을 할까?



연비
25.4km/L



LEXUS CT200h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항상 예코 모드야만 해? 우리도 즐겁게 달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한 스포티한 하이브리드 해차력. 물론 저 위에 쓰인 수치가 스포츠 모드로 때려 받았을 때의 연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가격 4,190~4,770만 원**

연비
20.6km/L



HONDA CR-Z

렉서스 CT200h에 맞서는 혼다의 카드 CR-Z. 렉서스보다 공간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훨씬 더 콘셉트에 어울리는 본격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다. **가격 3,380만 원~3,490만 원**

“ 지루한 차는 만들지 않는다 ”



BMW 3 Series ActiveHybrid

하이브리드 기술이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기술된 엔진을 보조해 파워를 보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BMW는 335를 베이스로 모터 어시스트를 통해 360마력, 62.2kg급 토크를 뽑아내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어 냈다. 그들의 퍼포먼스 쿠페 M3에 버금가는 실력이다. 2012년 하반기 출시 예정

HYUNDAI SONATA HYBRID + KIA K5 HYBRID

소나타와 K5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상상치 않다. 최근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신형 소나타 5대 중 한 대, K5 10대 중 한 대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되었다.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배터리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평생 배터리를 책임져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 물론 미국 이야기다. 소나타 가격 3,118~3,438만 원 K5 가격 3,068~3,338만 원



연비 21.0km/l



연비 23.6km/l

TOYOTA CAMRY 2.5 HYBRID XLE

2002~2007 북미 판매 베스트를 차지한 바로 그 캠리다. 잘 팔리는 건 이유가 있다. 과연 국내에도 동참까? 캠리는 4,200만원이론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았다. 전작보다 300만원이나 내린 것이다. 물론 FTA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다시 펼쳐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 에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인 세제해체력과 공영주차로 50% 면제, 혼잡통행료 면제까지 적용한다... 왜 잘 팔리는지 알겠지?

HONDA NSX

혼다의 슈퍼카가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다! 이제 퍼포먼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전기모터 두 개를 프론트 휠에 장착해 강력한 트랙션의 SH-4WD로 완성 시킬 계획이다(푸조는 뒷 바퀴). 후를 구동 미드십 스포츠카였던 NSX에 비해 전자 장비의 개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러오지만 NSX라면, 혼다라면 전세계에 걸 맞는 새로운 재미를 가진 편 두 드라이브 스포츠카로 완성 시켜주리라 믿는다. 2014년 미국 시장 발매가 목표



연비 (어벤저스)에 이어엔진의 예마로 나올 예정



연비 23.6km/l

HONDA INSIGHT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하이브리드카. 도요타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가격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된다. 가격 2,950~3,200만 원

내가 바로 미래! 전기 자동차 진영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멀어야 100km 내외 밖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수 천만 원을 쓸 수 있을까? 자동차 회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순수 전기 자동차에 앞서 지금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살짝 응용한 저미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GM의 전기차 볼트다.

전기차 회의론자의 주장

진리는 자전거나라

1. 배터리 기술의 한계 (저속성, 재충전 횟수, 무게)
2. 충전 인프라 구축 (길고 긴 충전 시간, 부족한 충전소)
3. 운전 감각이 지금과 많이 다르다. 모타는 엔진이 아니다, 이를 보정해 줄 MCU(모터 컨트롤 유닛)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4. 이게 자동차나 가진 제품이나?



CHEVROLET VOLT

볼트에는 전기모터와 함께 휘발유 엔진이 탑재 되어 있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로 본다. 왜냐하면 볼트의 구동은 오로지 전기모터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휘발유 엔진은 배터리가 방전 되었을 경우 추가 발전을 위한 시스템일 뿐이다. 즉, 휘발유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뜻이다. 전기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전기차를 팔기 위한 웨보레의 신의 한 수!

+ 볼트는 1회 충전으로 80km 주행이 가능 하다. km 당 26원에 달 수 있는 셀이다. 지역 기밀값이 얼마마다? 2000원에 30km/L. 연비가 나오는 차라고 가정해도 66원이다 또한 35리터의 연료 탱크로 최대 530km를 더 주행 할 수 있다. 일반 연비로 15km/L 정도인데 이게 역시 무척 높은 연비이다.

BMW i3

BMW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가 될 2인승 중앙 감소를 위해 알루미늄 S&C와 카본 차체로 제작됐고 뒷 바퀴에 내장된 전기모터로 동력 170마력, 최대 25.5kg.m의 토크를 발휘한다. 지푸란 차는 만들어 지 않는다는 BMW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화끈한 전기차 하지만 지갑 또한 화끈하게 열여 찾아야 할 수 있다. 2013년 출시 예정.

+ BMW는 왜 전기 자동차에 눈을 뒀나?

사실 BMW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려 30년 전부터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구해 왔고 '하이드라젠'이라는 시제품까지 개발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물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다른 기술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다. 부산에도 오르지 못 밖에 없다. 배출된 물은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



“전기차 진영의 신의 한 수”



전기차 대중화 계획

카 셰어링 사업

동해에 설치된 공영 자전거 대여소를 생각해본 편이다. 가까운 대여소에서 차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한 뒤 회사 근처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대여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까지 자동으로 충전된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대여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근대 편건은 그 서버스 품질에 있다. 공영 자전거 중에 열평한 것 봤나?

뭐야 미래 싫어 당장 전기차 내놔~

지금으로선 국내에서 완벽한 전기 자동차를 갖기엔 불가능 하다. 하지만 전기 스퀀러는 이미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나도 멀리 어딘가 좀 다녀 봐?



MOTOR OF THE MONTH

캡티바 2.0 출시, 거침없는 드라이빙의 최강자



쉐보레 캡티바 2.0은 동급 최대 토크를 자랑하는 철대 파워와 유로엔캡(EURO NCAP) 별 다섯 개(최고 안전등급) 획득의 안전성을 모두 갖춘 진정한 SUV이다. 캡티바 2.0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으로 최고급 세단에서만 적용되는 EP(전자식 파워 브레이크), 동급 최초의 스티어링휠에 에어컨 및 히터조작 스위치 장착 및 측면 충돌과 탑승객의 머리를 보호하는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적용 등 SUV의 본질을 추구했다. 2,608~2,826만 원 www.chevrolet.co.kr

유일무이한 스포츠 픽업, 쌍용 코란도 스포츠 출시



쌍용 코란도 스포츠는 넉넉한 5인승 탑승공간과 실용성이 뛰어난 대용량 적재공간을 확보해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이 가능하고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레저 유틸리티 비극이다. 쌍용차는 이런 유니크한 포지션을 코란도 스포츠의 장점으로 어필하며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국 도로 여건을 감안해 개발한 한국형 e-XD200 액티브 엔진 및 6단 자동/수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수동변속기 모델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15.6km의 연비를 확보했다. 2,041~2,723만 원 www.smotor.com

제10회 MAXIM 무료 티핑 당첨 독자는?



제10회 당첨자 및 소년 독자들의 렉스턴 슬라그드 티핑 후기



맥심 독자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나 역시 제군들과 비슷하게... 군대에서 만난 맥심의 성으로 무사히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후에도 꾸준히 맥심의 성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가식 없이 솔직히 이야기 하리라면
나 솔직히 슬라그드 티핑 받고 싶소!
여친과 데이트 할 때마다 차 안에 숨기 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싫고!!
운전할 때마다 눈부심에 눈을 질질 흘리기도 싫소!!

내 약속 하나 하리다!!
이번엔 맥심이 주는 선물을 받고 열심히 살리다!!
맥심이 날 좀 책임져주지 바라오...ㅋㅋㅋㅋ

-프린터서 이종훈-

MAXIM 독자 중엔 스포티파일을 모는 이들이 유독 많다. 당첨자 중에서도 벌써 3명째 대제 한타(타자는 MAXIM에 광고를 하지 않고 미디어 하고 있는 간개) 당시의 스포티파일에 슬라그드 티핑을 뿌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 당상을 책임지러니 후시 MAXIM 편집부 중 누가까지 당시를 책임져야 할 만한 몫을 지어라도 한 건가? 예컨대 중에 몇몇 예에서는 현재 한 명 뿐이나, 당상을 기약하지 못했다는군. 아마 당상에게 몫을 짓을 한 건 글썽해서 오늘 맥이 네 김희정 예뻐다가나, 너무 오래 굴은 소컷 예뻐다했지. 어느 쪽이든 정말 미안하다. 슬라그드 티핑을 버릴테니 부디 고소는 하지 말기 달라. 그치거나 사진을 찍어준 건 당신의 여간인가?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그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기술인 '스퍼드라'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브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그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2. 1.22 ~ 2012. 2.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티핑 시공 (전면 시공, 즉 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 1. 메야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용기 나오면 더 좋다.
-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HOMETOWN HOTTIES

2011
WINNER

MAXIM USA



수천 명의
아가씨가 이 한 자리를
위해 MAXIM의 문을 두드렸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을 뽑는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2011년의
챔피언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이름은:

**DOMINIQUE
STORELLI**

BY STEPHANIE RADVAN



2011 HOMETOWN HOTTIES

도미니크 스토틀러

생일:

10월 17일

태어난 곳:

미국 플로리다 주 포트 린데일

올타운 히타스 대회 참가 전

사진 디렉터가 되기 위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다.

내 고향 자랑:

해변, 항구, 그 모든 게 색다른 곳.

팬소 옷차림:

진 티셔츠 그리고 노브래

애창곡:

AC/DC의 '당신은 나를
밤새도록 흔들어대네요'
(You Shook Me All Night Long)

비선호 직업다:

바닷가의 나무 판잣길,
가서 작업을 걸어오면
어쩐지 상당히 불편하다.

최고의 직업 가이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줄 것.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이게 다가
아니재





WATCH THIS!

허전한 오후의 온도를 높이고 싶다면 당신의 손목부터 채우자.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루미노스(www.luminoswatch.co.kr 02-3141-4117)

대니시디자인(www.danishdesign.co.kr 02-3397-7100)

갤러리 워치(www.galleryclock.co.kr 02-3284-1300)

잉커솔(www.ingersoll.kr 02-3397-7100) 알바(www.albawatch.co.kr 02-6002-3827)



LUMINOX 1822 FIELD DAY DATE

47mm의 큼직한 알맹이에 배터리를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EOL(End of Life)기능이 있는 스위스 멀티주얼 퀴츠 무브먼트를 사용했다.

루미노스가 유명해진 것은 학주의 두발 검사만큼이나 엄격하다는 미군 시방서의 MIL 기준을 단숨에 만족시키고 US 아미(ARMY)의 특수 군용 시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다. 지금은 스페이스 서를 계획에 발맞춘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구 밖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녀석을 개발 중이라니, 이젠 외계인 손목까지 장악할 모양이다.

가격 770,000원

ZEPPELIN
FLATLINE 7362-5

정장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시계를 찾다가 연봉과 맞먹는 터무니 없는 가격 때문에 망연자실한 사회 초년생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 새롭게 론칭된 제플린 워치는 비행을 모티브 삼은 유선형 외형에 비행기 계기판을 떠올리는 백판을 부착시켰다. 최고급 독일 셸프 와인딩 루브먼트를 50만 원대에 만날 수 있다니, 제플린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건지도...

가격 544,000원



DANISH DESIGN
COPENHAGEN IQ12Q929

간지가 풍기지 않으면 제아무리 명품이라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패셔니스타라면 디자인 하나로 세계에서 빵먹는 데나시 디자인이 정답이다.

데나시 디자인은 디자인계의 '절하 제일 무술 대회'급인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008년 시계 부문을 석권하며 순식간에 덴마크에서 침 좀 뱉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런에 출시된 코펜하겐 시리즈는 세련된 디자인, 10가압 방수에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더했다. 덴마크를 모티브로 삼았다면서 색시 생강말이 소녀는 형상화하지 않은 거야?

가격 380,000원





INGERSOLL BOONVILLE IN2705WH

잉거솔은 1892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시계 브랜드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해온 미국의 타임캡슐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 벨트는 아프리카 여행 중 스스로를 '잉거솔 시계를 만드는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짜는 간지도 잉거솔 마니아였다. 이 녀석이 오리지널 간디 작살 아이템인 셈이다. BOONVILLE 모델은 잉거솔 특유의 문페이스 오토메틱이 한눈에 보이는 스텔리엔 디자인으로 앞뒷면 모두에서 시계 내부를 볼 수 있다. 시계 인을 자꾸 들여다 보게 되도 귀찮증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 것.

가격 480,000원

ALBA ACTIVE GENTS AF3E91X

제시가 알바는 물론이고 '알바'라는 녀석은 확실하 발기 원성한 젊은 수컷의 마음을 뒀을 줄 안다. 술만 먹으면 아스팔트에 거침없이 슬라이딩해대는 청년이라면 외관부터 뺏속까지 얼크와 꼭 빼 달은 이 녀석이 필요하다. 기스에 강한 스테인레스 베젤에 알람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탑재했으니 걸과 속이 알찬 것이 오랑만두 저리 가라다. 어두운 곳에서는 아광 루미브라이트 기능으로 푸른 에메랄드 빛이 발현되니, 이거 걸크가 아니라 그린랜턴인데?

가격 240,000원



WATCH OF THE MONTH



벨렌타인데이 선물로 받고 싶은 엘리베 뉴 모델 49081 워치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엘리베의 신모델 49081을 국내 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 지역으로 본거지를 옮겨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엘리베 워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2012년 S/S 컬렉션의 출발을 알렸다. 엘리베의 49081 모델은 독특한 옹두 커버가 눈에 띄는 아이템으로, 크로노그래프(스톱 워치) 기능이 있으며 3시 방향 패퍼줄 캘린더DATE로 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탁한 브라운 컬러 밴드와 화이트계단, 그리고 지름 43mm의 케이스로 세련미를 더했다. 여자에게 선물 받으면 좋겠지?
문의 02-3397-7100 (거노코퍼레이션)



ALBA의 디지털 신모델 국내 출시!

알바에서 트렌디한 디자인의 고기능 디지털 워치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출시된 제품은 경치미한 원형 디자인에 풀리우러닝 스트랩을 더해 활동성을 높였다. 세계 주요 39개 도시의 시각을 표시하는 월드 타임 기능, 99회까지 리피트가 가능한 타이머 기능, 문자판의 자동 온-오프 시간 설정이 가능한 예고 기능, 5대일 알람 설정 기능, 30개까지 설정 가능한 스케줄 알람 기능을 지원한다. 기능 변환 시 스크롤 형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작하기가 간편해 기능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어 커플 시계로도 좋은 제품.

가격 화이트 24만 원 / 오렌지 26만 원 모두

02-511-3182 www.albawatch.co.kr

ZEPPELIN WATCH(제플린 워치) 의 LZ127 트랜스앰블렉틱 컬렉션

독일 항공학의 선구자 기르프 제플린(GARF ZEPPELIN)의 비행선 디자인을 모티브로 선보이는 제플린 워치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LZ127 트랜스앰블렉틱 컬렉션은 독일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클래식한 외관과 항공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다이얼 포인터가 돋보이며 품질과 기능 면에서 뛰어난 제품이다. 42mm 사이즈에 ETA G15.261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는 스크래치에 강한 미네랄 글래스를 사용해 외부 충격에도 끄덕 없다. 또 5ATM 생활 방수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해 편의함을 더했다.

가격 544,000원

문의 02-3284-1300

(갤러리아몰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여성을 위한 루미녹스 colormark 7065

화이트데이 선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시계가 나왔다. 루미녹스 colormark 7065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아웃도어 환경에 강한 워치를 원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여성 고객을 위해 특별 제작해 다양한 컬러의 인덱스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직경 36mm의 견고한 PC 파이브클래스 케이스를 코팅 처리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블랙 리버 스트랩으로 착용이 용이하며 200m 방수 기능은 물론 케이스 내부에 정교한 스위스 멀티주립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 잡고 있어 강력한 파워모션을 선사할 것이다.
가격 44만 원 문의 02-757-9866

(미림시계)

CASIO BABY-G의 빅 사이즈 듀얼 일루미네이터 모델

작고 귀여운 시계 베이비지에서 크고 볼드한 새로운 베이비지 모델의 컬렉션을 출시한다. 듀얼 일루미네이터(타이트는 어둠 속에서도 디지털 화면과 다이얼이 잘 보이도록 밝혀준다. 라이트가 발광하면 디지털 화면의 질러도 달라진다. 외부 충격에도 거뜬한 내충격 구조와 200m 방수. 전세계 48개국의 시간을 나타내는 월드 타임, 3인의 멀티알림 기능 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게다가 이백~

문의 02-3143-0718 (지코스토)



SMOKE&DRINK

그녀를 사로잡을 액체 5

올해도 초콜릿 못 받았다고 울고 볼며 술 처마시다가 팔라델 건개
우린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 (아, 뽀늬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1 라데일에 함께 취하라, 갈루아 사원

커피의 은은한 향과 맛, 달콤함이 느껴지는 갈루아에
상큼한 레몬주스를 합성시켜 당신의 맑은 날을 양양하게
만드는 법: 얼음을 가득 채운 셰이커에 갈루아와 레몬주
스를 2:1 비율로 넣고 설탕 시럽을 약간 더해 셰이킹한
다. 셰이킹한 것을 얼음으로 가득 채운 글라스에 따르고
레몬으로 장식

2 달콤한 과일 향으로 그녀를 사로잡자

레몬드레일에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포스피
모스카토 다스티 밸런타인데이' 패키지를 출시했다. 포
스피 모스카토 다스티는 모스카토 품종 100%로 양조
해 섬세한 과일 향과 달콤한 맛, 5.5%의 낮은 알코올 도
수로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와인이다. 이번 패키지는
삼메인 글라스와 함께 구성했다. 6~8°C 정도로 차갑
게 보관한 후 과일이나 케이크, 마카롱 같은 달콤한 디
저트와 곁들이면 더욱 좋다.

가격 2만 원대 문의 02-3497-6888

3 착한 남자로 둔갑하라, 착한 립튼!

마음이 고요히 남자와, 가슴이 예뻐야 여자가! 120
년 전통의 차 선드 브랜드 립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
한 차 재배를 약속하는 열대우림동맹(RA) 인증 마크를
부착한 옐로 라벨 홍차 제품을 국내에 출시했다. 열대
우림동맹은 인위와 자연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비영리 기관이다. 당신과 그
녀의 '지속 가능한 육신 명량'을 위해서라면 평소와 안
한는 착한 소비도 좀 해보자.

문의 080-041-7100 www.lipton.co.kr

4 물부터 챙기자, 안상수 아니고 홍삼수!

물이 생화학대이트할 거 아니냐? 홍삼 캡슐을 끼니
때마다 섭취해야 마감을 버리는 편집장과 시문서 독
거 노안이 도어는 불쌍한 편집부 직원들을 보니 '벌
어먹을, 이거 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송화수 홍삼'의 홍삼수는 몸에 좋은 홍삼을 가깝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게 맥 형태로 판매된다.

문의 070-7753-7788 www.songhwasu.com

5 와인으로 주문을 잡자, 스멜바운드!

'개혹시간' 마법에 걸린?이란 뜻의 스멜바운드는 전
통의 와인 메이커 가운데서 문디비 패밀리가 만든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다. 포티 시라 품종 특유의 레드와
일 향과 풍부한 신이, 타닌의 밸런스가 좋은 질드 와인
으로, 목직인 질감과 물결같이 매력적이며 먹고 자극적
인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가격 5만8천 원 문의 02-5355-8407



LOVE IS DRINKING

취하면 상대의 못난 외모에
대해 덜 신경 쓰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걸 뭐
연구책이나... 비싼 대학 등록
금이 이거 하고 있고 아무
튼 애이고 마시고 들어대~!



6:00 PM 10:00 PM 1:00 AM

걱정 마. 취한 그녀 눈엔 당신도 이렇게 보인다.

포터에서 스타우트까지 #2

지난 달의 포터 이야기에 이어
이번 달엔 더 강한 걸로 넣어주겠다!
스타우트 이야기! 스타트!
▶ 이윤석 (이윤식) | www.wobor.co.kr



STOUT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스타우트’는

엄밀히 말해 ‘이 스타우트’와는

전혀 다른 녀석이다.

오늘날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흑맥주 병에서는 종종 ‘스타우트’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달에도 언급했지만 원래 ‘스타우트’는 그 어두운 색깔과는 전혀 무관한 명칭이다. ‘스타우트’는 원래 18세기 양조장에서 만든 가장 독한 포터 맥주를 일컫는 말이었다. 시간이 흘러 포터가 유럽에서 쇠퇴하고 결국 가장 강한 포터만 살아남아 스타우트(포터)가 하나의 맥주 종류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커피와 맥주의 짝꿍

검은 색의 포터가 등장한 것은 18세기다. 양조업자들은 브라운 몰트보다 페일 몰트를 전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페일 몰트의 발효성 당분이 나무로 건조한 브라운 몰트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일 몰트는 색이 옅기 때문에 짙은 색을 내는 첨가물이 필요했다.

이러저러한 첨가물들을 쓰던 중 해결책이 나왔다. 1817년 다니엘 홉러가 만든 몰트 건조기가 답이었다. 그의 새 건조기는 커피 볶는 기계의 원리를 이용했다. 덕분에 약 200°C의 고열로 몰트를 건조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만든 몰트는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었는데, 발효성 당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소량만 첨가해도 맥주를 신비하게 변화시켰다. 항상 일정하게 검은 색깔을 내는 것은 물론 전혀 새로운 맛이 추가했으니 이게 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약간의 훈제란 듯한 맛과 함께 쓴 초콜릿과 커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터나 스타우트를 마실 때 기대하는 바로 그 것이었다.

특히 몰트(Patent malt)로 불린 이 새로운 몰트는 포터 양조 산업을 완전히 바꾸었다. 기업형 양조업의 선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맥주는?



자 휘트브레드스는 힐러의 건조기가 발명되자마자 그 잠재력을 간파했다. 1871년 그 해 전례 물드 제조사인 프랜치 & 주프 시(French & Jupp's)는 바버킨 양조장 바로 옆에 특허 물드 공장을 건설해서 그날 그날 양조장에 특허 물드를 공급했다. 비클레이 퍼킨스 역시 1820년부터 색을 내는 첨가를 대신 다른 물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검은 맥주 전성기

19세기 중반 포터는 오늘날의 모습을 완성한다. 여러 가지 맥주를 섞어 만들어서 색과 맛이 다양했던 포터는 이제 하나의 맥주(Mash)에서 만든 검은 맥주가 되었다. 또한 색을 때와는 달리 잘 숙성된 맛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곡식과 많은 양의 호프를 사용해서 쓴 맛과 함께 부드럽고 다른 물드의 맛을 띠었다. 이미 포터 양조는 런던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너무나 큰 사업이 되었다. 런던에서 만든 포터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 수출되었고 그 지역에서의 포터 생산을 자극했다. 런던 양조업자들의 진출은 인근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드래일(Draile) 양조장을 선두로 많은 양조업자들은 발트해 연안국과 러시아에 수출용으로 만든 강한 포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런던에서 폴란드의 단짜히(Danaj)까지 그리고 그거기 브트해해를 경유해서 러시아에 이르러는 긴 여정을 거쳐야 했다. 수출용 포터는 인기가 좋아 아프리카의 공경에서도 즐기는 맥주가 되었다. 크림전쟁(1853~56) 당시에는 러시아 군대에라도 공급되어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 중 바클레이 퍼킨스의 스타우트는 러시아 왕가의 공식적인 품질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상표를 러시아인 임페리얼로 지었다. 그의 포터는 매우 인기가 좋아서 예스토나에 발트해 지역을 위한 별도 양조장을 세우야 할 정도였다. 비클레이의 맥주는 오늘날 커리지(Courage) 임페리얼 스타우트로 생산된다.

한편 런던으로부터 유입되는 포터에 자극받은 아일랜드의 양조업자들은 런던의 양조 기술자들을 고용해 생산 기술을 배웠고 포터 생산에만 매달렸다. 지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항쟁을 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양조 산업은 특히 양조업자들이 런던에서 흡수차별 밀러드는 포터를 막으려고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코르크(Cork)와 더블린(Dublin)을 통해 들어오는 브리스틀 양조장의 맥주 역시 그 대상이었다.

기네스, 그 역사를 시작하다

아서 기네스는 1756년 칼레어(Killear) 카운티에 있는 작은 양조장을 시작했다. 3년 후 그는 더블린으로 가서 버려진 양조장을 임대해서 썼다. 1787년 당시 기네스는 아일랜드를 통해 모두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1799년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예일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였다. 포터 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코페는 벨마스트 출신의 윌리엄 비쉬와 아일랜드 코로포드가 있었다. 그들은 쇠기와 바터를 팔기 위해 코페도 들렀다가 우연히 매년 60,000배럴을 이르는 영국 포터가 코크항을 통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양조를 하기로 결심했고 1792년 부지를 사들였다. 비쉬+코로포드의 기네스의 사업은 모두 대성공이었다. 19세기경에는 두 회사는 대영국과 아일랜드 내에서 가장 큰 회사였다. 비쉬는 연간 100,000 배럴을 생산했고 기네스는 66,000배럴을 생산했다.

나폴레옹 전쟁과 아일랜드 대기근(1845~56)에 이은 경기 후퇴는 유럽 경제를 파탄에 몰아 넣었다. 비쉬와 기네스 역시 시장의 침체를 알았다. 이때 이후 비쉬는 과거의 지배적인 위치를 되찾지 못했지만 기네스는 사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수로와 세 배 놓인 철도를 이용한 내수 시장 개척과 영국 본토와 식민지의 공격적인 수출 정책을 병행하게 이용한 것이 기네스의 재기 비결이었다.

아일랜드가 산업화의 길고 고통스런 과정을 시작했고 영국은 도시의 새로운 노동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에 걸쳐 대리점과 병입 가게를 세움으로써 도시 이외의 시장을 개척했다. 갓 양조된 포터는 캐스크에 담겨 바버킨에 싣히고 수로를 따라 운송되면서 숙성되었다. 회사의 대리점에 도착하면 드레프트 또는 병의 형태로 바로 마실 수 있었다.

기네스의 주요 맥주 두 개는 캐스크에 표시된 맥스(X)로 구분되었다. 맥스 1개(X)는 보통 플레인(Plain)으로 부르는 포터였다. 아일랜드에서 주로 마시고 리버풀의 아일랜드인 공동체에서 마셨다. 맥스 2개(X)는 스타우트 포터 또는 더블 스타우트를 의미했다.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아서 기네스의 아들, 아서 2세는 아버지의 사업을 확장했고 맥스 레시피도 약간 바꾸었다. 19세기 초에는 세균이 알코올 강도가 아니라 물드에 부과했다. 아일랜드인들은 런던 정부에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서 2세 역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물드만 들지 않은 곡식과 세균이 부과되지 않는 무른 보리를 섞기 시작했다.

한편서 감게 만든 보리의 강한 맛은 맥주에 독특한 향을 더하고 쓴 맛, 과일 맛을 더했다. 드라이 아일랜드 스타우트(Dry Irish Stout)로 알려진 스타일은 이렇게 등장했다. 곧이어 다른 양조업자들이 기네스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 포터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네스의 더블 스타우트는 영국에서 만든 색이 짙은 맥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맥주로 자리잡았다.

아서 2세는 또한 식민지 시장을 위해 호프를 전득 집어넣은 강한 맥주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인 맥

스트와 포터 스타우트(Foreign Extra Porter Stout)였다.

후에는 로인 엑스트라 스타우트로 불렸다. 기네스는 빠르게 성장했다. 1865년에서 1906년까지 생산량은 116,425배럴에서 778,959배럴로 증가했다. 양조장은 1870년대에 다시 지어만 했다. 수요를 감당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네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양조장이 되었다. 기록은 나중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새로운 양조장들에 의해 깨져지만 여전히 기네스는 세계 양조 산업에 강자로 남아있다.

전쟁과 맥주

1차 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맥주 양조를 엄격히 규제했다. 알코올 강도는 낮게 해야 했고 양조업자들은 많이 건조한 드크 물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군수 산업에 많이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기가 떨어질 예일의 등장으로 이미 쇠퇴하고 있었던 포터는 자유 낙하 상태의 굴처미 곤두박질 쳤다.

자지 운동(Home Rule)이 본격화하기 직전의 아일랜드에 영국인들은 그러한 가혹한 규제를 부과할 수 없었다. 알코올 강도는 낮아졌지만 영국에서만큼은 아니었다. 여전히 배일 물트와 다른 물트가 양조에 쓰일 수 있었다. 아이리쉬 스타일은 변형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한 스타우트라고도 독립국가 아일랜드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



화려하거나, 기발하거나

BY 유승민 PHOTOGRAPHS ARC STUDIO

블과 1년 전만 해도 담배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별세계가 될 줄은 몰랐다. 그 때도 참 많은 담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흡연자들의 선택지를 가르는 요소는 초리명명했다. 피우면 담배에 그냥 계속 피우는 '습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선호. 아주 '악안의' 맛 차이? 정도였다. 맛 차이가 있다 해도, 논 가지고 말보로와 연함을 구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렇듯 골지의 담배회사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도 사실 소비자들에게 담배는 '숙취' '그게 그거'였다. 좀 과장하면 똑 같은 맛의 담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브랜드가 그저 '이미지' 경쟁을 벌이던 시장이었다. 마치 똑같은 기름을 가지고 SK와 S.O일일 경쟁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기름회사들은 팔뚝 뻗겠지만, 사람들은 누가 '좋은 기름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비슷한 담배를 때 되면 이름만 바뀌어서 출시하면 예전의 담배판이 아니다. 자사 브랜드에 대한 중성성에 기대 가지려던 시대는 완전히 가버렸다. 초저타르 담배가 대박을 치고, 멘솔이 다양성의 불을 지피기 시작한 지 삼수년. 온갖 고안도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신선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피 튀기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2월,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서 뿔이 하고 눈에 띄는 녀석은 이 다섯 가지다.

1 10년 묵은 고양이, 병인이 풀린다. RAISON FEVER

자난해, 레중은 원색 가득한 패키지 라뉴업과, 최초로 담배 케이스 바깥 비닐팩에 그림을 그려넣는 파격을 감행했다. 사실 처음에 그려진 그림은 어딘가 2%, 부족했다. 고양이가 디제잉을 하고, 외버우스의 락도 있고 했는데, 그런 '이게 대체 뭐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번엔 색깔이 넣어져서 산타를 만들고, 만화적인 요소를 등록 가미했다. 눈길만 안 갈 수가 없다.

아, 이거구나! 매년 기본 케이스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비닐 위에 그림만 바꾸어도 일년에 몇 번이고 케이스 디자인을 리뉴얼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마치 가림이다 테마에 맞게 변하는 Google, NAVER의 로고처럼 말이다. 레중 고양이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산타로 분장했고, 2012년이 되면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이슈에 따라 해변의 고양이도 되고, 월드컵 축구선수도 될 지도 모른다. 10년동안 확실하게 굳어있던 고양이에게 비로소 생장력을 불어넣는 거다.

2 멘솔의 명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TIME HUMMING

멘솔 대중화의 일등 공신은 TIME이었다. 멘솔하면 TIME이 있었으니, 온갖 담배들이 경쟁한 멘솔들을 내 놓으면서 여기 저기 떨고도 근근이 영생한 유지하러던 왕년의 대세 TIME이 다시 한번 멘솔로 승부를 걸었다. 수컷이라면 화학 제품으로 바하 맛을 낸 멘솔 담배가 정자 꼬리를 질러내려 애써내려 하는 무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다. 때문에 흡연자들은 지금까지도 영 평범한 마음으로 멘솔을 피운대디터는 가끔

호흡도 사방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한바... TIME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바하와 화학물질이 아닌 프리미엄 '천연' 멘솔로 무장하고 나온 거다. 디자인에도 승부를 걸었다. TIME의 패키지의 특을 지키면서도 시원한 푸른색 바닷속에 서 수면을 울리다 보고 있는 듯한 물결 패턴으로 보기만 해도 상쾌할 것 같은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멘솔의 명가 TIME이 다시 왕좌를 탈환할 수 있을 지 주목해보자.





저런 그냥
치킨이랑 맥주데요

3 "땡치지 마. 그게 말이 되나?" KENT CONVERTIBLES 1mg

담배를 피우다가 필터를 클릭하면 연설로 바뀐다는 말이 친구들 그렇게 대담했다. 혁신의 결정체는 뭐니뭐니해도 필터 속의 캡슐이다. 버튼을 누르면 연설로 바뀌는 담배라니, KENT는 담배라는 아날로그적인 물건에 클릭버튼을 넣고, 부스트를 달고, 컨버터를 로 만들었다. 이 획기적인 기술로 KENT는 담배를 거의 전자제품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거의 모든 담배 제조사들이 이를 흉내낸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산짐-자배'의 공식처럼 KENT는 '아이스블라스트'나 '스위치니' '팝'이니 하는 유사 제품들을 누르고 변신 담배의 지존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3집 앨범쯤에 갑자기 뜨는 대만산형 가수처럼 국내에 들어온

지 어려개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 순간에 월드스타가 된 거다. KENT 클릭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으로 리뉴얼한 패키지 디자인도 대성공이었다. KENT는 원래 질자란 영국 영문가 자체의 느낌이었지만, 크롭은 도금한 듯한 버튼과 빛나는 하이리시로 무장한 SF전사가 되어 돌아왔다. 이번에 나온 한세 1mg 컨버터블은 마치 애플의 심플한 스마트폰 기기처럼 번실했다. 가히 담배 디자인의 절정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KENT 1mg 컨버터블의 맛은 끝내... 솔직히 말해서 캡슐을 터뜨리기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건... 나 그런 거야?

4 "네, 저런 지금 다 팔리고 없어" BOHEM CIGAR MOJITO

보행 시가 모히또를 달라고 했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 사람, 아마 꽤 있을 거다. 2011년은 정말이지 보행 시가 모히또의 해였다. 동명산기 앨범도 아니고, 출시되자마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담배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출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편의점 담배 진열장의 한 줄을 보행 시가 모히또가 땡땡로 차지했고, 그제 다 품절돼서 진열장 한 줄이 텅 비어있는 진동경을 연출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바깥 패시비지에도 마법 같은 특수효과를 입혔다. 겨울이 되면서 두꺼운 고급 비닐 감질에 예쁜 눈꽃 무늬를 입혔는데, 신기한 것이 눈꽃 무늬를 만지면, 상큼한 모히또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거다. 2012년에도 보행 시가 모히또는 2011년에 그렸던 것처럼 수많은 연설 담배들을 쟁쟁히 역경했다.

5 넘사벽 보레버 ESSE SENSE

ESSE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수라장 같은 담배의 강호를 평정하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명실상부한 '지존 담배'다. ESSE가 판매량 1위 자리를 차지한 이후로 담배 시장은 2등 거기서 싸움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굳어진 게 벌써 몇 년 됐인지 거뜬히 나지 않는다. 가랑 조용필처럼 그대로 앉아 굶어나 보고 딱이나 먹어도 좋으시려면 ESSE는 마치 산인 아담 같은 자세로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디자인 뿐이 아니다. 슬림형 담배 중 최초로 공간 필터를 사용했다. 공간 필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리아트를 떠올리는데, ESSE는 그 공간 필터를 얇은 담배에 이식했다. 몹시 혁신 기술이다. 마치 '마음만 먹으면 난 내내가 하는 거다' 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인 걸까.

어떤가? 필터를 클릭해서 맛을 바꾸고, 비닐 패키지에 그림을 그리고, 담배에 천연 박하를 넣고, 문지르면 티니고, 빨대처럼 얇은 필터의 속을 비운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다. 이 속도는 마치 첨단 스마트폰 기기 시장의 경쟁을 보는 듯 하다. 앞으로 또 1년, 후면 대체 어떤 담배들이 나오게 될 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세상이 온통 금급연만 해도 우리 흡연자들은 행복하다. 일찍이 담배를 끊은 변절자(?)들은 경멸하지 못할 혁신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거니까 부럼치?





ICON

LEE CHUL MIN

강렬한 눈빛과 태연자약한 태도로 화면을 잡아먹는 '신스틸러' 이철민이 MAXIM을 접수하러 왔다.
(혹시 정가구독 신청하러 온 거였나?)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곽영은 STYLE 조대현 FILM 김민욱

COOPERATION 태남연세물라이 by 윌프르렌 캐스팅/발모우(02-546-7764) 시스템올리(02-546-7109) 윌업모나리(02-516-3993)
티브(02-349-9530) 루루엔(02-3456-9066)

당신의 포스를
영상으로!





슈로 시스텔음으
서츠 귀스담벨로우
타이 클럽 모나코
시계 티쏘
구두 르루렌

약속 시간보다 그가 일찍 도착했다. <SNL 코리아> 생방송 하루 앞둔 그는 연습하다가 왔다고 했다. <캐리비안의 해적> 조니 뎀을 연상시키는 강하고 진한 아이아인을 보고 물었다. “화장하고 오셨나봐요?” 덩덤하게 그가 대답했다. “원래 이런데요?” 원래 눈빛이 그런 남자, 이철민과의 이야기다.

91년 입문해 감독의 영화 <개박)>으로 데뷔했다니 벌써 20년 이상 배우로 산 생애다.

<개박>에선 인 10개를 했다. 포출 중 1인 양반 중 1인... 잘 보면 보인다. <개박>에 나온 내 배역 10개를 모두 찾는 사람에게 상 주고 싶다. 그런데 사실 <장군의 아들>가 먼저다. 임 감독님이 <개박>을 찍다가 중간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필요해서 <개박> 배우 중 몇몇을 골라 쓰셨다. 난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고.

오, 스타 특용은 <장군의 아들> 시리즈라니!

당시 오디션 참가자 중 유단자나 진짜 조폭도 있었다. 만 사람들이 오디션에서 둘러싸기. 경쟁자들이 선보일 때 나는 재주가 없어서 알뜰하기를 했다. 감독님이 ‘무슨 뜻하네 눈빛이 맘에 든다’며 뽑으셨더라고요.

거친 역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뭐 잘 안 걸지 않나?

아니라고 못했겠다. 조금 무서워하긴 한다. 첫 약역이 95년 <젊은이의 양자> 때다. 졸업하고 첫 촬영이었는데 그 이마가 간혹사(간혹) 그 뒤로 약역이 줄어 있었다. 96년 <첫사랑>에서는 순진하고 나름 귀여운 주범보조 역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 못하더라.

<눈의 여왕> 배역 소개엔 현민이 다니는 체육관의 옆 어서는 안 될 웃음보따리라고 적혀 있다.

원래 현민을 괴롭히는 약역이었는데 대본 리딩할 때 재미있는데 <드림보>를 넣어서 배역이 재미있는 걸로 바뀌고 약역 탈출에 성공했다고 장진 감독님 영화에선 약역은 별로 없고 코미디가 많았다.

‘장진 시간’이라는 수식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창피하다. 장재영, 임원희, 류승범... 그 분들은 다 잘해서 지금은 장진 감독 품에 둘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론 장진 감독님은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이미지를 보일 기회를 많이 준다. 고맙게 생각한다.

<황해>에선 사체를 토막 처던 부하들에게 김승옥이 데 연하게 “대기리 따로 버리고 나머지 게 쥐주라”라는 대사를 남겼다. 그 앞에 앉은 ‘최 시아’(<이철민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끼리 찍을 땐 재미있었다.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 원래는 내 귀가 잘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편집됐다. 토막은 겨우, 귀저는 겨우 나머지 거건데 말아야. 야. 참고로 여자가 떨어지실 설정은 빨간 물결을 입힌 대박이게다.

서울에다 연극과 90학번이다. 연기로 진로를 정한 건 본인 의도에 자신이 있어서였나?

난 의도에 자신이 없던 학생 중 하나였다. 걸으면서 세 보이기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보이스카우트 활동 같은 걸 하면 직접 대본을 쓰고 역할을 나눠서 콘트를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다. 글자기는 잘했다. 대학에서 심도 많이 받았다.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개

못하진 않았다. 원래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다. 아버님도 시업을 하셨고, 그런데 고3 때 어머니가 창통 위에 보관한 내 어린 시절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다. 초등 학교 1학년 때 ‘커서 배우가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 유식하게 ‘이철민 배우 만세’라고 마지막에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걸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 돈급없이 연극 영화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 모두 난리였다. 많이 맞았다. 시험도 못 보려 가게 하셨는데 그 때 애타게 한테 3천 원, 5천 원씩 쥐서 그 돈으로 시험 보게 했다.

행 들은 건가?

빌린 거지

안 걸렸지? 뭘 보는 거마다.

대하고 때도 미행해본 적이... 뺑은 아니지.

학교 다닐 때 여자한테 인기 높았나?

대학교 때도 미행해본 적이 없다.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리고 자랑에서 올라와사(안지) 나는 조금 보수적이었다. 내 눈엔 학교 안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친 남녀관 계가 너무 자유스럽고 별로 안 좋아 보였다.

그럼 살레자만 지금 아내분이 그 때 여자친구인가?

아 아니다. 평생 사건 여자가 딱 3명이다. 중학교,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 나의 아내 와이프랑은 재방송 같 이 연극을 하다 만났다. 헤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이던 아내에게 “미자만으로 밥 한 번 먹자”고 차에 태워서 곧장 고속도로로 달렸다. 한 번 타면 못 내 리잖아. 그리고 미친 듯이 곡예운전을 했다. “나랑 살레 죽을래”라면서 겁이 많은 여자의 수험증에서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상태로 대전까지 내리갔다. 거기서 결혼 승낙을 받고 올라왔다.

갑소새 그건 범죄 아닌가? 공소시효는 지난 건가?

훗. 벌써 애가 열세 살이다.

작년 말에 미투데이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남자인가? 아직까지 01 번호에 20분을 쓴다. 미투데이는 매너저 폰으로 하는데 댓글도 직접 단다. 해보니까 재미있다.

장작 본인 뺑까는 기분이 안 좋다고 들었다.

사실 아이는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좀 속스럽더라고 생각해.

최근 SNL에서 기막힌 개미 연기를 선보였다.

나도 놀랐다. 일부러 과장하면 연기라는 게 티가 난다. 약간 여성스러운남 보여주고자 했다.

남자 나이 43세. 당신의 현재 목표는?

아까 SNL에 함께 출연하는 친구 (이해영)랑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다. “뭔가 중에 안 돈 사람들이 나하고 나 밖에 없다.” 90학번 동기 중엔 칠나나는 친구들이 많다. 황정민, 장재영, 임원희, 안재욱, 신동엽... 그들도 야 야기의 결론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길을 택하겠다. 어릴 때는 ‘빨리 나도 저 친구들처럼 편 돼와지라고 생각 했다. 지금은 더 느긋해지고 싶다고 되었다.”

촬영하다 장담 ‘죽겠다’고 말했던 영화는?

<형사 공범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문식 선배와 내가 속한 조폭 무리가 비 내리는 다리에서 싸우는 장면이었다. 여름에 찍어야 하는데 1월로 촬영이 연기됐다. 영화 개장식 여름이고, 나는 건달 역시니 왔든. 무슨 실근 남방 같은 걸 입고 한가을 밤에 비바람속 속에서, 그것도 얼음 같은 실수차 물을 맞으며 촬영했다. 실수차가 물을 뿌리던 비로 얼어버리는 것주워왔던! 그래서 목욕탕 온수를 공수해와서 뿌렸는데, 수증기가 피부 올라서 촬영이 불가능했다. 결국 1년 실수차로 남 수가 얼면 녹이고, 얼면 또 녹여서 5일간 밤샘 작업해 찍었다. 그 뒤로 어떤 겨울 신도 원만하면 참을 만하다.

총영아라고 잘 했더니던 덜 억울할텐데!

그렇게 그 영화를 대학로 영화관에 와이프랑 보러 갔는데, 정말 전세 낸 것만만 관객이 우리 둘뿐이었다. 영화 끝나고 나가는 길에 티격 따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며 날 알아본다. 칭찬했다.

오줌 정말 바쁘다고 들었다.

<아부의 왕이랑> (하어로), <한노드> 촬영 중이고, <SNL 코리아>에도 계속 출연 중이다. 작년 연말까지는 연극 <악역배우 남달구>로 정선 없었다.

영화 끝나고 올라가는 크레딧에서 잠깐 당신 이름의 위치가 위를 향해 올라가라고 했다.

그때 뭘 좀 뿌듯하다. <황해>에서도 내 이름이 4번 때로 나왔다.

‘이철민 배우 만세’



이철미

생년월일: 1970년 7월 11일

애용하는 욕: "대한민국 남자라면 역시 '사범'이지. 사실 마흔 전까진 욕 많이 했다. 친구끼리 친근하게 '아이, 사범아 뭐하니?' 이렇게, 나아가 드니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

성질 죽이기: "운전 중에 밀 받으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세우고 내리는 스타일이다. 상대가 '당신 방송에 나오는 사람 아니야?' 하며 이야기를 댈까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존댓말이 나온다. '그, 그래서요? 근데요?' 라고."

인상 깊은 배역: "SBS에서 모피 입고 나와서 모델 워킹을 했다. 얼마 전엔 게이 역할도 하고,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

외모 관리: "나도 피부과 가서 레이저 같은 것도 가끔 받고, 마사지도 받는다."

국가 안보와 나: "군 제대 한두 달 전에 김일성이 죽었다. 영영 제대 못 해나 싶었다."

“
빌린 거다.
뺨 뜯은 거 아니다.
”



HAPPY VALENTINES DAY!

tVN <코미디 빅리그> '따자남'에서 못 남정네의 마음에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변서는 양이 MAXIM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다. 어머니, 왜 저를 땡가루로 날아주지 않으셨나요.

BY 박현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 UP 교영은 FILM 송중민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 에이치엔비(02-2109-3440) 케이스 언더웨어(02-514-0830) 푸에(02-3443-7808)

순조형(02-3443-7030) 카피(02-2046-8434) 토크스타(02-3444-7712) 코인크루즈(02-772-3258)

말도(02-591-7038) 알고(02-772-9800) 캠퍼스클럽인 언더웨어(02-6911-0638)

코데즈 캠퍼스 베이직(02-776-6385)

Micro
SWEET
No. 1 candy for you
of the whole collection

GO TO
MAXIM
PAD
미공개컷



영상을
더 élvez





이른 아침부터 걸걸한 목소리로 깨워서 미안하다. 촬영장으로 납치당하는 기분이 들지는 않나?
 알람을 세 개나 맞춰놨는데도 꿈을 헤매다 전화 벨 소리에 잠이 깬다. 이동하는 동안 차에서 자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을 거는 등에 지지 못했다. 그 래도 촬영 내내 뻥뻥 터질 만큼 재밌었으니 됐다. 이런 납치러면 얼마든지 당해주지.

촬영할 때 보니 소품을 가지고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잣말을 많이 해서 깜짝 놀랐다.
 나는 생강빵굴 같은 사람이다. 새롭고 달콤하게 동동 튀지 않나? 주변에서 4차원이라는 소리는 슬 하하게 들었지만 내 기준에서는 내가 가장 정상이다.

이렇게 귀여운 처지가 왜 수컷들만 특실거리는 <코미디 빅리그>에 발을 담갔나?
 아는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따자남'의 개그맨 조 우용 오펜과 친해진 덕분이다. <코미디 빅리그 시즌2>에서 새 코너를 팔 건데 예쁜 여자가 필요하 다고 했다. 귀엽고 색시한 데다 화면빨까지 잘 받 는 사람, 그게 바로 나거든!

코너 마지막에 윤진영과의 키스는 대체 왜 하는 것인가? <코미디 빅리그>에서 가장 보기 싫은 장 면이다.

시즌 2에 새롭게 합류하는 팀이기에 뭔가 강한 한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오펜씨의 주장이었다. 근 데 나중에는 키스 신을 없애기로 해놓고도 입술이 들어오더라. 윤진영. 이 나쁜 새...

실제로 따지남처럼 돌이대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그렇게 질해주고 재밌는 멘트를 날려주는 사람이 나만 바라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바람둥이가 대부분이더라.

특이하게 작업을 거는 사람이 있었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바늘이 있냐고 물었다. 지금 당신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 은데 처리리 바늘로 뺨 터뜨려 주면 좋겠다고. 임팩트가 있긴 했는데 잘 안 됐다. 헌팅은 질색이다.

그럼 어떻게 당신을 넘어오게 할 수 있던 말인가?

누군가의 소개, 소개받고 아는 사이가 됐을 때, 계 속 자신을 장점을 보여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이대면 된다. 이벤트도 많 이 준비하고 말이다. 그게 진짜 납치 아니겠어?

쑤우니 티셔츠 뎀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구두 슈즈현

주황색 후드 집업 키라
인더웨어 게스 인더웨어



스튜디오 인소매 서조 랑고
안다웨이 셀빈클라인 언더웨어



외형상으로는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키 크고 덩치 큰 사람. 근육이 없거나 배가 나와도 된다. 덩치만 크면 나이, 직업 다 상관없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작업하나?

나 역시 대놓고 좋아하는 편이다. 대부분 넘어온다. 난 귀여우니까 솔직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웃음.

예전에 <러브 스위치>에 나와서 말할 때마다 "서은이네요"를 붙인 것은 작가의 실정이었나?

완전 애교가 많다. 사실은 남자친구 앞에서만 피우는 애교인데 작가 언니가 방송에서도 해보라고 시켰다. 덕분에 흥대 근처를 배회하면 사람들이 "서은이네요!"를 크게 외치고 도망가기도 했다.

집이 좋대 주변이라니, MAXIM과 이웃사촌이다. 언제 한 번 술 환잔 하자.

'완전 양아치'로 가지. '희한하네~'를 했던 개그맨 한 현민. 이재형 오빠가 운영하는 가게다. 원래는 양꼬치 집으로 그냥 '양아치'였는데, 얼마 전부터 전도 같이 팔아서 '완전 양아치'로 바뀐 맛집이다.

완전 방송인이 꿈이었나?

어렸을 때 꿈은 승무원이었다. 꽤 오래 준비했지만, 지금은 방송 제미에 폭 빠져 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버라이어티를 꼭 해보고 싶다. 고생을 많이 해도 상관없다. '번서은'의 정글의 법칙도 좋다.

방송은 한 방에 흑 가지 쉬운 직업이다. 그 땀 어떻게 먹고살 텐가?

분식집을 열거다. 상호는 '내일 뭐먹지?' 해서 '내모'. 전날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다. 프리미엄 분식집이다.

오래 촬영 콘셉트처럼 남자친구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 준 적이 있나?

완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먹밥, 제육볶음 만드는 것 참은 캬이다.

이번 밸런타인데이 계획이 있나?

아. 화요일이다. <코미디 빅리그> 녹화가 있는 날이다. 하루 중일 녹화하겠지? 쟁쟁.

마지막으로 당신의 열혈 팬이 될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코미디 빅리그> 네이버 미투데이 투표에서 '피자남'에게 한 표를! 웅달샘, 아메리카노가 1, 2위 다해 먹으면 재미가 없다구!



“헌팅은
질색이다”

자주씩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변서은

생년월일: 1991년 1월 31일

신체: 163cm, 42kg

서은이가 좋아하는 세 가지

침대, 고양이, 차

그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잠수, 세상과의 단절

변서은을 보고 싶다면

MN (코미디 빅리그).

OBS (김구라 문화준의 검색네).

〈연예 매거진〉

상의 핑고
언더웨어 엘빈플라인 언더웨어

Blue Ketchup

감성주점 블루케첩



HUNTER HUNTER

헌터

헌터

홍대에서 강생이 좀 탄다는 MAXM 투 톱의 부킹 술집 체험기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권영준

COOPERATION 블루케첩 강남점(02-3477-5353)



남자의 로망, 헌팅

태초에 헌팅이 있었다. 그 옛날, 이몽룡도 방자를 통해 춘향이에게 마음을 전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밥을 먹으면 똥을 싸는 생리 현상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남성이 도전할 용기가 없어 이를 주저하고 만다. 모든 사람이 쉽게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어떨까? 뽀빠라베리 뽀. We No Speak Americano 가 우리 발레 리듬들 실어주기 시작할 때쯤, 신나는 일렉트로닉 음악 속에서 남녀가 자연스레 섞일 수 있는 부킹 술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헌팅하러 온 남자, 헌팅당하러 온 여자. 그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곳. 부킹 술집은 바로 그런 곳이다.

PM 08:10 선수 대기실



MAXIM에서 일하며 퇴근 후 이어진 몇 번의 술자리에서 여러 번 합을 맞춰본 에디터와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군. 각자의 친구와 로드 헌팅 경험은 몇 번 있지만, 부킹 술집은 둘 다 처음이었다. 베크덤 프리리크를 차기 전에 운동화 끈을 묶는다고 했다가, 이 프로젝트 위해 우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최근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 송대섭 피아를 시술받은 것도 모자라 공격력+15 상승한다는 검정 코트로 전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다가는 여자들보다 먼저 정신을 잃을 수 있기에, 물의를 하나 빨리 털고 투입하기로 결정. 숙취 해소의 최고보이라는 '여명'을 단숨에 들이켰다. 장바도, 채력도, 마음가짐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PM 09:10 경기 시작-탐색전



한터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센터에 있는 H(Hot Body) 네 명, 계산하는 쪽의 HB 두 명을 스캔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그나마 짝수리 일행은 포그그래피까지 3명)가 엄중 맞는 두 명 테이블을 공략하기로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영준 군이 자리를 박차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려는 찰나였다. "손님, 여기서 직접 헌팅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 큐피드 카드를 이용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종업원의 제지에 그의 아랫도리는 수그러 들었다. 그간 패퐁아 스타일을 고집하며 반 강제적으로 여자들을 넘어뜨려 온 영준 군은 이런 신사적이고 간절한 만남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며 구시렁거렸다. 30여 분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손발이 오그라들며 질려나갈 듯한 카드 두 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벨을 눌러 종업원을 호출했다.



종업원이 여자 테이블 쪽으로 가 카드를 전하며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접 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말 뒷차리를 꺼리고 학교에 간 것처럼 인절부절못하고 손에 땀이 고였다. 30년 같은 30초가 흐르고 종업원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손짓을 보내왔다. 야, 드디어... 우리는 합석을 대비해서 한두 모금만 마시고 야근도 스미노프를 쥘 것이다.

← 큐피드 카드 2,000원



PM 08:35 선수 입장

아직 이른 시간인지 등성등성 빈자리가 보였다. 주변을 스캔하는 행위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운데 자리보다는 얼피까지 앉아 정체를 숨기고 매의 눈으로 먹이를 탐닉할 수 있는 출입구 쪽에 등자를 들었다(출입구로 들어오는 여자를 스캔하기도 쉽다. 대충 둘러봐도 낱겨 생비가 19. 완전 여탕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적절한 술 선택이 최고의 무기로 탈바꿈한다. 먹다 보면 아비 어미도 몰리겠다는 알은병이 술의 대명사 스미노프 보드카를 주문했다.

← 스미노프 보드카 36,000원
에이블 칩보틀은 14,500원



큐피드 카드

카드 앞면에 테이블 번호, 내케임 사명이 가득한 메시지 등을 적어 종업원을 통해 마음에

드는 테이블에 전달한다. 비싼 안주와 함께 전달하면 성공률이 더 높다. 받은 큐피드 카드는 계산 시 1장당 1,000원씩 할인해준다. 얼골 예쁜 처자들은 쌓인 카드로 술값을 왕왕 할인받는 거다. 술값이 외모와 반비례하는 이 불편한 진실...

합석할 경우, 각자 마시던 테이블을 따로 계산하고 합석한 테이블에 새로운 한 상을 차린다(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남자들이 계산하는 게 예외, 이전 테이블에서 술이나 안주가 많이 남아있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PM 10:15 본 경기



여자 A: 아까부터 여자자(가)서 사진 찍으시던 분들 아니세요? 뭐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영준: 눈썰미가 좋으시네. 혹시 할아버지가 몽골족 아니세요?

여자 A: (헛 타진다) 아, 뭐예요. 진짜로 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라: 잡자서 에디터예요. 여기가 허도 재밌다고 해서 취재 나왔어요. 근대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부터 당신들 취재할래.

여자 B: 하하하. 근대 왜 하필 우리 테이블에 왔어요?

영준: 여기서 제일 예뻐요. 셋이 회의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였어요.

여자 A: (기분 좋아졌다) 우리 둘 중 누가 마음에 드는 데요?

영준: 아직은 양생 반, 프라이드 반. 반반이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같이 한잔해요. 뻘~

각 지역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한터답게 지루할 틈 없이 적절히 치고 빠지는 우리의 팀워크는 예술이었다. 한터 모두 솔자의 게임만큼은 프로 게이머 급이었으니, 둘 다 가장 자신 있는 '훈민정음 게임'을 주력으로 '손뼉 게임' 같은 팀워크 크로 승리하기 쉬운 게임을 진행했다.

여자 A: 아, 너희 게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누라: 뭘 잘해. 너희가 못... 너희 게임 !!

영준: 뭐야 왜 갑자기 게임... ㄱ

여자 A, B: ㄱ!!! 아... (double kill)

늘어가는 술병에 모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었다. 여자들은 똑바로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에디터는 A 일과 삼방등이가 되었고, 영준은 이미 8양의 허벅지를 반죽하고 있었다. 경기는 9회 말, 이제 홈런 칠 일만 남았다. 눈이 서서히 감겨왔지만, 장신력을 영준으로부터 끌어올렸다. 그렇게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처자 두 명을 엮다시피 해서 술집을 나왔다. '둘씩 씻어줘야 한다.' 두 한터는 말이 아닌 눈빛으로 대화했다. 그리고 그렇게 에디터, 집 병행이 같은 A양 둘만 남았다. ☹

총합계 78,500원 + 환산장례비



부킹술집 매니저와의 인터뷰

방문하는 손님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

20대 초반의 여자 손님이 많다. 가끔 고딩도 도전하지만, 신분증을 검사하며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수질 관리를 위해 1962년생부터 83년생까지만 출입을 허가한다.

부킹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

외모에 심하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 50% 이상 합격한다. 직접 한터가 아니라 중업원을 통한 자리 합석 이라서 중업원이 얼마나 말을 잘해느냐도 승패를 좌우한다.

여자들과 합석까지 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가?

남녀 2:2 기준으로 만취할 때까지 먹는다면 6만 원 선이다. 인주 한두 개에 소주로 승부한다면 말이다. 여자들이 라테일을 주문하거나 비싼 안주를 시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킹 술집 성지순례

밤상은 차려졌다.



건대 왕대막, 시민 호프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시작되었다면, 부킹 술집의 발생지는 건대 입구로 가슬러 올라간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간인 사냥터답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한터와 픽업 아티스트들이 집결한다. 전국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부킹 중갓집으로 초보 한터라도 도전해볼 만하다.



신촌 유별

스마트 부킹 주점이라는 콘셉트의 신개념 술집이다. 아이패드로 음식을 주문하고 메신저를 이용해 노래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유용한 것은 화상 채팅을 통해 다른 룸의 여성과 합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 안에 설치한 TV는 부킹에 실패한 손님들의 시간을 때워주기 위한 유별의 친절한 배려다.



홍대 덴아웃

방명에도 못 보드 차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성에게 술값 5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나이트저널 테이블마다 빨간 동이 놓여 있는데, 만원이 성사됐거나 한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을 쓴다. 합석에 성공하면 근처에 있는 동 형식의 술집 '해피터 덴아웃'으로 이동한다.

LIVE



FROM

NEW YORK,

IT'S

ABBY

ELLIOTT!

신녀는
TV 세트장에서
데이비드 레터맨 같은
검출한 사회자들을
보며 자랐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방송국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신녀가 훗날
SNL을 빛내는 스타
에비 엘리엇으로
성장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b y
D A V I D
S W A N S O N

영상으로 보면
더 좋지



photography
by
T U R E
L I L L E G R A V E N



미국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이하 SNL)>에서 가장 아찔한 크루(고정출연자)를 고르자면 단연 에이비 엘리엇이다. 그녀의 안젤리나 졸리 성대모사는 완벽에 가깝다. 놀랄 일도 아니다. 아버지 크리스는 <데이비드 레터 맨 쇼>와 <SNL>,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무서운 영화> 등 각종 코미디 쇼프로와 영화를 주름잡은(주로 정산병자로 나온) 유명 코미디 배우다. 크리스의 아버지, 즉 그녀의 할아버지 밥 엘리엇 역시 라디오방송부터 SNL까지 고루 섭렵한 전설적인 코미디언이다. SNL을 3대째 장식하고 있는 엘리엇 패밀리라 귀염둥이 에이비. 그녀의 웃음과 유머는 날 때부터 DNA에 새겨져있는지도!

유명한 코미디언 아버지를 둔 기본은 어떤가? 부모와 같은 방송국 건물에서 일하는 기본이 이상하진 않나?

진짜 이상하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방송국에서 만났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방송국에서 만나 결혼했다. 그래서 쇼 섭외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튜디오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어른들의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밥은 70년대에, 아버지 크리스는 90년대에 그리고 당신은 2008년부터 SNL 무대에 등장했다. 당신이 코미디를 택한 건 필연이라고 봐야겠지?
 일찍 어릴 시절 때쯤 사라 제키카 파카(현재

스 앤 더 시어)의 캐리가 호스트로 나온 걸 본 적도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더 자주 갔었다. SNL은 나에게 늘 친숙한 곳이였다.

몇 살 때 처음 무대에 올랐나?

스물한 살.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출연을 못해서 우울했을 텐데, 다행이었던 8지 난 확실히 예전 SNL보다는 훨씬 덜 자극적이긴 하다. 예전엔 뽕 맛은 듯 막나가는 코미디였다면, 지금은 여전히 재미있긴 하나 '뽕'은 뽕 코미디라고나 할까?

당신의 안젤리나 졸리 성대모사는 최고다. 졸리 앞에서 그녀 성대모사를 한 적은 없다. 아마 죽어도 못 할 거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잘 생각해봐, 혹은 아니? 만나게 될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토타타)와 엄청난 팬이다. 8살이나 봤다. 그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열세 살 소녀처럼 완전 정신줄을 놓아버릴 거다. ☺

졸리 외에 반한 여자는 또 없나?

너무 많다. 시에나 밀러, 엠마 스톤... 남자는 딱히 안 떠오른다.



애비 엘리엇

태어난 곳: 미국 뉴욕 주, 뉴욕

생년월일: 1987년 6월 16일

데이트 심층: "맨 처음 (레터맨)에서 데이비드 레터맨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무척 반가워했다. 난 긴장해서 바를바를 떨고 있었죠."

이상형: "남자에게 유머감각은 정말 중요하다. 꼭 코미디언이랑 연애했다는 건 아니고... 뭐 실제로 그런 척도 있던 하다. 아마 또 코미디언이랑 사귀게 될 것 같다."

웃기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웃긴 사람은 나의 지매 브라이이다."

아이팟 선곡 리스트: "요즘 KE\$HA에 꽂혔다. 물론 모파르트 곡도 담겨있네음. 너무 뻘한가?"



“

디카프리오가 우리 쇼에 출연한다면
나는 침대 소녀처럼 정신줄을 놓아버릴 거다.

”





끝하지
않는

소말리아 해적떼

지난 2011년 1월 21일 삼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성공 이후, 이전 소말리아 해적들이 몰아서 우리나라 배에 안 덤빌 것 같나? 아니다. 이 바퀴벌레들은 여전히 아덴만 근처에서 한국 선박을 향해 해적질을 시도하고 있다. 지치지도 않고 말이다. **BY 김재영**



유연면
복이 왔어.

해적때의 무한 증식

올 상반기 전체 해적 사건은 226건으로 지난 해보다(196건) 30% 상승했다. 해적에게 피랍 당한 선박은 29척, 선원수는 무려 485명이다. 배는 그대로 둔 채 선원만 납치한 사건도 2번이나 발생했다. 해적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데 의 일등공신은? 역시나 소말리아 해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사건이 163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0건(63%)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국내 대표적인 해상보안업체인 인텔넷지사의 해적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예멘과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해적들이 아덴만을 벗어나 홍해 입구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인도양을 종단해 걸프만과 인도양 해역까지도 출몰한다. 홍해와 걸프만은 전세계 에너지 수송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만약 아덴만과 같은 상황이 이곳에서 발생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다.

네버 엔딩 어택

지난 2011년 4월 22일, 한진 탱커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심형 선박인 한진 탱커호는 선박 내부에 긴급피난처가 있었다. 긴급피난처란 해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선원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다. 마치 영화(메니콜)에 나오는 은신 셸터에 숨는 것처럼 말이다. 배에 올라만 해적들은 이 긴급피난처까지 도달했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고 결국 배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이후 우리 해군의 최영환이 근처에 도착해 해군특수전여단(LDT/SEAL) 2개 팀이 고속단정으로 배에 올라 한진 선원들을 보호했다. 한진 탱커호 피랍 미수 사건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해낸 지 겨우 9일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실로 끈질긴 소말리아 해적들이다.



박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참다 못한 국제 사회가 아덴만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해군도 연합 해군의 일원으로 아덴만 지역에서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연합 해군이지만 방대한 해역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선박들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높이고 있다.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 직전 이후 아덴만 지역으로 운항하는 선박들은, 내부에 긴급피난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긴급피난처가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 두꺼운 철문으로 무장한 피난 셸터이지만, 요새 해적들이 부쩍 많이 들고다니는 RPG-7과 같은 대전차 무기를 만나면 그냥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선박에 사설 보안요원들이 탑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긴 세균이 못 오거든. 다행히 해적들은 무장한 사설 보안요원들이 탑승한 선박을 공격하는 일은 꺼리는 편이다. 이 사설 보안요원들이 좀 무서운 형님들이라는 건 짐작이 가겠지?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은·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일리타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별진 이미지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장황을 연재 중이며, 인텔넷지사에서 국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더 보기



숨은 군바리 찾기. 푸영부일

UNDER CONTROL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벤트의 여명 작전으로 위세를 떨친 최영함을 소개한다. 아니, 바로 위에 이순신이라 해놓고 최영함을 소개한다니 무슨 소리야? 응 그건 말야, 2003년에 건조된 총무공 이순신함 이후로 동급 함이 5개나 더 만들어졌는데 이들 모두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라고 해. 그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6호함이 바로 이벤트를 펼 최영함이야. 거 왜 최영 장군도 꽤 이순신 장군 '급'이잖아?

함대 방공 구축함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Destroyer)은 해군 최초의 함대 방공 구축함으로, 본격적인 대양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다. 지난 2003년 1번함인 총무공 이순신함이 취역한 이후, 2006년까지 총 6척이 건조되었다.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4년 한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을 시작으로, 청해부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해외 훈련과 군사 작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특히 청해부대에 소속했던 최영함의 경우 2010년 12월 29일, '이벤트의 여명' 작전을 펼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실패 주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에는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 고립된 리비아 교민들의 철수를 도왔다. 해군에서는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헬기 탑재 구축함(DDH)으로 분류하고 있다.

'겹겹이 방어막을 친다'는 건 바로 이런 거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해군 최초의 함대 방공 구축함인 동시에, 다중 방공망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군함이다. 다중 방공망이란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함정의 최종 방공 수단인 근접방어무기(CWS: Close-in Weapon System)를 중첩해서 배열함으로써, 적기나 적의 대함 미사일에 대한 요격 확률을 높이는 방공망이다. 다중 방공망은 특히 대응시간이 짧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중 방공망은 단순히 사거리에 따라, 방공 무기 체계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 체계들을 배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많은 시물레이션과 노허우가 필요한 기술이다.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장거리 함대 방공미사일로 SM-2 미사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RIM-116 록, 근접방어무기체계로 골킥터를 채택했다.



스텔스 설계를 최초로 도입한 국산 전투함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스텔스 설계를 최초로 적용한 국산 전투함이다. 우선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다. 선체 전체에 10도 정도의 경사각을 적용하고, 6도의 경사각을 가진 캄팩 마스트를 도입했다. 이러한 스텔스 설계로 기존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80~90% 감소시켰다. 적의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 설계도 이루어졌다. 적외선 방출률이 높은 연돌을, 그리고 기관부에는 적외선 차단재를 사용했다. 또한 적외선 억압 시스템을 설치해 배출되는 적외선양을 최소화했다. 적외선 억압 시스템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 공기와 혼합해 배출시켜 적외선 방출량을 줄인다. 또한 적의 어뢰나 잠수함에 대한 음향 스텔스 설계도 적용했다.

전략 기동부대 제7기동전단



1945년 해방병단이란 이름으로 첫 결성을 내디딘 우리 해군은 항쟁이 작고 남아 한 번도 근해에서 주로 작전할 수밖에 없는 연안해군이었다. 2002년부터 세계 어느 곳도 없는 출동해 작전을 발할 수 있는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대형 항정들을 보유하고 되면서 지난 2010년 2월 19일 해군의 전략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창설되었다. 제7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등 7척의 대형 항정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항정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전투함이 모두 속해있는 셀, 제7기동전단은 유사시 남북 충돌은 물론, 밀라카 해협 등 우리 주요 골자 해상 수송로 보호 작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지원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다. 평상시에는 우리 근해에서 작전을 떠나야 할 경우 세계 어디든 출동한다. 기동전단 창설은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겠다.

대양작전에 적합한 함정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광개토 대양함급 구축함에 비해 함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양에서의 임무수행 능력도 향상되었다. 특히 내파성(파도를 건드는 정도)이 크게 향상되었다. 광개토 대양함급 구축함의 경우 내파성이 4m에 불과했지만,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9m로 높아졌다. 대양의 거센 파도를 건드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추가로 100여 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아덴만에서 작전하는 항해부대의 기함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다형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을 추진 체계로 사용한다. 최대 시속 29노트(54km/h)로 운항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18노트(33km/h)의 속도로 항해할 경우 4,000해리(7,408km)에 달한다.

현무-3 순항 미사일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는 우리나라 전략무기라 할 수 있는 현무-3 순항 미사일로 탑재할 예정이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만에 개발한 국산 순항 미사일이다. 토마호크와 흡사하게, 지상에서 50~1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도 비행하기 때문에 적군이 요격하기 힘들다. 또한 관성 항법 장치와 지형영상대조항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차범위가 3m 이내일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중엔 한국형 수직발사장치기 장착된 4번함 원건함부터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하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0km로,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주요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함정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선 군함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체계인 함포는 KMK-45 5인치(127mm) 함포를 채택했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함포로 현대 위아에서 면하 생산되고 있다. 표준탄 사용시 사거리가 48km에 달하며, 사거리 연장탄(ERFGM: Extended Range Guided Munition)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117km로 향상된다. 대함미사일로서는 사정거리 150km의 국산 대함 미사일인 해상용 장척했다.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4번째 함인 원건함부대는, 한국형 수직발사장치인 KVL5(Korean Vertical Launching System)가 장착되었다. KVL5에는 한국형 대함 미사일인 홍상어를 탑재한다. 이로부터 일파한 홍상어는 멀리 떨어진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로, 사거리가 19km로 알려져 있다.

추가건조가 시급하다

본격적인 대양작전 항정인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해군 항정 중 가장 비싼 신 몸이다. 우선 총 6척의 함정 중 1척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는 할크 훈련과, 해상생도들의 순항 훈련에도 참가한다.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인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6척의 함정이 상시 출동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값비싼 KD-3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의 추가 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2011 Miss Maxim Winner 이명희

2011 MISS MAXIM의 왕관은 대구 차차 이명희 양의 품으로 돌아갔다.

보답으로 역대 MISS MAXIM 중 가장 아찔한 화보를 선물한다.

BY 기획생 PHOTOGRAPHY ARC STUDIO FILM 총정리 HUR 이도우
MAKEUP 과영은 ASSISTANTS 조수현, 최민영

COOPERATIONS 마루 이나혜에(02-217-7610) 코데즈 캠페인 피코드(02-776-8385)

비디캅(080-045-0456) 캠퍼블라인 언더헤에(02-691-9838)

GO TO
MAXIM
IPAD
미공개컷



YOU KNOW WHAT? #1

황당해 보이지만 효력이 있는 세계의 법령 등을 모아놓은 미국의 'DUMBLAWS' (www.dumblaws.com)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노래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HER STORY

매달 새로운 MISS MAXIMO 등장할 때마다 그녀들을 향한 독자들의 관심은 과히 폭발적이다. 이런 독자들의 관심만큼이나 MISS MAXIMO이 되고 싶어하는 어린따은 지원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하다. 2011년에도 그랬지만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들을 모두 MAXIMO에 등장시키면 좋겠지만 MAXIM 한 권을 MISS MAXIM 확보로 채울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편집부 에디터들은 뽑주하는 지원자 중 그 달에 등장할 MISS MAXIM을 골라.투노라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왜냐하면 미처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들 중에서도 어린따은 이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우승을 거머쥔 이영희 양도 2010년도에 미처 형제하지 못한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녀가 다음해인 2011 MISS MAXIM CONTEST에 또 지원해준 덕에 그녀의 훌륭한 비디오편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MAXIM에서 마르지 않은 몸매를 찾는다니 정말 기쁘네요" 라는 인사말로 MISS MAXIM CONTEST에 과감한 셀프 후보를 올렸고, 그녀의 훌륭한 비디오편을 단숨에 알아본 수컷들의 친목적인 지지로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 모두 단연 압도적인 마음으로 수를 기록하며 MISS MAXIM의 영광을 물려받게 되었다.

연더웨이 비디오편
스커트 코데조 캄바인 비디오편
사위 기온 캄바인 연더웨이
구두 슈즈편



언더웨어 마쿠 이너웨어



YOU KNOW WHAT? #2

미국 보스턴 시에서는
의사의 허락을 안 받고 목욕하면 불법이다.

YOU KNOW WHAT? #3

중국에 사는 한 남자가 뱀장어로 목욕하면 젊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목조에 새끼 뱀장어 수십 마리를 풀어 놓고 목욕을 했다. 하지만 그 중 한 마리가 생식기를 통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몸 안을 휘젓고 다녔고, 그는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15cm의 장어가 방광에서 나왔고, 담당의사는 "장어의 침액질이 윤활제 역할을 하니 장어 목욕은 하지 말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2012 MISS MAXIM CONTEST

내년에도 MAXIM 허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러므로 여성 독자들이 널리 거려 있는데
2012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하라.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상금도 올라간다.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 MISS MAXIM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보여준 예쁜 사진 10장 정도 업로드 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 문의** 02-323-1182 alice@maximkorea.net

촬영장
첨부하기



Smart is Sexy!

잘난 브리프케이스 하나로 회사내 모든 시선을 호령하고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능력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BY 곽광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최혜연 HAIR 윤우진, 윤재은 MAKEUP 곽영은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 데이비앤제네럴(www.davichanel.com 031-873-6717) 맨다레.씨(02-516-7070)

밴드오브클리어스, 세븐타이밍퍼포먼스(080-202-2002) 비어모노(02-546-7764)

프리미엄라미에(02-2119-6087) 뽀샵.이(02-548-3956)

코디즈 캠퍼인 아-레(02-3444-7712) 슈즈덴(02-3443-1703)

1

1 2mm 두께 스펀지 안에 13인치 맥에도 "스크래치 후리덤"을 외친다.
계갈 같은 수납공간과 슬더스트랩이 편리함을 더한다. 359,000원 데이빗앤제네럴(40x27x7)

*가로 x세로 x높이(cm)

앤드웨어 코디즈캠퍼인 이너웨어
구두 슈즈원

좀 알뜰한 놈들 부장님, 전무님으로 오인받는 노인 새내기들에게 바칩니다. 센스 있는 포트폴리오 백!



노트북, 아이패드를 품는 사이즈
+ 탈착 가능한 어깨끈
= 빈틈없이 깔끔하고 센스도 있는 놈
219,000원 밴드오브플레이어스
(40x28x2)



핑크 가죽 + '핑크게이'라는 오해를
떨어줄 세련된 갈색 캔버스 = 친구들,
애인인 히어른 여자 많은 놈
219,000원 세븐티에잇퍼센트
(23x34x0.8)



클래식한 이중 단추 + 가죽 끝단
처리와 모직 안감 = 스마트한 이미지
를 더욱 돋보이게 할 독특한 놈
36,000원 바이모노(25x31x0.8)



공기보다 가벼운 싸움 + 오해 일
은 내일 생각해 + 인생이 일화용
= "저 새끼 누가 볼았어?"



2 착각 불러낸 수납공간이 늘어난 브리프케이스로, 툰 다운된 오렌지 색상이 멋진 직장 생활에 활기 준다.
378,000원 만다라나예(40x30x10)

3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가 당신을 드라마 속 귀공자 실망님으로 포장한다. 실상은 가방에 프린트된 세계 지도를 보며 해외여행을 꿈만 꾸는 유리 지갑처럼이지라든! 1,098,000원 프리마클라시베(40x30x10)

GO TO
MAXIM
IPAD
만가방 2012



작업의 화룡정점

보일 듯 말 듯한 그녀의 다리 사이를 공략하는 방법 오만 칠천여 가지 중
단연 첫 번째, 당신의 열정을 양말로 승화시켜라.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조다현 MODEL 김도희, 이도우, 전영준, 송종민, 김도훈



물가 짝는 남자

빨간 패딩 조끼 127,000원 에드윈
 생지 데님 팬츠 139,000원 트루젠
 남색 데저트 부츠 189,000원 스위스라이

술에 띄어 된 남자

하늘색 셔츠 108,000원 데님앤서플라이 by 발로 로빈
 카키색 면바지 89,000원 코데즈 컴바인 하이커
 파란색 신발 145,000원 리코스테

술에 약 타는 남자

패딩 조끼 298,000원 올덴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295,000원 시스템오므
 생지 데님 팬츠 268,000원 아메레
 자주색 신발 39,000원 반스



술병 든 남자

빨간색 셔츠 129,000원 올펜
 상아색 니트 가격 미정 빈폴린
 키고바지 179,000원 올펜
 볼트론이 떠오르는 신발 99,000원 푸마

고개 숙인 남자

지미형 후드 239,000원 빈폴린
 주황색 팬츠 69,000원 테이트
 하늘색 신발 109,000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최종 위너

두툼한 카디건 218,000원 레지스
 대님 셔츠 149,000원 빈폴린
 강아지가 뛰노는 검은색 코듀로이 팬츠 198,000원 올펜
 노란 끈이 포인트인 신발 94,000원 푸마



남자 양말 모두 삭스어필

COOPERATIONS 삭스어필(www.soxappeal.co.kr 070-7562-5882) 스위스커피인(02-546-0203) 에드윈, 테이브(02-3444-7712) 트루맨(02-3456-9061) 울젠(02-3709-9194) 민들린(02-2076-7629) 푸마(02-3443-7808) 반스(02-553-7924) 데남앤서플라이 by 빌프로렌, 제리스, 코데조림버인 하이커(02-546-7764) 시스템유즈(02-546-7109) 아디다스 오리지널스(02-574-0325) 라코스텔(02-517-4628) 아테세(02-3443-7652)

이 태 원, 그 중심에서 패션을 외치다!

BY 조다현 PHOTOGRAPH ARC STUDIO



김선우(26, 쇼핑몰 CEO)

재킷 / 동대문

재킷, 바지, 장갑 모두 보세
신발 뉴발란스
가방 아웃도어 프로덕트



BEST

이 사람이
뭇인 듯 저
보스, 백팩을
한쪽 어깨로만
메는 저 센스!
오빠 반했따로,
너도 멋있잖아!
뽕뽕복순!

황재국(27, 디자이너)

모자 / 종대

모자, 바지 브리즈웨이
재킷 브라운브레스
신발 대너
가방 플렉코브



박상현(24, 학생)

신발 / 오리인

모자 싸우
재킷 바지 와이
니트 스파오
신발 나이키

패션 피플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명동, 동대문, 신사동 가로수길 모두 모두 비켜라. 이제 패션의 성지는 이태원이다.



오늘 패션의 포인트는? / 주요 쇼핑지?



이호영(30, 유학생)

레깅스 / 일본

비니 에이치맨엠
재킷 제이프레스
바지 유니클로
레깅스 헬스니트
신발 나이키
가방 그레고리



김기재(27, 디자이너)

가방 / 명동

재킷 세컨무브
니트 비온드클로젯
바지 앙말 모두 유니클로
신발 빈티지
가방 캄포마르치오



조지 알가린(16, 학생)

가디건 / 대구

비니 노스페이스
재킷 가디건 보세
바지 알렉산드라
벨트 리바이스
신발 반스
가방 찬스포츠

J&B PARTY VS. MILLER PARTY

가장 뜨겁다는 파티 두 군데서 연말을 불사른 에디터.
영하의 날씨도 잊게 해주는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

BY 김희성 PHOTOGRAPH 내스티토토, 사뽀칼리 코리아

J&B CITY REMIX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12월 23일,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남은 금요일이었다. 덕분에 커플들은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금요일부터 백지화하듯 치를 수 있었지만 솔로들은 더러운 기분을 무려 3일 동안이나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솔로에게도 불금을 가능하게 만든 파티가 있었으니 바로 'J&B CITY REMIX'다. 당시 머릿속을 스쳐간 바로 그 위스키 J&B 말이다.

뜨거운 파티 속으로



CLUB OCTAGON

오cto 팔자가 열린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CLUB OCTAGON. 클럽 중 다한다는 사람들이 이미 한바탕 타났것을 욕 타같은 오후엔 지세 몰도 채인 한 따끈따끈한 것으로, 국내 클럽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파티 위스키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J&B의 명성에 걸맞은 파티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터. 최대, 최초관 수 시어가 짙는 것이고 실속 없이 소용만 무성한 경우가 많지만 옥타곤 만큼은 예외였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을 땐 유행이 있었잖아? 옥타곤은 옥타곤이 잘 찢아가는 클럽이니 오늘 밤 클럽 문지방이라도 밟아주겠다 면 바로 여기다.



DJ OF THE DAY: BEEJAY

인테리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워너 웨너 해
도 클럽의 같은 음악이다. 아무리 훌륭한
파티라도 음악이 명료하면 흥도 안 나고 술
맛도 톡 떨어지는 법. 이 날 J&B 파티의
출중 토크주오는 국내 최고의 DJ로 유
명한 비제이였다. 클럽 옥타곤에서 음악
강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비제이는 파티
커뮤니티 파티클럽에서 50주 연속 DJ에
이정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분위기는... 왜 안 해도 질적하지?

FRIDAY NIGHT FEVER

파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
퍼포먼스 팀의 댄스가 이어졌고, 이들은 무대 아래
로 내려와 클럽 안을 휘젓고 다니며 파티장을 인도했다. 옥타
곤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럽댄스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풍덩 뛰
어들어 몇 시간이고 묘기에 가까운 연스를 보여준 그녀들의 퍼포먼스로, 파티
분위기는 청점으로 치달았다. 그 덕분에 더러운 친구석을 탈출해 이곳으로 피신해 온 수
컷들은 더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지.



TURN UP THE NIGHT

공같은 볼금을 보내고 나서 눈을 뜨니 크리스마스이브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이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 전날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예디타가 향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CLUB JUNKY(구 HEAVEN). 파티 때마다 모든 클라버들을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일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X-MAS PARTY WITH MILLER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여름 내내 클럽, 이태원, 영삼 쪽고 부산의 뽕문대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가장 핫하다는 클럽을 옮겨 여름 내내 파티를 연 밀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이날은 솔로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클럽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디타의 눈을 반짝 뜨게 만든 반가운 문구: "크리스마스에도 솔로를 반짝 뜨게 만든 2층 티켓 부스로 오셔서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우수, 레알???

BOOKING BY MILLER

일라에서 춤로를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방식은 간단했다. 먼저 부스에서 카드 한 장을 받고 나서 자신과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면 되는 거다. 카드를 패어로 만들면 밀러 2명을 쓰니 이젠 뭐 없던 시랑도 풀릴 기세 이날 수확이 있었나? 그음배... 후후후

독자 초대 이벤트

TURN UP THE NIGHT: SEMF AFTER PARTY

밀러의 새해 첫 파티이자 '서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2012'의 애프터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파티 일시 2012년 1월 28일 오후 10시
장소 청담동 CLUB ANSWER
신청방법 이름/당신이 밀러 파티에 가야 하는 이유를 문자로 보내라!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보면 독자 10명에게 파티 입장권을 쓴다.
(1인 2매 제공)

보낼 곳은
010-5899-1182
문자는 26일 오후 3시까지만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
1월 27일
(7개별 연락)



SEXY SANTA BABE

이날의 드레스 코드는 크리스마스를 핵심이 반영한 레드&화이트, 과감하게 색사한 산타로 변신한 남녀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징징거리는 여친보다 백배는 더 좋은 산타 남녀들의 등장에서 수컷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이날 술로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곳곳에서 열렸지만 역시 밀러의 크리스마스 파티만큼 고된 건 특별한 선택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라서 오히려 행복했던 아군이 바로 지상낙원이고 무릉도원이었었다. ☺

뜨거운 파티 속으로



MAXIM BUYER'S EDGE



미러리스 카메라의 결정판, 알파 NEX-7
2430만 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라니, 이 조그만 녀석에 결정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을 알 만하다. 초당 10장을 찍아내며 세계에서 평약는 0.02초의 세터 릴리스 타임으로 천 세계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중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가격 140만 원대 www.sony.co.kr/store

파워에이드 마시고 박지성 경기 보러 맨유 가지라



코카-콜라는 (주)네오우즈게임즈에서 서비스 중인 'FFA 온라인'과 함께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해맞이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파워에이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파워에이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뚜껑 안쪽에 인쇄된 코드를 'FFA 온라인 2' 홈페이지(itonline.pmgang.com)에 입력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문의 02-3271-3074(코카콜라)



에세 센스(ESSE SENSE)로 깔끔한 흡연

에어그립 필터를 장착한 초슬림 담배 에세 센스가 나온다. 에어그립 필터는 필터 끝 부분에 공간을 두어 깔끔한 흡연이 가능한 것이 특징. 국내에 출시된 초슬림 담배 중 에어그립 필터를 장착한 것은 에세 센스가 처음이다. 또 세계 최초로 '3열 6각' 패키지를 적용해 손 안에 꼭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메탈 재질감으로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20대, 30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2,800원(타르 1mg/5mg)



닛산 큐브(CUBE), 발리 블루(Bali Blue) 컬러 출시

한국 닛산은 일진년 새해를 맞아, 오리지널 박스카 큐브(CUBE)의 발리 블루 색상을 최초로 공개하고 공식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발리 블루는 기존 캐러비언 블루를 대체하는 색상이다. 닛산은 앞으로 젊은 층의 남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스티키 몬스터 랩(Slicky Monster Lab)과 주시 쿠티유(Lucky Culture) 등 감각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80-010-2323(한국 닛산)

슬ما하는 뒤에! 퓨아 백백

퓨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트리트 트래션(Street Traction) 라인인 고기능 코듀라 원단을 사용해 탱크가 밝고 자기도 구겨짐이 없을 내구성을 지녔다. IT 기기와 무거운 책을 넣고 다녀야 하는 학생이라면 이 녀석으로 간자와 실용성 두 가지를 잡아보자. 낱알출을 중요시 여기는 패셔니어들들을 위해 그레이, 핑크, 블랙의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가격 79,000원 문의 070-7012-6544



ck 언더웨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 커를 아이템 제안

모던 & 섹시함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ck 언더웨어에서 사랑스러운 'ck one' 커를 아이템을 선보인다. 모던한 디자인에 세련된 프린트를 더한 'ck one' 커를 아이템은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 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마이크로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세련된 커를 아이템 특히 2월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 화려한 컬러감과 발랄한 로고 프린트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 커를 언더웨어다.

문의 02-3440-6331(외나코 코리아)



리스킨(RESKIN), 더 오리엔탈 레플 포 맨 출시

가능성 화장품 1위 브랜드 리스킨이 동양 한방의 신비를 담은 더 오리엔탈 레플 포 맨을 출시했다. 동양 황실에서 전래한 9가지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 속 내면과 외면에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피부를 개선해 주며 아티스틱 성분을 함유, 나이 들에 따라 깊어지는 피부 고민과 주름을 개선해 탄력 있는 피부로 유지해준다. 깨끗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마스트 해브 아이템이다. 리스킨 더 오리엔탈 레플 포 맨은 리스킨 신사점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518-1444 www.reskin.co.kr



탐스, 2012년 봄 컬렉션 출시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풀업 팬츠에 탐스를 신어준다면 당년도 패션왕 대우에 합류할 수 있다. 2012년 탐스 봄 컬렉션 중 'LET LOVE RULE' 모델은 LOVE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준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용은 핑크로, 남성용은 그레이로 LOVE를 프린트했다.

가격 69,000원 문의 1544-5344 www.tomshoes.co.kr



볼보, 2012년형 XC60 출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2년형 볼보 XC60을 새롭게 선보였다. 볼보의 XC 레인지를 완성하는 XC60은 크로스컨트리(XC)의 강인한 성능과 스포티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쿠페의 디자인이 합쳐진 볼보자동차의 대표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다절연진을 탑재한 2012년형 볼보 XC60 D5 AWD는 최고 출력 및 최대 마력이 크게 개선되어 강력하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실현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연비는 높여져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만족시켰다. www.volvocars.co.kr



인케이스, 아이패드2를 위한 프리미엄 레더 컬렉션

인제까지 착각한 아이패드 케이스를 잠깐하고 다닐 것인가. 인케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레더 컬렉션은 천연 가죽을 아날린 염색 기법으로 제작해 시간이 지남수록 가죽의 멋과 질감이 더욱하게 나타난다. 내부의 포켓은 문서와 펜을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작했다.

가격 185,000원 www.incasestore.co.kr

모바일 라이브 흥족, TAKE HD 출시

KT에서 단독으로 출시하는 테이크 HD(TAKE HD, KM-300)는 1.5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안드로이드 2.3.4 진저브레드 OS, 1GB DDR2 SDRAM 메모리,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3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등 최상의 스펙을 갖췄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4.5인치 화면에 1280x800의 해상도, 선명도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인치당 픽셀 수가 현존 최고인 335ppi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것. 영상물은 물론 e-book 리더로서 높은 가능성이 엿보인다.

www.take.co.kr

MANUS



마누스(MANUS)로 운동 효과 UP!

세계 17개국으로 수출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두꺼운 바 아답터 마누스 그립. 마누스 그립은 보어주거용 근육이 아닌 실전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제품이다. 두꺼운 바는 약력을 높이고 신세 근육에 작용해 근력운동 시 운동 효과를 150% 올려주는 운동 보조 기구. 덤벨, 바벨, 풀업바 등 모든 운동 기구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신thought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다. 마누스 그립을 통해 진짜 남자로 거듭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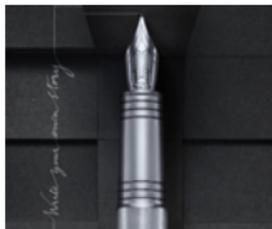
가격 27,000원 문의 070-8150-0712 www.manus.co.kr



남성 향수 사워젤 스웨거(Swagger)로 남자가 되어라!

이트 앤 디자인 인터내셔널에서 자체 브랜드 스웨거(Swagger)를 런칭하고 마초들을 공략한다. '멋진', '자랑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스웨거는 마초적이고, 때론 도시적인 시크함을 브랜드에 담았다. 스웨거는 게임에서 모티브를 찾아 스나이퍼, 더블 킬, 골 브레이커, 샷 클러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하였다. 또 유럽에서 술을 팔 때 쓰는 종이 봉투 패키징은 빈티지함을 선사한다. 스웨거로 당신의 숨겨진 남성을 되찾자.

www.swagger.kr



잡나가는 사회인의 필수품.

파카(Parker)

회사 서류에 서명 좀 규격거릴 일 있는 스워 '잡나가는' 친구라면 불만종 문어는 펜을 품에서 꺼내는 행위만큼 격식 떨어지는 일도 없다. 파카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어 모노크롬 에디션은 기존 파카의 모던한 외관 디자인에 메탈 느낌을 더했다. 이 녀석으로 서명하면 막힌 거래도 행행 돌린다지?

가격 45만 원

문의 02-554-0911 www.parker.co.kr



안공 지는 축구화, 아디데로 F50

아디데로 F50의 밀창 속에 장착하는 마이크로 스피드 센서는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 총 운동 거리, 전력 질주 횟수, 개인 최고 스피드 등 축구할 때 필요한 모든 행동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모바일로 쉽게 보낼 수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운동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다.

shop.adidas.co.kr

엠도씨(M°C)로

피지 고민 완전 타파!

한겨울에도 얼굴이 반들반들.

피부가 칙칙하다면 엠도씨에서 특별한 케어를 받아보자. 엠도씨의 세뽀 스트라이크 토너는 피지와 모공 케어 전용 스킨으로 얼굴에 피지가 많아 고민인 남성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피지 흡착력이 뛰어난 파우더와 스킨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피지를 확실하게 흡착,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을 완벽해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변신시켜준다.

이제 피지 고민으로 공공대지 말고 엠도씨 세뽀 스트라이크 토너를 만나보자.

가격 18,000원

문의 080-334-3780 www.mdcc.co.kr





남성 언더웨어의 핫 트렌드, CRAZYBONE

크레이지본(CRAZYBONE)은 다른 언더웨어 브랜드들과 달리 파격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구매자가 200만 명을 넘겨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 언더웨어 업계의 핫 트렌드로 자리 잡은 크레이지본은 앞으로 그들만의 컬러를 가지고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남들과 다른 속까지 멋진 남자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크레이지본 온라인 숍에서 당당한 언더웨어를 특별 혜택제 ENJOY WITH CRAZYBONE

문의 080-911-8979 www.crazyboneshop.com



고운머리 투블럭 신드롬으로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자.

세계 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맨저 기업 고운머리에서 밝은 머리의 젊은 남성에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투블럭 신드롬 제품을 출시했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투블럭 신드롬은 자연스러운 나선형 회오리 형태의 가마를 통해 실재와 똑같은 정수리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패션 가발. 한껏 멋을 부리고 싶은 날 헤어스타일 변신이 필요하다면 투블럭 신드롬으로 멋지게 연출해보자.

가격 3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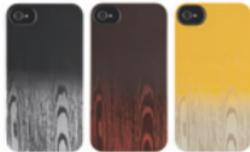
문의 1600-7404

www.gowonhair.com

한국갤리, 아이폰 4S 전용

케이스 뉴 콜렉션 출시

핸드폰 케이스만큼 그 사람의 센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녀석도 없다. 벨킨에서 출시한 뉴 콜렉션은 화려한 두툼 컬러의 케이스부터 그래픽이선 디자인, 나뭇잎 무늬 디자인 등 독특한 스타일과 질감이 돋보인다. 이 정도면 클럽에서 핸드폰을 꺼내거만 해도 여자들이 넘어오겠지?



가격 2만 원대 문의 02-2088-7306



토이워치와 인디펜던트의 공통 작업

토이워치(TOY WATCH)와 이탈리아 인디펜던트(ITALIA INDEPENDENT)가 공동 프로젝트로 스켈라스와 시계 라인을 출시했다. 인디펜던트는 060UV 선글라스로 UV rays 차단과 안티 스크래치 렌즈로 태양 아래서 장시간 활동해도 눈부시지 않아 눈의 피로감이 없다. 토이워치의 벨트 스템으로 만든 시계는 엔디함과 우야움을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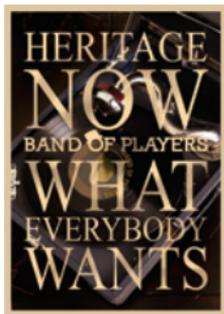
문의 02-354-1132(지오아이)



맨즈 박서 브리프(Men's Boxer Briefs)의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는 깨끗함과 편안함을 모두로 둔 남성 캐주얼 underwear 신구 브랜드다. 유니크하면서도 편안한 남성의 이미지를 담은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 더욱 모던한 형태와 핏, 스타일, 디테일 등에서 개성 강하고 독특한 변화되는 소비자 감성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70-8272-6776(LEAVE ME ALONE) www.leavemealone.com



밴드오브플레이어스

(BAND OF PLAYERS) 매장 오픈

수입 셀레션 밴드오브플레이어스는 코믹 스템에 이어 가로수길에도 오픈라인 매장을 오픈한다. 밴드오브플레이어스의 오픈라인 매장은 헤리티지한 클래식한 감성과 워드 있는 요소를 혼합한 유니크한 매장이며,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이너 컬렉션 이믹스되어 구성된 가발, 신발 외에 의류 제품도 선보인다. 각 매장은 이벤트 기간 내 특별한 할인 혜택과 밴드오브플레이어스의 양말과 4G USB를 시선품으로 증정한다.

www.bandofplayers.com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맥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니?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애!

- 1 MAXIM 2012년 2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2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첨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차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 4 블로그나 SNS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2012년 3월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꺼고 확인한다. 2012년 1월의 승리지는 독서대를 이용해 MAXIM을 정복한다는 김동욱 독자다. 두 권이나 구매하시디나, 감동됩니다.



무척 스페셜한 이벤트

MAXIM 독자여, 레알수컷이 되어라!

진짜 남자의 주먹질을 보고 싶어 중환급격투 경기 ROAD FC에 당선을 초대한다. XY 염색체를 가진 즉 속이러면 피가 끓팔 끓어올라 가다.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에서 단 12000원도 MAXIM을 주문한 모든 독자에게 집지와 함께 경기 입장권을 무로배송한다. (선착순 / 티켓 소진 시까지)

경기 날짜: 2012년 2월 5일 장소: 서울 강릉체육관

과를 때 가져가라!

GIFT LIST

언더웨어 300M by 빈호, 시세이도 우노웬스, 맨즈클래시 액티브 웨어, 루마카 클리어스 달앤세, 소유스킨 남성형갈레 쏘클린 클렌저, 반디이 프라이드, 슬러그드 차랑 티빙 체형권,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슈가포인트 베니롱보브, (미라클) (여우비) 티켓, ROAD FC 티셔츠8입장권, 마우스그림 컬렉션 (두꺼운 바, (세이프하우스) 시시화권, 클럽 파티 입장권 등



100% 천연 개구리 통전 지갑

- MAXIM 편집장의 마닐라 여행 기념품 -

(마닐라 신인 드, '눈물, 지퍼, 레고 다 킷과 개구리 레알 마르케트 개구리')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쳐나!

MAXIM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뽐내니 즐겨찾기 하신다.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트위터로 모아쓰시



영화 시사회 이벤트 참여



MAXIM 독자 특별 시사회: 세이프 하우스

MAXIM 독자의 알뜰 데이트를 위해 특별 시사회를 초대 차세대 액션 스타와 로맨틱 기질을 뽐낸다는 라이언 레 이놀즈, 신인 배우 겸작반 단골을 워싱턴 형님이 출연하는 신작 영화 (세이프 하우스)를 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바로 QR 코드를 찍어라!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43페이지를 참고할 것

MAXIM ONLINE STOR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록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별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들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겐 너무 길다만? 해외에서
주문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려던 MAXIM 과월호가
절반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잡지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원 적립**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원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진정 MAXIM의 마니아인가?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자!

- 1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2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3 집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4 할망님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 5 장차 없는 미공개 화보
- 6 다들 다들 MSS MAXIM을 당신의 직접 감상할
수 있는 MSS MAXIM 온라인 콘서트



이달의 도전 과제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경기도에서 한자리 댄차고 있는 독자들이 이렇게 말을 좋아하(도)음에 게 관동성명을 대라는 댓글이 뭐 이리 많아? MAXIM은 당시 상황과 감회성 에디터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똑똑이 아씨의 캡션에 우승의 영광을 선사하겠다. 종종 실제 촬영장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맨발로 뛰면서 발가락이 떨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낸다. 그 고통을 이리도 시원하게 겪어주다니! 패러디도 좋지만 사진의 상황을 절묘하게 짚어 낸 말풍선에 높은 점수를 준다. 저 용가승 케이터 배리가 뭐라고 외쳤을지 다음 달에도 여러분의 발간찬 아이디어 기대하네.

"저도 산발 좀 넘는 거 하나 없을까요? 발이 시러서" - 똑똑이 아씨



용도하기

- 1 움직인 캡션을 씨래 움직인 마음에서 우러나!
-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쓴 독자에게 **마누스그림캡션 (주파운 비)**를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니 위로
내 일로이 잡힐!

ID 많이 당했음

다음 멘트는
'애들 관리 안하냐
겠지?'

MAXIM

넌 가슴에 봉 좀 빼지?

ID 윤장영

풍 아니고 건퍼런!다.

MAXIM

올해 마흔인데 너희보다
어려보이지?

ID 쿠닌

아직 서론도
안 봤거든?

-감회성 에디터-



more sexy.

FX채널
있다고
과월호 받기



이제, 더 선명하게 보자

2012 FX섹시광고**HD**

2월 6일(월) 밤 12시 첫방송

MAXIM

KOREA

SATURDAY
NIGHT
LIVE

이철민

SMOKE&DRINK

흑맥주 히스토리
점입가경 담배 전쟁

TRAVEL

MANILA 카지노 방랑기
10만 원 들고 가는
TOKYO 휴가

MILITARY

해적 잡는 총무공 이순신함

FIGHT CLUB

북파 공작원 출신
ROAD FC 김중대 선수
종합격투기 선수의 킥 단련법

GEAR

레이저의 PC 게임 전용 태블릿
WATCH THIS WATCH
잘나가는 전기면도기 4종 비교
CES 2012가 남긴 떡밥

STYLE

이성을 끄는 양말+운동화 조합
안 늙어 보이는 서류 가방

약속대로

독자 투표 1위 먹은
쇼핑몰 모델 화보

FEBRUARY 2012



www.maximkorea.net

매우기 동생 사마귀